

I. 러·일간의 각축

1. 삼국간섭과 을미사변
2. 아관파천
3. 러·일의 한반도 분할 획책

I. 러·일간의 각축

1. 삼국간섭과 을미사변

1) 삼국간섭과 일본의 대조선 정책

청일전쟁이 시작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미국 등 구미 열강의 중재 아래 그 해 10월부터 강화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의 승리가 불을 보듯이 명백한 가운데 제기되는 강화의 조건은 일본에게 유리한 것임은 두 말할 여지조차 없다. 일본과 청국은 오랜 동안의 협상 끝에 드디어 1895년 4월 17일 강화조약에 조인함으로써 국제법상의 청일전쟁은 종결되었다.

시모노세키(下關)에서 청국의 전권공사 李鴻章과 일본의 전권공사인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외무대신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사이에서 맺어진 강화조약의 중요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국은 조선의 완전 무결한 독립을 인정한다. 둘째, 청국은 요동반도와 臺灣·澎湖 諸島를 일본에 할양하는 것을 승인한다. 셋째, 청국은 배상금 2억 냥(일본 화폐 3억 엔)을 지불하는 것에 동의한다. 넷째, 종래부터 구미 각국이 갖고 있던 통상 특권을 일본에게도 부여한다.

이로써 일본은 조선 침략의 발판을 구축하였고, 요동반도를 획득하여 대륙 침략의 근거지를 확보하였으며, 대만을 점유하여 非白人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식민지를 영유하는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식으로 비준서가 교환되기도 전에 난관에 봉착하였다. 하나는 요동반도의 할양을 반대하는 러시아·프랑스·독일 삼국에 의한 간섭이고, 다른 하나는 대만의 할양을 반대하는 청국정부내의 조약파기론이다.¹⁾

1) 檜山幸夫, 《日清戦争—秘藏寫眞が明かす眞實》(東京: 講談社, 1997), 229쪽.

청일 양국간 강화조약의 내용은 구미 열강 특히 러시아가 좌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 조인 직후인 4월 23일 러시아의 주도아래 프랑스·독일 3국의 주일공사는 외무성을 방문하여 하야시 타다시(林董) 외무차관에게, “요동반도를 일본이 소유하는 것은 청의 수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조선국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²⁾ 요동반도를 환부할 것을 권고하는 각서를 교부했다. 이른바 삼국간섭이다.³⁾

일본정부 당국이 그 대응에 골몰하여 시간을 끄는 동안, 삼국 공사는 28일 이래 거듭 외무성을 방문하여 회답을 촉구하였다. 일본정부는 부득이 굴복하지 않을 수 없어 5월 5일 요동반도 환부의 회답서를 삼국의 공사에게 전달하여 삼국간섭은 종결되었다.⁴⁾ 이 때 여론은 ‘와신상담’을 주창하고 국민의 애국심과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을 비등시켜, 조선을 위시로 한 대륙침략을 위해서는 러시아와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對露 主戰論이 대세였다. 이후 일본은 대륙침략과 대러전쟁을 위한 군비확장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삼국간섭으로 주도권을 빼앗긴 일본은 조약파기론을 제기한 청국정부와의 외교 교섭에서도 삼국 정부의 집요한 간섭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만 할양을 거부하려고 하는 청국의 노력은 요동반도 문제에 심혈을 기울이는 열강의 이해 때문에 그 지지나 지원을 얻지 못하고 5월 8일 요동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본래의 조인대로 양국 정부간에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청일 강화조약은 성립하고 전쟁은 종결되었다.⁵⁾ 요동반도 환부문제는 11월 8일 환부조약과 의정서 체결로 결착되었다.⁶⁾

삼국간섭의 주도국인 러시아는 1891년 시베리아철도 건설에 착수하여 동

2) 日本外務省 編, 《日本外交文書》28-2(東京: 日本國際連合協會, 1936), 事項 12 〈三國干涉一件〉.

3) 삼국간섭에 대해서는, 李光麟, 《韓國史講座》V(近代篇)(一潮閣, 1981), 359~360쪽; 崔文衡, 〈閔妃弑害 以後의 列強과 韓國—引俄拒日과 그 後의 情況 變化를 중심으로〉(崔文衡 外, 《明成皇后 弑害事件》, 民音社, 1992); 金相洙 〈閔妃弑害의 國際的 背景—日本政府의 介入과 관련하여〉(같은 책) 참조.

4) 檜山幸夫, 앞의 책, 234쪽.

5) 檜山幸夫, 위의 책, 230~231쪽.

6) 檜山幸夫, 위의 책, 234쪽.

진 남하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청일전쟁에 대해서는 조선을 둘러싼 양국간의 패권다툼으로 받아들여 방관 혹은 소극적 정책을 취하였다.⁷⁾ 그런데 전쟁의 뒤처리가 조선에 국한되지 않고 요동반도 할양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자, 적극정책으로 전환하여 개입하였고 독일과 프랑스를 설득하여 삼국간섭을 단행하게 된다. 프랑스는 러·불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지지하고, 독일은 러시아의 관심을 유럽에서 극동지역으로 돌리기 위하여 이에 동참하였다.⁸⁾

삼국간섭으로 일본의 권위가 추락하자 조선의 조야도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1894년 7월 일본군의 조선 왕궁 점령이후 친일정권이 수립되고 나서 친청 반일적인 왕실 및 민씨 척족세력은 ‘궁중과 부종의 분리’라는 명분하에 취해진 내정개혁에 의하여 권력으로부터 축출당하고 있었다. 이 세력을 중심으로 러시아를 끌어 들어 일본세를 몰아내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민비가 러시아공사 웨베르(Karl I. Waeber, 韋貝)를 인견하여 국정을 상담하는가 하면, 朴定陽·安駟壽·徐光範·李完用·李範晉 등을 축으로 하는 반일 친러적인 貞洞派라는 정치집단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공사의 힘이 약화되면서 친일정권 내부에서도 알력과 갈등이 노정되었다. 급진개화파인 내부대신 朴泳孝가 그 틈새를 이용하여 ‘자주 독립’의 노선을 천명하면서 이노우에공사와 대립하고 온건개화파인 총리대신 金弘集과 내홍하는가 하면, 보수적인 궁중세력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⁹⁾

5월말 친일파인 趙義淵 군부대신의 해임문제로 김홍집과 박영효가 심각하게 대립하더니 결국은 김홍집 총리대신이 사퇴하고 박영효가 임시 총리대신을 맡다가 6월 2일 정동파인 박정양이 총리대신에 취임하였다. 이것은 박영효의 주도 혹은 묵인하에 친일파가 권력으로부터 밀려나고 새롭게 친러파가

7) Vladimir S. Miasnikov, 〈第3次極東戰爭(1894~1895)とロシアの極東地域における政策の展開〉(東アジア近代史學會 編, 《日清戰爭と東アジア世界の變容》上, 東京: ゆまに書房, 1997).

8) 宮地正人, 《國際政治下の近代日本》(東京: 山川出版社, 1987), 85~86쪽.

9) 柳永益, 〈甲午更張을 圍繞한 日本의 對韓 政策—甲午更張 他律論에 對한 修正的 批判—〉(《歷史學報》 65, 1975).

정권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⁰⁾ 박영효는 점차 일본으로부터도, 왕실세력으로부터도 견제 · 배척당하게 된다.

박영효는 6월 25일, 미국인을 교관으로 하는 시위대가 맡고 있던 궁성 호위를 자기들의 영향하에 있는 훈련대로 교체하려고 상소하였다. 그러나 국왕의 거절로 좌절되었다. 이를 빌미로 김홍집 · 김윤식 · 어윤중 등의 反박영효 세력이 7월 7일 ‘반역음모사건’을 조작하여 박영효 일파를 축출하였고, 그는 다시 일본으로 망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¹¹⁾

이후 친러파의 정권 장악은 확연히 나타났다. 8월 10일 인사개편에서는 군부 대신에 안경수가, 경무사에 李允用이, 내각 총서기에 李聖烈이 취임하고, 8월 24일 단행된 제3차 김홍집내각에서는 김홍집은 원로로서 명색만 유지하고 있을 뿐 실체는 친러파와 민씨세력 일색으로 이루어졌다. 그 면면은 다음과 같다.¹²⁾

총리대신	김홍집	외무대신	金允植	군부대신	안경수
내무대신	박정양	농상공부대신	金嘉鎮	법부대신	서광범
탁지부대신	沈相薰	학부대신	이완용	중추원의장	魚允中
중추원부의장	申箕善	궁내부대신서리	이범진		

일본세력 쇠퇴의 직접적 계기는 삼국간섭이었으나, 또 다른 문제가 걸려 있었는데 다름아니라 일본이 약속한 차관 제공의 문제이다. 전쟁 도발 후 조선의 정치적 보호국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온 이노우에공사는 조선 재정의 파탄을 빌미로 차관을 대여하여 경제적 보호국화를 획책하려 하였다. 이노우에는 우선 그 조치로 500만 엔의 차관을 약속하여 1895년 2월말부터 3월에 걸쳐 본국 정부와 협의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본국의 총리대신인 이토, 외무대신인 무츠와의 협의 결과 300만 엔으로 줄어들었고, 그것조차도 민간 차원의 차관이 아니라 임시 군사비에서 충당되는 것이고 조건도 조선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가혹한 것이었다.¹³⁾ 우여곡절 끝에 4

10) 柳永益, 위의 글.

11) 李光麟, 앞의 책, 365~367쪽.

12) 李光麟, 위의 책, 365쪽.

13) 鄭在貞, 〈井上馨－明治政府에서의 役割과 朝鮮侵略의 實踐－〉(《國史館論叢》 1, 國史編纂委員會, 1989).

월 10일까지 300만 엔이 대여되었으나, 조선 왕실과 정부내의 불만은 매우 컸고 이러한 분위기는 일본세력의 쇠퇴와 러시아세력의 부상을 부추기기에 충분하였다.

청일전쟁 이후 줄곧 제기되어 온 내정개혁과 차관대여라는 명목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조선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였던 이토와 이노우에로 대표되는 ‘文治派’에 의한 조선 침략의 책략은¹⁴⁾ 삼국간섭으로 좌초에 부딪혔다. 일본으로서는, 계속 그 정책을 추진할 때는 러시아의 간섭을 야기하게 될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어찌지도 못하는 난국이었다. 이노우에의 표현대로 그대로 방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삼국간섭을 계기로 해서, 이후 조선에서 公(이노우에)은 비상한 난국에 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일 적극적으로 나가면 露國으로 하여금 간섭의 구실을 주고, 물러서서 소극적으로 나가면 지금까지 고심하여 건설하여 온 개혁 사업은 갑자기 내부적으로 붕괴하여 위기를 낳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아갈까 그 만들까 모두 公의 행동은 제약받았던 것이다. 무릇 우리 정부(일본)의 對韓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방관적 태도로 나아가, 타국에서 조선의 일에 끼여들 기회를 만들지 않도록 오로지 주의하는 길밖에 없다(井上侯傳記編纂會 編, 《世外井上公傳》 4, 東京: 内外書籍, 1934, 475~476쪽).

이노우에공사는 이러한 사태의 진전에 대해 러시아의 개입이 두려워 어떠한 대응책도 강구하지 못한 채, 5월 22일 본국의 무츠외상에게 打電하여, 당국에서 시급히 ‘장래의 對韓方策’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¹⁵⁾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6월 4일 내각회의를 열어 ‘장래의 대한방침은 가능한 한 간섭을 그만두는’ 불간섭 정책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조선 내정의 문제는 물론 철도부설·전신가설의 건에 대하여서도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도록 하는 응급

14) 姜昌一, <근대일본의 사상흐름과 조선침략론>(《오늘에 본 친일문제와 일본의 조선침략론》, 역사학연구소, 1993).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일본의 조선 침략을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츠라 타로(桂太郎) 등 육군 군벌세력의 武人에 의한 무단파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 등 문민정치가에 의한 문치파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15) 井上侯傳記編纂會 編, 《世外井上公傳》 4(東京: 内外書籍, 1934), 479~480쪽. 春畝公追頌會 編, 《伊藤博文傳》 下(東京: 統正社, 1940), 247쪽.

조치를 이노우에공사에 하달했다.¹⁶⁾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의 응급 처방일 뿐, 이것으로써 조선문제에서 손을 떼는 것은 아니었다. 이노우에는 장래의 대한방책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6월 7일 서울을 출발하여 20일 요코하마(橫濱)에 도착했다. 그는 도착 즉시 천황을 비롯한 정계 지도자에게 현지의 사정을 보고하는 한편, 7월 2일의 각의에서 자기 나름의 대한방책을 제시했다.¹⁷⁾ 요컨대 그것은 차관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왕실을 매수하여, 민비를 위시한 왕실의 러시아 접근을 차단한다는 것이었다. 이 방안은 문치적인 방식, 즉 회유와 공작으로 왕실과 내각을 친일화하여 조선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이노우에의 입장에서는 최선·최후의 책략이었다. 이 책략의 채택 여부는 그의 진퇴와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상의 제 조건(장래의 對韓方策)을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한 후, 本官(이노우에)의 귀임을 요한다면 언제라도 귀임할 것이고, 또한 신임공사 파견의 경우라도 본관의 희망은, 공사 그 사람은 細軍(민비)의 交際 등에 능란한 인물을 특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임자를 내정한 후에는 발표 전에 본관이 일단 귀임해서 종전의 사정과 장래의 조치 등에 대해 대군주(고종) 및 왕비(민비)에게 잘 奏聞하고, 또한 각 대신과 신임공사와의 사이에 대해서도 유감없도록 하고 싶기 때문에 이 뜻도 一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井上侯傳記編纂會 編, 《世外井上公傳》4, 491쪽).

위의 진언은 자기의 제안이 받아들여졌을 때는 다시 귀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사임하겠다는¹⁸⁾ 것으로, 7월 2일 단계에서는 사임할 확고한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 그런데 그가 일본 체류시에 경질이 결정되어 후임에는 미우라 코로(三浦梧樓)가 내정되었다.¹⁹⁾

16) 春畝公追頌會 編, 위의 책, 248쪽.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198 對韓政策ニ關スル閣議案.

17) 井上侯傳記編纂會 編, 앞의 책, 483~491쪽.

杉村濤, 《在韓苦心錄》(日本外務省, 1932), 155~159쪽.

18) <岡本柳之助訊問調書>(伊藤博文公 編, 《朝鮮交渉資料》中, 東京: 秘書類纂刊行會, 1936)에 의하면, 이노우에는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 오카모도에게도 사임의 가능성을 비추고 있다.

삼국간섭 이후 조선에서 일본의 위세는 점차 통하지 않게 되고, 친일파 세력은 정권으로부터 밀려나기 시작했다. 7월초 이노우에공사의 일본체류 중에 일본의 비호 아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박영효 내무대신이 실각하여 일본에 재망명하는 사건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였다.

내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일본의 강압으로 이루어진 ‘궁중과 부종의 분리책’은 주지하다시피 왕권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조선을 지배한다고 하는 이노우에의 책략이었다. 그런데 삼국간섭이라는 국제적 압력속에서 일본의 무력을 배경으로 한 강압정책이 통하지 않게 되면서 민비를 중심으로 하는 왕권파는 서서히 권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일본으로부터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

이노우에는 7월 21일 급거 귀임하고부터는, 종래의 태도를 돌변하여 국왕 및 왕비의 환심을 사기에 급급하였다. 종래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보호국화하려고 하는 ‘法典政略’을 포기하고 왕실을 회유하고 매수하려는 ‘宮中政略’으로 대전환한 것이다.²⁰⁾ 지금까지 적대적 입장을 취해 왔던 왕실에 대해서도 ‘조선의 독립과 왕실의 보호’를 奏上할 정도였다.²¹⁾ 뿐만 아니라 이전 차입금 300만 엔의 返濟기한을 5년에서 15년 내지 20년으로 연기시키고, 본국으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차관 300만 엔을 제공한다고 미리 미끼를 던져 왕실을 매수하려고 획책하였다.²²⁾ 그리고 종래 스스로의 ‘내정개혁안’을 반복하여 버리는 17개조의 의견을 제출하여, 왕비를 비롯하여 민씨 척족세력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²³⁾

8월 24일 제3차 김홍집내각이 구성됨에 이르러서는 친일·친러의 연립내각을 모색하여 국왕·왕비를 위시하여 조선정부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고 진력하기도 하였다.²⁴⁾ 이미 ‘引俄拒日(러시아를 끌어당겨 일본을 몰아냄)’

19) 미우라의 공사임명 과정에 대해서는 姜昌一, 〈三浦梧樓公使와 閔妃弑害事件〉

(崔文衡 외, 《明成皇后 弑害事件》, 民音社, 1992) 참조.

20) 安達謙藏, 《安達謙藏自叙傳》(東京: 新修社, 1960), 53~54쪽.

21) 井上侯傳記編纂會 編, 앞의 책, 495~520쪽.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248 謁見願未立ニ寄贈金ニ關シ内申ノ件.

22) 井上侯傳記編纂會 編, 위의 책, 500~502쪽 및 517쪽.

23) 井上侯傳記編纂會 編, 위의 책, 503~511쪽.

24) 井上侯傳記編纂會 編, 위의 책, 512쪽.

의 방침은 확고한 것이었고 일본세의 쇠퇴·러시아의 부상은 불가항력적인 대세였다.

삼국간섭 이후 이노우에의 대조선정책에 대해서는 당국뿐만 아니라 당시의 여론도 비판적이었다. 외상 무츠는 “이노우에는 닭을 잡는 데에 소잡는 칼을 사용하는 격이어서 점점 평판이 좋지 않아 君(무츠)은 부득불 이토에게 도모하여 그를 불러들였기 때문에 이노우에는 매우 불평하고 있었다”²⁵⁾고 평하고 있다. 다음의 구절로도 당시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살필 수 있다.

경성에 재류하고 있던 우리 민간 지사(일본인 낭인)가 이 모양(일본의 후퇴와 러시아의 진출)을 보고 切齒扼腕한 것은 무리도 아니다. 일본의 内地에 있어서도, 有志 사이에서는 조선의 정세를 걱정하고, 정부로 하여금 이노우에공사를 귀환시켜, 더욱 剛毅果敢한 인물을 공사로써 파견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뒤에서 정부쪽에 향해 현책하는 자도 있었다. 정부에서는 결국 그 필요를 인정해서 이노우에 대신에 육군중장 미우라를 임명하기로 결정했다(葛生能久, 《東亞先覺志士記傳》上, 516~517쪽).

이노우에의 후임자로 내정된 자는 예상외로 외교에는 전혀 경험이 없고 조선의 사정에 대해서도 문외한이었던 미우라였다. 그것도 노련한 정략가인 이노우에의 추천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주무 대신인 무츠외상은 반대하였다.

이노우에의 후임에 대해서는 여러 議論이 있어서, 혹은 다나카 후지마루(田中不二磨)를 시키려는 자도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드디어 이노우에의 추천에 의해 무단직 禪將인 미우라를 그 후임으로서 부임시키기로 했다. 君(무츠)은 오오이소(大磯)에서 그의 不可함을 주장했지만 長岡君(長州 出身)의 정치세력 즉, 이토·야마가타·이노우에 등의 세력에 눌리어 그 뜻을 관철시킬 수가 없었다. 이는 君이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과연 그 해 10월 8일 흥변을 격발하기에 이르러 불행히도 君은 시비없이 선견지명을 얻었다(阪崎斌, 《陸奥宗光》, 東京: 博文館, 1898, 287쪽).

25)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281 對韓政策ナルモノニ對スル意見伊藤總理へ陳述方ノ件.

阪崎斌, 《陸奥宗光》(東京: 博文館, 1898), 287쪽.

당시 일본의 정치권력은 이토·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이노우에를 거두로 하는 長州閥에 장악되어 있었다. 미우라는 장주벌이면서도 이들과는 사이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藩閥 전제정치라고 비판하는 반정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노우에의 대조선정책에 대해서도 후임자로 내정되기 이전부터 비판하고 있었다.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야마가타·이노우에 등에 의해 그가 후임자로 결정된 것이다. 여기에는 급격한 상황변화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노우에는 7월 2일 단계에서도 진퇴를 확실히 결정하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그는, 만일 후임자를 정하게 될 때는 ‘細君(민비)과의 交際’에 능란한 사람을 임명할 것을 진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며칠 안 되어 그 후임자로 그러한 요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미우라를 추천한 것이다. 다름아니라 7월 7일 박영효가 실각하여 일본에 망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일본에게는 최악의 사태였고 종래의 문치적 방법으로서 ‘조선문제’의 해결은 전혀 무망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준 셈이 되었다. 그래서 이노우에·이토 등 문치파들은, 그들과는 전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우익적이고 무단적인 미우라를 내세워 조선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노우에는 후임자로 미우라를 추천하고 나서 조선에 귀임하였다.

이노우에로부터 조선공사의 제의를 받은 미우라는 스스로 외교에 대해 문외한이고 서툴기 때문에 재삼 거절했으나, 끈질긴 부탁에 일단 응낙했다고 한다.²⁷⁾ 7월 10일경이다. 미우라는 승낙하는 대신 정부당국에 세 가지 대조선책을 제안하면서, 그 중에서 명확한 방침을 선택하도록 촉구했다.²⁸⁾

26) 安達謙藏, 〈閔妃事件と當時の政局〉(《義人李周會氏法要及事蹟》, 黑龍會, 1928).

27) 小谷保太郎 編修, 《觀樹將軍回顧錄》(東京: 政教社, 1925), 319쪽.

28)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350 對韓政策ニ關スル三浦新公使 意見書: 對韓政策ノ訓令ヲ待ツ. 날짜가 8월 17일자로 되어 있으나, 註에서 ‘三浦梧樓 조선공사 발령의 日附로 한다’라고 附記하고 있고, 그 외 다른 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제의를 받았던 7월 10일경 직후에 제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阪崎斌, 앞의 책, 286쪽; 小谷保太郎 編修, 위의 책, 319쪽; 井上侯傳記編纂會 編, 앞의 책, 475쪽 참조).

…미리 3조를 진열해서 장래의 훈령을 청하는 바이다. 원하건대 다시 심의하여 不拔의 대한방침을 국시로 정할 것을. 제1조, 지난해 征淸의 주위에 則하여 조선을 동맹의 독립 왕국으로 인정하고 장래 우리(일본)의 혼자 힘으로 전국(조선)의 방어 및 개혁을 담당하는 책임의 방침을 취할 것인가. 제2조, 우리의 혼자 힘으로 조선 독립 개량의 책무를 피하고 또한 보호 및 점령의 응심을 억제하여 구미 열국 중 공평한 나라와 함께 도모하여 공동 보호의 독립국으로 하는 방침을 취할 것인가. 제3조, 조만간 반드시 한 둘의 강국과 紛擾가 생기는 것은 가장 예측하기 쉬운 추세이기 때문에 大難事가 일어나지 않은 금일 오히려 무단 결의하여 한 열강(러시아)과 고려 반도를 분할 점령하는 방침을 취할 것인가. 위 3조 중 제1조는 가장 공명 정대한 방책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일로서 장래 내외로부터 困難 蟄集하고 많은 인력과 금력을 소비하고 恩威 또한 행하기에는 오랜 시간을 요하고, 특히 한 두 강국과 조만간 전쟁을 치를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그렇지만 우리가 堪忍 시종 일관하여 전력을 다해서 수년이 지나면 조선은 우리의 보호하에 속하는 결과가 되니, 또한 천하에 대해 좋은 일이 될 것이 아닌가). …梧樓(미우라 본인) 이미 난국을 돌아보지 않고 목숨을 그 땅(조선)에 바치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정해져도 이에 구애받지 않는다. 단, 앞의 3조의 결정 여하에 따라 은혜적·협박적 혹은 묵종적 정책의 필요가 생기고 寬猛 緩急 모두 이에 준거하여 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350 對韓政策ニ關スル三浦新公使 意見書：對韓政策ノ訓令ヲ待ツ).

미우라가 제시한 3안은 요컨대 ①일본의 獨力支配, ②공동보호국화, ③러·일의 분할 점령안으로서, 그 스스로는 이 3안 중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라도 제1안을 채택할 것을 은근히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그는 난국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력투구할 ‘비장한 결의’까지 표명하고 있기도 하다.

미우라의 대한방침의 결의에 대해 정부당국에서 아무런 회신조차 없자, 그는 7월 17일, 공사 교섭을 맡았던 노무라 야스시(野村靖) 내무대신을 찾아가서 취임 승낙을 번복하여 버렸다.²⁹⁾ 이때 미우라를 추천한 이노우에는 7월 14일 일본을 출발하여 19일 인천에 도착하였고, 이 문제는 결국 18일 야마가타와 다나카 미츠아키(田中光顯)의 간곡한 설득으로 미우라가 다시 받아들여 수습

29) <7월 18일자, 野村靖(內務大臣)가 井上 全權公使에게 보낸 書翰>(東京：國際韓國研究院 소장).

되었다.³⁰⁾ 번복과 재수락의 상황 전개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미우라 자신의 표현대로 깊이 숙고한 끝에 번복하였는데, 그 이유는 “정부가 그 방침(대조선방침)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나침반 없이 항해를 강행할 수 없기”³¹⁾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이를 통고받은 노무라 내무대신은 미우라가 처음에 승낙한 후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韓地(조선)의 사정을 듣고 그 곤란한 것에 당혹했기”³²⁾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는 곧 번복한 것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숙고한 끝에 이루어진 치밀한 계산하의 행동이었음을 말해 준다.

재수락의 설득은 이토와 쌍벽을 이루면서 군벌 정치세력을 이끌던 무단파의 수령 야마가타가 담당하였다. 이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타협이 이루어졌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최소한 조선의 일에 대하여 공사가 전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확실하다.

미우라가 제출한 3대 정책은 일이 중대하여 숙고를 요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渡韓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거기에서 미우라는 정부의 방침이 없는 채로 도한하는 이상은 임기응변적으로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고 결심한 것이다(〈7월 19일자, 野村靖(內務大臣)가 井上 全權公使에게 보낸 書翰〉, 東京：國際韓國研究院 소장).

그 어느 누구보다도 미우라의 성격과 일 처리 방식을 잘 알고 있는 야마가타가 미우라에게 자유 의사에 따라 일을 처리하여도 좋다고 한 것은 그에게 전권을 부여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결정’ 운운한 구절이다. 즉 이 시점에서는 아직 대조선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빠른 시일내에 결정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그 후 과연 일본정부는 3안 중 어떠한 방침을 결정하였을까.

이에 대해 몇 가지 추정하여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민비를 시해한 직

30) 〈7월 19일자, 野村靖(內務大臣)이 井上 全權公使에게 보낸 書翰〉(東京：國際韓國研究院 소장).

31) 小谷保太郎 編修, 앞의 책, 320쪽,

32) 〈7월 19일자, 野村靖(內務大臣)이 井上 全權公使에게 보낸 書翰〉(東京：國際韓國研究院 소장).

후인 10월 14일, 미우라가 이토 총리대신에게 보낸 보고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 우리 세력을 유지하고 당초의 목적(獨力支配)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불 이것(왕비 시해)에 나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 이번의 일은 그 방법이 좀 졸렬하여 檻褭를 숨길 수 없었다는 비방을 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잘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득과 과실을 끝까지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 외교상의 입장에서 본관을 위시하여 관원(공사관 직원)을 교체시키는 일이 있어도 이와 동시에 현 정부(조선정부)에 대한 방침까지도 바꾸는 것은 매우 不得策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이 주의하여 주실 것을 깊게 희망하는 바입니다(《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378 事變起因ノ竝其ノ對策ニツキ稟申ノ件).

또한 범죄자들이 히로시마 형무소에 투옥되고 나서 검사의 취조에 대해 사실 진술을 거부하면서, “이(시해사건)에 대해 내각원에게 논술한다면 사실을 말하겠지만, 법정에서는 진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³³⁾ 뿐만 아니라,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고 나서 동경에 상경했을 때, 이토가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시골에 빨리 내려가도록 재촉한 데 대해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도 하다.³⁴⁾ 이러한 정황을 놓고 판단하여 볼 때 이토·야마가타 등 일본정부의 수뇌들은 미우라가 부임하고 나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최소한 미우라가 제시한 3안 중 제1안인 ‘독력지배책’으로 그 목적을 결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 ‘민비제거’의 계획도 사전에 예측하고 있었고 이를 방조·묵인하고 있었음을 시사하여 준다.

7월 22일 전권공사로 내정된 미우라는 8월 17일 임명을 받고 임지인 조선으로 출발할 때까지 아타미(熱海)의 별장에 머물면서, 많은 조선문제 전문가와 회합하면서 나름대로 치밀히 준비하였다. 여기에는 열렬한 대륙침략론자로서 玄洋社·熊本國權黨 같이 근대 일본의 전형적인 우익이 있었는가 하면,

33) 《舊陸海軍文書》(日本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所藏, 마이크로필름), 第5回 報告(10月 27日附) 憲兵司令官 春田景義ヨリ兒玉陸軍次官へ.

34) 小谷保太郎 編修, 앞의 책, 347쪽.

타니 칸조우(谷干城)·시바 시로(柴四朗) 같은 대외강경파의 정치가도 있었다.

미우라는 당시 유명한 정치소설가이자 중의원도 지냈으며 우익 낭인들과 친교가 깊었던 시바를 참모로서 활동시켰다. 시바는 天佑俵의 다케다 노리유키(武田範之)와 玄洋社の 츠키나리 히카루(月成光, 후에 梶川光으로 개명)와 상의하였다. 시바는 이전부터 이들과 친교가 매우 깊었는데, 다케다는 전형적인 조선 낭인으로서, 1893년 전라남도의 금오도에서 李周會와 교류를 맺고 있었고³⁵⁾, 갑오농민전쟁이 발발하였을 때는 민씨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천우협을 결성하여 농민군과 접촉을 획책하였던 자였다. 츠키나리는 전형적인 대륙 침략단체인 현양사의 핵심멤버로서 오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외상에의 폭탄 투척사건에 가담하여 구속된 적이 있는 테러리스트였다.³⁶⁾

미우라는 이들 3인을 막료로서 동행하여 9월 1일 조선에 부임하였다.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을 참모로 동행시켰다는 점에서, 장차 전개될 일본의 대조선정책을 예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조선의 독립지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친러파의 정점인 ‘민비 제거’의 방법을 포함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2) 민비시해³⁷⁾

미우라는 임지인 조선에 9월 1일 도착하였는데, 이때 이미 왕권의 강화와 친러파의 정권 장악, 친일파의 몰락은 대세가 되어 있었다. 더욱이 차관을 통한 왕실 매수라고 하는 이노우에 최후의 책략조차도 일본정부에서 확실한 회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사기극에 지나지 않게 되어 버렸다.³⁸⁾

이노우에공사는 8월 6일 본국 정부에 그 동안 왕실과의 접촉 과정을 보고하면서, 제삼 ‘寄贈金の 件’을 임시국회에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대해 본국에서는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확답

35) 武田範之, 〈記 李豊榮事〉(《洪疇遺績》1, 東京大學 圖書館 所藏).

36) 葛生能久, 《東亞先覺志士記傳》下(黑龍會, 1933~1936), 249쪽.

37) 민비시해의 구체적 과정에 대해서는 姜昌一, 앞의 글(1992), 참조.

38) 葛生能久, 앞의 책(上), 517~518쪽.

하기 어렵고, 이는 총리대신 이토와 협의한” 것이라고 답신하였다.³⁹⁾ 이노우에는 9월 4일 본국 정부에 대하여, 이미 국왕 및 정부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사되지 않으면, “후임자 미우라는 설자리조차 없어질 뿐만 아니라, 더욱 국왕 및 정부에 대해 위신도 완전히 없어지고 또한 조선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숙의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⁴⁰⁾ 그러나 미우라는 부임하기 이전부터 이미 ‘기증금의 건’은 성사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부임하고서 이를 이노우에에게도 알려 주었다.⁴¹⁾

미우라가 부임한 이후 친러파의 득세와 친일파의 몰락은 더욱 촉진되었다. 미우라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의 전개였다. 그는 두문불출하여 ‘염불공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불경을 외우면서 세상일을 잊은 것처럼 위장하였다.⁴²⁾ 정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 특유의 과감한 수단을 강구하여 국면을 역전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⁴³⁾

당시 서울에는 우익 낭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그와 동행한 시바·츠키나리·다케다 외에, 한성신보사를 경영하고 있던 熊本國權黨의 아다치 겐조(安達謙藏)·구니토모 시게아키(國友重章), 玄洋社の 후지카츠 아키라(藤勝顯)·사세 쿠마테츠(佐瀬熊鐵), 天佑俠의 오오자키 마사요시(大崎正吉), 조선의 宮内府 고문관 직함을 갖고 있던 오카모도 류노스케(岡本柳之助) 등이다. 열렬한 대륙 침략주의자인 낭인들은 국면 타개의 방책은 민비 제거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자들이었다.⁴⁴⁾

露國의 세력이 도도히 조선 반도에 침입하는 근원은, 실로 이 궁정의 한 여성, 민비 그 사람의 一頻一笑의 사이에 생겼다. 무서운 東亞의 禍源이 그곳에

39)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250 井上公使ニ至急歸朝方通達ノ件.

40)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251·252 寄贈金ニ關シ請訓ノ件 및 문서번호 254 寄贈金ニ關シ熟議要請ノ件.

41) 杉村濤, 앞의 책, 160쪽. 이노우에는 이미 寄贈금이 가망 없음을 알면서도, “조선정부는 일본의 충고에 따라 개혁 성공의 전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증한다”라고 조건을 붙여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

42) 葛生能久, 앞의 책(上), 517쪽.

43) 葛生能久, 위의 책(上), 518~519쪽.

44) 〈岡本柳之助訊問調書〉(伊藤博文公 編, 앞의 책).

배양되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녀는 일본의 세력을 제거하려고 하는 一心에 치달아 장래의 화에는 마음 쓰지 않는 것이었다. 동아를 구하고 조선을 구할 수 있는 眼前的 유일한 가까운 방법은 민비를 죽이는 데 있다. 민비를 죽여라! 민비를 죽여라! 이러한 것이 당시 경성에 在留하고 있는 志士의 절규였다(葛生能久, 《東亞先覺志士記傳》上, 522쪽).

이들 우익 낭인들은 대외 강경운동이래 미우라와 직접 친교를 맺고 있거나, 아니면 막료로서 동행한 시바·다케다·츠키나리와 깊게 연결되는 자들이었다. 미우라는 우익 낭인들과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대외론을 포함한 사상과 행동양식에 있어서도 궤를 같이하고 있는 자였다. 단지 그는 육군중장의 고급 군인출신이었기 때문에, 권력의 일각에 자리잡아 정계의 흑막으로서 또는 우익의 거두로서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정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미우라공사가 당시 독력지배라는 대조선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취할 수 있는 방도란 그 개인의 성향과 행동양식에 규정되기도 하지만, 당시의 정황속에서 극히 제한된 것이었다. 하나는 러시아와의 전쟁 혹은 협상을 통하여 그 세력을 조선에서 몰아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와의 연결고리인 조선내의 친러세력을 제거하는 방법이었다.

러시아와의 직접 대결 내지 협상의 방안은 공사의 권한 밖의 사항이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군무에 종사하여 양국의 군사력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미우라에게 전쟁 등의 직접 대결의 방식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다. 당시 공사의 직분으로서 할 수 있는 길이란 오로지 후자의 친러세력 제거였을 뿐이었다.

“민비를 죽여라”고 외치고 있던 낭인들뿐 아니라 미우라 자신도 조선의 실권은 민비가 장악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민비를 통해 세력을 부식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⁴⁵⁾ 민비를 제거하여 친러세력을 제거한다는 방침은 미우라가 공사로 임명되는 순간부터 확고하였다. 곧 미우라의 과감한 수단이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민비 제거 즉 시해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미우라는 이노우에 前공사(당시 조선 체제 중)와 상의하면서 매우 신중하고

45) 葛生能久, 앞의 책(上), 519쪽.

小谷保太郎 編修, 앞의 책, 524쪽.

치밀하게 이 계획을 추진하여 나갔다. 공사관에 틀어박혀 있으면서 낭인 및 공사관 직원들을 통해 대원군·李周會 등 반민비세력의 동향은 물론 일본인의 성향까지도 상세히 파악하여 갔다.

9월 20일경에 민비시해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졌다. 9월 21일경 아다치가 미우라의 對韓決意를 묻기 위해 방문했을 때, 극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아무리 해도 한 번은 여우사냥(민비 살해)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의 밑에 젊은 놈이 몇 명 정도 있는가”라고 묻고 낭인 동원을 명령하였다.⁴⁶⁾ 아다치는 한성신보사의 낭인 동원에 국한된 행동책에 불과했음에도, 그 임무가 이때 이미 하달될 정도였다. 사실상 9월 초순부터 미우라와 함께 내한한 시바와 다케다가 조선측 가담자인 이주회와 빈번히 회동한 것,⁴⁷⁾ 하순이래 호리구치 구마이치(堀口九萬一, 領事館補)와 오카모도가 대원군을 여러 차례 찾아 간 것 등도 모두 짜여진 각본에 의한 작업이었음에 지나지 않는다.

오카모도는 이노우에가 퇴임하여 귀국할 때 본국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같이 귀국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노우에와 미우라가 간곡히 만류하여 체류하게 되었다.⁴⁸⁾ 오카모도란 자는 대원군과 가장 가까운 일본인이기 때문에 차후에 대원군을 이용할 때 그 역할을 담당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노우에 前공사가 9월 21일 조선을 떠나자마자 미우라는 본격적으로 민비시해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시해 계획의 개요는 반민비세력의 거두인 대원군과 해산 위기에 직면한 훈련대를 이용하여 이들에 의한 쿠데타로 위장하고, 그리고 이들이 입성할 때 일본인 낭인들을 동원하여 민비를 시해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인 낭인을 참가시키는 것은, 아무리 반민비세력이라 할지라도 민비를 살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조선인에 대한 의구심⁴⁹⁾과

46) 安達謙藏, 앞의 책, 55~59쪽.

47) 大崎正吉, 〈李周會氏に就て〉(《義人李周會氏法要及事蹟》, 黒龍會, 1928).

48) 〈岡本柳之助訊問調書〉(伊藤博文公 編, 앞의 책).

49)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424 十月 八日 王城事變ノ詳細報告ノ件. 이를 작성한 우치다 사다즈치(内田定槌) 일등영사는, 사건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인물로서, 이 보고서는 사건의 전모를 밝힘에 있어서, 가장 객관성을 띠고 있고,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다. 미우라는 우치다에게 사건 당일 본래는 조선인만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만일의 경우 발각되었을 때 일본정부의 책임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0월 10일을 거사일로 잡았다.⁵⁰⁾

미우라는 사건의 성패를 쥐고 있는 것은 대원군 문제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9월 하순이래 연일 使者를 대원군 거소에 보내어 동정을 정탐하고 의중을 타진하였다. 9월 하순 호리구치를 파견하는가 하면, 9월 30일에는 낭인 스즈키 준켄(鈴木順見)을, 10월 1일에는 와타나베 다카지로(渡邊鷹次郎, 領事館 巡查)를, 10월 2일에는 재차 호리구치를, 그리고 10월 3일과 5일에는 오카모도를 보내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⁵¹⁾

당시 대원군은, 이노우에공사의 재임 중에는 궁중·부중 분리정책에 의해서 권력으로부터 소외당하여 있었고, 민비가 재등장하기 시작하고서는 민씨세력에 의해 거의 윤패와 다름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때문에 신임공사 미우라의 ‘호의’⁵²⁾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단, 대원군이 사전에 살해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흔적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10월 10일을 결행일로 잡고 10월 2일을 전후하여서는 각 책임자에게 행동 지침이 시달되고 역할이 분담되었다. 즉 시바·이다치는 낭인 동원을, 오카모도는 대원군을,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潛, 공사관 일등서기관)는 일본인 및 조선인과의 연락관계를, 구스노세 유키히코(楠瀬幸彦, 公使館附武官 겸 軍部顧問, 中佐)와 마야하라 츠토모토(馬屋原務本, 守備隊隊長, 少佐)는 일본군 수비대 및 일본의 영향 아래 있었던 조선의 훈련대 동원을 책임 맡았다. 그리고 이들은 계획·입안의 과정에서부터 참여하고 자문하였으며, 살해할 것을 공동 모의

을 것 같아서, 일본인을 투입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50) 위의 글. 이외에도 杉村潛, 앞의 책, 176쪽 등 여러 자료에서 산견된다.

51) 菊池謙讓, 《朝鮮近代史》下(鷄鳴社, 1939), 398~401쪽.

52) 미우라는 대원군을 이용하기 위하여 10월 5일 오카모도로 하여금, 그를 복권시키는 것을 전제로 4개조의 밀약을 맺게 하고 있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대원군은 왕을 輔翼하여 궁중을 감독하고, 정무에는 관여하지 말 것 ② 金弘集·魚允中·金允植의 3인을 政府 要路에 앉히고, 정국의 개혁을 단행할 것 ③ 李載崐을 宮内大臣으로 할 것 ④ 李竣容은 3년간 일본에 유학시켜 才器를 양성할 것(《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424 十月 八日 王城事變ノ詳細報告ノ件).

菊池謙讓, 위의 책, 400쪽.

葛生能久, 앞의 책(上), 523~524쪽.

한 자들이기도 하였다.

대원군을 이용하는 작업까지 끝내고서, 계획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0월 6일과 7일에 걸쳐 오카모도와 구스노세를 일본에 귀국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인천으로 보내어 대기시켰다.⁵³⁾ 이들은 사건의 핵심인물이었고 또한 뚜렷한 관직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후 사실 은폐를 위해서도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태는 절박하게 전개되었다. 본래 계획은 이전부터 예상하고 있었고 풍문으로 나돌고 있던 훈련대 해산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대원군과 훈련대의 쿠데타로 위장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6일 저녁 훈련대가 경무청을 먼저 습격하여 충돌시키는 사건을 저질렀다.⁵⁴⁾ 물론 일본군 수비대는 마야하라의 지시에 의해 비상대기하고 있었다.⁵⁵⁾

그런데 조선정부는 한시도 치체하지 않고 7일 새벽 2시 훈련대 해산의 하교를 내리고, 7일 오전 9시 군부대신 안경수가 공사관에 와서 미우라에게 정식 통고하였다.⁵⁶⁾ 조선인으로서 이 사건에 깊숙이 간여하면서 훈련대 동원책임은 맡은 禹範善(훈련대 제2대대장)도 마야하라소좌와 함께 안경수에 이어 보고하였다.

한편 스기무라는 10일의 거사를 위한 대비책으로 6일 김홍집 총리대신에게 쿠데타가 있을 것을 미리 알리면서 협조를 당부하였고, 7일 아침에는 김윤식을 만나러 갔다가 훈련대 해산의 內命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훈련대의 동원은 거사의 대전제였다. 그런데 이미 해산되어 시일이 경과되고 나서는 동원 자체도 용이하지 않고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급히 본래의 거사일을 2일 앞당겨 8일 새벽 결행하게 되었다.⁵⁷⁾

미우라는 훈련대 해산을 보고하러 온 마야하라와 우범선에게 그 자리에서

53) 《舊陸海軍文書》, 第4回 報告(10月 26日附).

54) 杉村濤, 앞의 책, 176~179쪽.

《舊陸海軍文書》, 訓練隊起閉安軍務大臣報告에 저번의 사정과 상황이 잘 설명되어 있다.

55) 《舊陸海軍文書》, 第9回 報告(11月 3日附).

56) 《舊陸海軍文書》, 訓練隊起閉安軍務大臣報告.

57) 杉村濤, 앞의 책, 176~179쪽 참조.

즉각 수비대와 훈련대를 동원할 것을 지시하고, 인천에 대기하고 있던 오카모도와 구스노세에게 즉시 귀경하도록 전문을 보냈다. 호리구치 영사관보를 호출하여, 대원군 입궐에 관한 〈方略書〉를 주면서 오카모도와 용산에서 합류하여 대원군을 끌어내고 낭인배를 지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순사인 오기하라 히데지로(萩原秀次郎, 公使館 警部)에게는 사복으로 변장시켜 낭인들과 합류하여 대원군과 함께 입성하도록 지시했고, 낭인담당인 아다치와 구니토 모에게는 낭인을 집합시켜 입성하여 민비를 살해하도록 명령을 내렸다.⁵⁸⁾

미우라는 시해의 시간을 8일 새벽 4시 반경으로 잡고,⁵⁹⁾ 각각의 행동책임자에게 직접 행동지침을 하달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 7일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는 우치다 사다즈치(内田定槌, 영사관 일등영사)가 배편 만찬에 태연히 참석하였다.⁶⁰⁾ 7일 저녁, 낭인들은 시바가 묵고 있던 巴城館이라는 곳을 본부로 하여 연락을 취하면서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 一隊는 한성신보사에 집합하여 오카모도·호리구치와 합류한 후 대원군을 호위하여 왕성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파성관에 남아 있던 낭인들은 기생까지 불러 주연을 끝내고 나서 직접 왕성으로 갔다.⁶¹⁾

한편, 인천에서 急電을 받은 오카모도는 7일 밤 12시경 용산에 도착하여, 무장한 낭인배 및 사복차림의 순사 30여 명과 대원군이 사는 孔德里로 갔다. 그들은 대원군 댁의 문이 잠겨 있자 담을 뛰어넘어 문을 열고 들어가 경위병 10여 명을 포박하고 나서, 오카모도가 통역 스키를 대동하고 대원군의 방에 쳐들어갔다. 이때 일본인 순사들은 포박한 경위병의 제복과 모자를 빼앗아 입어 조선인처럼 변장하였다.⁶²⁾

대원군 방에 들어간 오카모도는 2시간 반 이후인 3시 반경이 되어서야 겨우 대원군을 강제로 동행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시간이 지체된 것은 대원군이 왕궁 동행을 완강히 거절하였기 때문이었다.⁶³⁾ 그는 밖에 나와 문앞에서

58) 葛生能久, 앞의 책(上), 525~528쪽.

59) 《舊陸海軍文書》, 第4回 報告. 여기에서 구스노세중좌는 대원군 입궐 예정시간을 새벽 4시 30분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60)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424 十月 八日 王城事變ノ詳細報告ノ件.

61) 菊池謙讓, 앞의 책, 406~407쪽.

62)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424 十月 八日 王城事變ノ詳細報告ノ件.

낭인배들에게 민비를 반드시 살해하도록 호령하고서,⁶⁴⁾ 대원군을 가마에 태우고 서대문으로 나아갔다. 도중에 훈련대와 합류하여 4시 반경에 서대문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본군 수비대와도 합류할 예정이었으나 수비대가 이를 잘못 알고 남대문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1시간 이상 지체한 후 합류하여 광화문에 도착하게 되었다.⁶⁵⁾ 이때는 이미 5시 반경으로 날이 밝아 사람들도 나다니고 있을 때였다. 본래의 계획이 1시간 이상 차질을 빚게 된 것이었다.

그들은 광화문에서 洪啓薰(훈련대 연대장)이 거느린 훈련대와 조우하여 총격전을 벌이고 홍계훈을 살해하였다. 5시 50분경에 왕궁에 침입하였고,⁶⁶⁾ 6시 10분경에는 대원군을 勤政殿 옆 康寧殿에 내려놓고서,⁶⁷⁾ 민비의 奧宮인 乾清宮의 坤寧閣에 난입하였다. 그리고서 그곳에 있던 여자들을 끌어내어 그 중에서 민비라고 생각되는 3인의 여성을 살해하고, 민비를 보호하기 위해 찾아다니던 궁내부대신 李耕植을 건청궁에서 살해하였다.⁶⁸⁾ 이러한 광경은 러시아인 사바틴(M. Sabatin, 薩巴丁)과 미국인 다이(William Mc. Dye, 茶伊, 시위대 교관)에게도 생생하게 목격되었다.⁶⁹⁾

민비 및 궁녀의 살해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이는 민비의 침실에 난입한 자가 나카무라 타테오(中村楯雄)·후지카츠·테라자키 타이키치(寺崎泰吉, 일명 高橋源次)·구니모토 등의 낭인과 미야모토 타케타로(宮本竹太郎, 少尉)·마키 쿠마토라(牧態虎, 特務曹長) 등의 군인들이 있었고, 또한 민비의 용모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고 특정할 수 없는 데서 온 결과이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10월 8일 당일 테라자키가 스즈키 시게모토(鈴木重元)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친구의 말에 의하면(자기가 죽인 자가) 왕비이다”⁷⁰⁾

63) 朴宗根, 〈三浦梧樓公使の赴任と明成皇后(閔妃)殺害事件〉(《日清戰爭と朝鮮》, 東京: 青木書店, 1982).

64) 葛生能久, 앞의 책(上), 528쪽.

65)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424 十月 八日 王城事變ノ詳細報告ノ件.

66) 왕궁침입 시간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당일 8시 50분발 구스노세중좌의 電文이 가장 신빙성이 있고 정확하다고 하겠다(《舊陸海軍文書》, 第4回 報告).

67) 《舊陸海軍文書》, 大院君入闕始末.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다.

68)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424 十月 八日 王城事變ノ詳細報告ノ件.

69) 李玟源, 〈閔妃弑害의 背景과 構圖〉(崔文衡 외, 앞의 책).

라고 하는 구절에서, 일단은 테라자키가 살해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죽이는 현장에서 미야모토와 마키 두 사람의 일본 군인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도 확인된다.⁷¹⁾

한편 미우라는 7일 저녁 우치다 사다즈치(內田定槌) 주최의 연회에서 귀가 한 후 잠시 눈을 붙였다가, 새벽에 일어나 스기무라 및 고쿠부 쇼타로(國分象太郎, 通譯官)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면서 광화문에서의 충성을 듣고 있었다.⁷²⁾ 시바도 미우라에게 상황을 보고하기 위하여 공사관에 들어왔는데,⁷³⁾ 미우라는 이들로부터 왕궁 침입을 확인한 후, 6시 5분 공사관을 출발하여 왕궁에 들어갔다.⁷⁴⁾ 그리고서 7시에 고종 및 대원군을 알현하여 친일내각을 강제적으로 수립하고, 8시에는 김홍집 이하 각 대신을 불러들여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였다.⁷⁵⁾

미우라는 7시 고종을 알현할 때까지, 40~50분간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었는데, 이때 사건현장에서 민비의 시신을 확인하고 그 처리를 지시하는 등 사건의 뒤처리를 도모하였다. 낭인배들도 궁녀와 왕태자 李拓을 통해 민비의 얼굴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미우라도 직접 민비의 시체를 확인한 후 오기하라에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급히 화장하라고 명하였다.⁷⁶⁾ 오기하라의 지시에 의해 낭인들은 玉壺樓의 동쪽에 있는 松林에서 불태웠고, 그 유해는 우범선의 지시에 의해 尹錫禹가 正殿에서 좀 떨어진 곳에 가지고 가서 묻었다.⁷⁷⁾

70)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424 十月 八日 王城事變ノ詳細報告ノ件.

市川正明 編, 《明成皇后殺害事件史料集成》日韓外交史料 5(東京: 原書房, 1979), 別紙 第4號 高橋源次(寺崎泰吉의 別名)가 鈴木重元에게 보낸 서한(10월 8일자). 이 편지는 《日本外交文書》에는 누락되어 있다.

이외에도 陸軍側の 法官 井上 理事가 兒玉 陸軍次官에게 보낸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山邊健太郎, 《日本の韓國併合》, 東京: 太平出版社, 1966년, 224쪽에서 재인용).

71) 《舊陸海軍文書》, 電文(11月 12日).

72) 小谷保太郎 編修, 앞의 책, 334~335쪽.

73)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424 十月 八日 王城事變ノ詳細報告ノ件.

74) 《舊陸海軍文書》, 楠瀬中佐電文.

75) 《舊陸海軍文書》, 大院君入闕始末.

76) 朴宗根, 앞의 책, 247쪽.

77) 葛生能久, 앞의 책(上), 534~535쪽.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424 十月 八日 王城事變ノ詳細報告ノ件.

3) 사후 수습과 정황

미우라는 대원군과 훈련대를 내세워 왕궁에 침입함과 동시에, 기괴망측한 복장을 한 일본인 낭인과 조선인 경위대의 복장을 한 일본인 순사들을 궁중에 난입시켜 민비를 살해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그 나름의 완전범죄를 위한 조처였다. 즉 이 사건에서 일본인의 개입을 숨기기 위한 위장전술이었고, 만에 하나 일본인 가담사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원군측의 요청에 의해 개인적 차원에서 가담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한 예방조치였다.

이 살해계획은 극비밀리에 진행되었다. 곧 미우라·오카모토·아다치·구스노세·시바 등의 극히 제한된 소수만이 민비살해라는 계획을 알고 있었고, 대부분의 관련자들은 당일 동원되고 나서, 혹은 사후에야 알 정도였다. 심지어는 참여하지 않는 공사관 직원에게는 사실을 끝까지 숨기기 위해 연막전술을 펴기도 했다.⁷⁸⁾ 사후의 은폐공작은 더욱 철저했다. 모든 관련자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발설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등 사후의 은폐공작도 철저히 하였다.

일본 당국에 시해사건이 처음 전달된 것은 8일 오전 6시 32분발 공사관附海軍少佐 니이노 도키스케(新納時亮)가 이토 미요지(尹東已代治) 중장에게 보낸 전보였다.⁷⁹⁾ 그리고 다시 오전 9시 20분에는 “국왕 무사, 왕비 살해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⁸⁰⁾ 니이노는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던 자임에도 미우라에게 보고하러 온 시바 및 사사키 타다시(佐佐木正)를 통하여 이미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다.⁸¹⁾

해군측의 보고를 듣고, 육군 참모부에서는 전보로 공사관附 육군중좌 구스

그리고 이들 낭인들은 민비의 시신을 凌辱하는 蠻行을 저질렀다고 한다(山邊健太郎, 〈石塚英藏이 末松 法制局長에게 보낸 보고서〉, 앞의 책, 226쪽에서 재인용).

78)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424 十月 八日 王城事變ノ詳細報告ノ件.

79) 《舊陸海軍文書》, 電文.

80) 위와 같음.

81)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424 十月 八日 王城事變ノ詳細報告ノ件.

노세에게 사실 확인을 명령하였다. 그는 사건 가담자로서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오전 8시 50분발 전문에서는 대원군의 입결과 훈련대장 홍계훈의 죽음만을 보고하고 있다.⁸²⁾ 심지어는 오후 3시 25분발 전보에서도 “한인의 死者, 부인 둘에 병졸 둘은 확실하다. 왕·세자는 安穩, 왕비의 소재는 알지 못하지만 달리 도망간 증거는 없다”⁸³⁾라고 하여 본국의 상부에까지 사실을 끝까지 숨기고 있다.

일본 외무성에서도, 동일 오후 1시발 전문에서 왕비 살해 實否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당사자인 미우라는 “왕비의 소재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시치미를 떼고, 대원군에 의한 구테타라고 보고하고 있다.⁸⁴⁾ 이러한 사실 은폐는, 스기무라가 직속상관이었던 이노우에에게 행한 보고에도 일관되고 있다.⁸⁵⁾

미우라도 사이온지 킨모치(西園寺公望) 외무대신에게 끝까지 허위보고를 하면서, 일본인의 가담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사적 차원(민간인임을 주장)’으로 돌리고 있다.⁸⁶⁾ 단, 이토 총리대신에게는 비교적 상세히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데⁸⁷⁾, 이는 이토와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우라는 외국인 목격자인 다이와 사바틴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막료인 츠키나리를 불러 일본인 낭인 중에서 중형을 각오하고서 끝까지 책임질 자들을 물색하였다. 그것은 대원군이 일본인 壯士를 고용하였고 낭인들이 이에 부화뇌동하여 민비를 살해했다고 위장하기 위해서였다. 츠키나리는 후지카즈와 히로다 토메요시(廣田止善, 熊本國權黨員)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물색하여 대처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 정부당국에서,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10월 14일 가담한 몇몇 낭인들에 대해 退韓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이 위장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⁸⁸⁾

82) 《舊陸海軍文書》, 電文.

83) 위와 같음.

84)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354 訓練隊ト侍衛隊ノ衝突狀況等報告ノ件.

85)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357 問合セニ關シ回答ノ件.

86) 한 예를 들면,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368 露米兵入京竝内各一部更迭ヲ報告ノ件.

87)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378 事變起因竝基ノ對策ニシキ稟申ノ件.

88) 葛生能久, 앞의 책(上), 537쪽.

민비를 살해하고 나서 즉시 미우라는 대원군과 상의하여 정부 개조의 인사발령을 단행하였다. 친미·친러파로 지목되던 학부대신 이완용, 농상공부대신 이범진, 군부대신 안경수, 경무사 이윤용 등을 해임시키고 조희연을 군부대신에, 鄭秉夏 농상공부 협판을 대신서리에, 법무대신 서광범을 학부대신서리 겸임으로, 權滢鎭을 경무사로, 兪吉濬을 내부대신으로, 李載冕을 궁내부대신으로, 金宗漢을 동 협판으로 임명하고, 총리대신 김홍집, 외부대신 김윤식, 내부대신 박정양을 유임시켰다.⁸⁹⁾ 그리고 10월 10일 민비에 대한 폐위조치를 발표하였다.

일본정부에서는 외무성에서 진상규명이라는 명목으로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정무국장을 10월 10일 조선에 파견하였다. 그 훈령안에서 “범죄자의 罪蹟은 가능한 한 그것을 밝혀야 하지만 그 區域은 가능한 한 축소할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⁹⁰⁾ 하여, 사전에 이미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으면서 은닉과 축소를 획책하고 있다.

완벽한 각본과 주도면밀한 진행으로 완전 범죄를 노린 민비시해 사건의 계획은 당초 10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10월 7일 훈련대 해산 통고라고 하는 예기치 않은 사태의 진전으로 10월 8일 새벽으로 앞당겨 진행되었다. 그 와중에서 새벽 4시 반경 왕궁에 침입하여 민비를 살해한다고 하는 본래의 스케줄이 지연되어 날이 밝은 새벽 6시경에야 수행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많은 조선인 및 다이·사바틴 등의 외국인에게 현장이 목격되었고, 즉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일본의 만행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되어 버린 것이었다.

사건이 일본공사의 주도아래 일본인에 의하여 실행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일본 정부당국은 부득이 미우라를 위시한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사실 은폐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였다. 10월 17일에는 미우라를 공사직에서 해임하고 대신에 고무라 정무국장을 공사로 임명하였다. 18일에는 관련자 오카모도를 위시한 낭인들에게 퇴한 명령을 내리고 22일에는 스기무라 등 공사관 관리들에게 퇴한 명령을 내려, 이들 48

89) 李光麟, 앞의 책, 370~371쪽.

90)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367 事變調査ノ爲メ小村政務局長渡韓ニ際シテノ内訓案.

명을 임기응변책으로 히로시마 감옥에 수용하였다. 그후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진상규명의 흉내를 내다가 다음해 1월 20일에는 ‘증거불충분’이라는 명목으로 무죄판결을 내리고 석방하여 버렸다. 이들 살인자들은 스스로 지사인 양 행동하며 공명다툼을 하는가 하면, 송환될 때는 일본인들로부터 개선장군과도 같은 대우를 받았다.⁹¹⁾ 그리고 일본의 주권자인 明治天皇은 미우라가 석방되어 동경에 도착했을 때, 侍從을 보내 그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할 정도였다.⁹²⁾

이 사건은 조선주재 외교관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알려졌고, 미국·영국·러시아 등 열강은 야만적 살인행위로 비난하면서, 사태의 전개와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⁹³⁾ 10월 25일에는 러시아·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가 일본군의 철수와 조선에 대한 불간섭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일본내에서도 ‘역사상 고금 미증유의 흉악함’ ‘세계를 진동시킨 일대참극’의 표현으로 비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⁹⁴⁾ 당시 일본의 대표적 지성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연루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하기도 하였다.⁹⁵⁾

이 사건은 당초 그들의 계획과 기대, 즉 반일적이며 引俄拒日 정책을 취하는 민비를 제거하여 일본세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과는 달리, 국제적 비난과 압력은 물론 조선의 朝野에 반일운동을 유발시켰고,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조선지배의 정략이 도리어 수포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본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열강의 견제로 일본세는 더 이상 조선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10월 30일에는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훈련대가 해산되고 새로 친위대(왕궁)와 진위대(지방)가 설치되었다. 11월 26일에

91) 葛生能久, 앞의 책(上), 537쪽.

小谷保太郎 編修, 앞의 책, 344쪽.

92) 小谷保太郎 編修, 위의 책, 345~346쪽.

93) 阪崎斌, 앞의 책, 290쪽.

94) 阪崎斌, 위의 책, 286쪽.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424 十月 八日 王城事變ノ詳細報告ノ件.

95) 《時事新報》, 1895년 10월 15일, 社説.

는 왕비를 복위하고, 시해사건에 관계한 군부대신 조희연과 경무사 권형진을 파면하였다. 대원군도 스스로 은퇴하고, 李垞鎔은 일본에 유학의 명목으로 망명하였다. 그리고 12월 1일에는 왕후시해 사실과 국상을 공표하여 시해 사건의 뒷수습은 일단락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세력이 완전히 몰락한 것은 아니었다. 김홍집을 위시로 한 친일내각은 여전히 존속하여 진상규명에 들어갔다. 김홍집내각은 李周會를 사건의 총책임자로 하고 훈련대 副位 尹錫禹를 사건의 장본인으로, 무명의 朴銑을 직접 시해자로 날조하여, 이들 3인을 12월 30일 사형에 처해 마무리지었다. 그 외 조선측 가담자인 군부대신 조희연·경무사 권형진·훈련대 대대장 우범선과 李斗璜 등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을미사변의 소식이 알려지고 왕비의 폐위 조치가 발표되자, 특히 위정척사 계열의 유생을 중심으로 일본 침략세력을 토벌하여 국모의 원수를 갚자는 상소운동(討逆疏)이 일어나고 의병운동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⁹⁶⁾ 거기 에다 김홍집내각에 의해 12월 30일 단발령이 조칙으로 공포되자 전국 각처에서 의병이 봉기하였다. 이른바 을미의병으로 한말 최초의 의병봉기이다. 의병은 친일 관리뿐만이 아니라 관군과 일본군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반일 분위기가 일반 민중의 차원으로까지 확산되었던 것이다.

재야에서의 이러한 반일 투쟁과는 달리 권력층 내부에서도 반일 움직임이 있었다. 11월 28일 무장한 친위대가 궁성에 쳐들어가 국왕을 친일파로부터 구하려고 했던 이른바 ‘春生門사건’이다. 이 사건은 친일파가 계속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 시종원경 李載純, 중추원의관 안경수 등이 친러적인 정동파의 이범진·이윤용·이완용·尹雄烈·윤치호·李夏榮·閔商鎬 등과 밀모하고 언더우드(H. G. Underwood, 元杜尤)·다이·헐버트(Homer B. Hulbert) 등의 미국인의 협조도 얻어 친일정권을 타도하려 한 쿠데타 기도였다.⁹⁷⁾

이 계획은 실행에 옮겨져 11월 28일 南萬里(친위 제1대대 소속 중대장)·李奎泓(친위 제2대대 소속 중대장)이 800명의 군인을 인솔하여 거사하였으나 사

96) 黃 玆, 《梅泉野錄》(國史編纂委員會, 1955), 186~188쪽.

李光麟, 앞의 책, 378쪽.

97) 李光麟, 위의 책, 374쪽.

전에 누설되어 실패하였다. 이 사건의 실패로 무장군인들은 체포되거나 도주하였고, 주모자들도 피신하거나 체포되어 처벌을 받았다.⁹⁸⁾ 일본은 이 사건을 국왕 탈취사건으로 규정하고서 대대적인 일본세 만회와 왕비시해 사건의 무마용으로 활용하였다. 시해사건 관련자에 대한 무죄방면도 이 사건을 빌미로 정당화하고 있고⁹⁹⁾ 친일 김홍집내각을 연명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결국 조야의 반일운동이 일본세력을 축출하지 못한 채 소강상태가 지속되다가 1896년 2월 9일 120명의 러시아 해병대가 입성하고 2월 12일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이 있고 나서 비로소 친일세력은 소탕되고 일본은 조선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姜昌一〉

2. 아관파천

1) 을미사변 직후 일본의 압제와 단발령

왕비시해 이후 일본에게 쏠렸던 국외의 비난 여론은 잠시 뿐, 조선 내정은 더욱 위기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 등 일본의 고위 인물과 외무성 관계자들은 민비와 대원군의 ‘중세적’ 정권다툼이 조선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선전하였다. 일본의 언론도 이에 발맞추어 일본정부를 측면에서 옹호하였다. 왕비시해는 조선의 정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본정부와는 하등 무관하다는 논지였다. 게다가 영·미·불·독 등 열국 정부도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침묵을 지켰고, 서울의 자국 외교관들에게 배일행동을 자제하라는 훈령까지 내렸다.¹⁾

98) 李光麟, 위의 책, 374~375쪽.

99) 菊地謙讓, 앞의 책, 447쪽.

1) 李玟源, 〈閔妃弑害의 背景과 構圖〉(崔文衡 외, 《明成皇后弑害事件》, 민음사, 1992), 122~124쪽.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에 더욱 유리한 사태가 야기되었으니 춘생문사건이 그것이다. 이 사건은 경복궁에 감금되어 신변이 위태롭던 고종을 춘생문을 통해 궁성밖으로 탈출시키려던 근왕적 기도로서, 고종의 측근 인사들 외에 구미인들까지 호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사건의 전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록하고 있지는 못하다. 반면 현지의 일본공사관은 일찍이 ‘모종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었다. 당초부터 실패할 것이 분명했던 이 사건은 어느 면에서는 일본이 유도 내지는 조작한 흔적도 없지는 않았다.²⁾ 결과도 일본에 철저히 이용되었다.

영성한 시도에 그친 춘생문사건을 놓고 절호의 기회라 판단한 일본은 즉각 ‘국왕 탈취사건’이라고 선전하였다. 일본의 언론은 열국 외교관이 현장에 출현한 점을 포착하여 “일본의 외교관이나 다른 나라의 외교관이나 조선에서 하는 짓은 마찬가지”라는 식의 논조를 폈다. 일본의 내각인사들과 각국 주재 일본외교관도 이 기회에 조선내 열국 외교관의 일본에 대한 비판적 언동을 저지코자 부심하였다. 요컨대 일본은 이 일을 기회로 왕비시해로 인한 국제여론의 비난을 모면하는 것은 물론, 조선내 구미 외교관들의 반일행동에 쐬기를 박자는 것이었다. 그러한 시도는 실제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³⁾

상황이 반전되자 일본은 다시 조선 내각을 꺾박하면서 서둘러 각종의 조치를 취하여 갔다. 태양력 채용·군제 개편·단발의 시행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상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인젠가는 취해져야 할 조치였다. 당시의 친일 내각 인사뿐만 아니라 서울 사람 중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들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왕비시해의 만행이 자행된 뒤의 혼란속에서 비정상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

이들 조치 중에서도 특히 지방 유생층의 강력한 저항을 유발하여 한동안 한반도 전역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 넣게 한 것이 다름아닌 斷髮令이었다.⁴⁾

2) 日本外務省 編, 《日本外交文書》28(東京: 日本國際連合協會, 1936), 문서번호 417 韓國王露國公使館ニ行幸ノ風說報告ノ件 및 문서번호 420 韓國王露國公使館行幸ノ風說ニ關シ報告ノ件.

3) 中山泰昌 編, 《新聞集成明治編年史》9(財政經濟學會, 1936), 327~328쪽.
尹致昊, 《尹致昊日記》4(國史編纂委員會, 1975), 1895년 12월 9일.

4) 《舊韓國官報》214호, 건양 원년 1월 4일, 告示.

단발의 명분은 “위생에 이롭고 일하기에 편리하다는 것”이었다. 정부의 고시 내용도 “朕이 髮을 斷하여 臣民에게 先하노니 爾有衆은 朕의 意을 克體하여 萬國으로 竝立하는 大業을 成케 하라”였다. 고종이 술선하여 단발을 하고, 일반 백성에게 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상황은 달랐다. 이때의 형편을 黃 玟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1월 15일(양력 1895년 12월 30일)…10월중 倭使가 上을 협박하여 머리를 자르라고 하자 상은 因山 이후로 미루었다. 이때에 이르러 吉濬·義淵 등이 왜를 이끌어 궁성을 포위하고 대포를 설치하여 머리를 자르지 않는 자는 죽인다고 하자, 상이 길게 탄식하면서 秉夏를 돌아보며 네가 내머리를 자르라고 하였다. 병하가 가위를 들고 손으로 상의 머리를 자르고, 길준이 태자의 머리를 잘랐다. 습이 내려져 곡성이 하늘을 진동하고 사람마다 분노하여 죽음을 무릅쓰고자 하니, 장차 큰 변이 날 형세였다. 왜인이 군대를 배치하여 엄히 지키고, 警務使 許璉은 순검을 인솔하여 칼을 차고 길을 막아 만나는 사람마다 곧 머리를 잘랐다. 또 인가에도 들어가 수색하여 찾아내니 깊이 숨지 않은 자는 면할 수가 없었다. 서울에 온 손들도 나가자마자 상투를 잘려 모두 이를 주머니에 넣고 통곡하며 城을 나섰다. 머리를 깎인 자들은 정연히 잘리지 않아 상투만 잘리고 머리칼은 늘어져 長髮僧 같았다(黃 玟, 《梅泉野錄》, 國史編纂委員會, 1955, 191쪽).

위에서 보듯이 고종 자신도 일본군이 대궐을 포위한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내각 인사를 앞세운 일본의 꾀박하에 단발이 강제되고 있었다. 李道宰·金炳始 등 관직을 버리거나 낙향하는 전·현직 관리들이 속출하였고, 단발령을 통박하는 상소가 쇄도하였다. 이도재는 “진실로 나라에 이롭다면 어찌 머리카락을 아끼겠는가마는 그 같은 단발령은 억조창생을 격분시켜 이로움은 없고 해로움만 보이는 조치”라고 하였다.⁵⁾ 과연 단발령은 전통적인 유가의 관념속에서 두발을 매우 중시해 온 국민 일반, 특히 지방민과 유생들에게는 천지개벽과 다름없었다. 倭의 칼날 아래 국모가 비극을 맞은 것이 “綱常이 끊기는 極變”이었다면, 단발령은 그야말로 “千年文物이 끊겼다”할 사건이었던 것이다.⁶⁾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정부가 단발을 시행하려 했다면, 서울에서 지방으로 점

5) 黃 玟, 《梅泉野錄》(國史編纂委員會, 1955), 192쪽.

6) 朴成壽 註解, 《渚上日月》上 (서울신문사, 1993), 232~246쪽.

진적으로 확대하여 가는 것이 마땅했고, 어느 면에서는 자율에 맡겨도 좋을 일이었다.

당시의 프랑스 외교관에 따르면, 서울 사람들 중 3분의 2가량이 단발령 시행 1주일만에 단발을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도 수일내에 이를 따를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 지방에서는 사정이 전혀 달랐다. 지방으로 갈수록 일제 단발령으로 오해될 만큼 시행 자체는 강제적이었기 때문이다. 단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던 서울의 개화된 사람들에게조차 정부의 처사가 의아하게 비쳐지고 있었으니, 지방민들에게 벼락같은 단발령이 어떻게 비쳐졌을지는 말할 나위도 없다.⁷⁾

이러한 여러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당시 조선 내정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감지된다. 일본은 우선 조선의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가자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조선 조정을 확고히 장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의 소요사태를 진압한다는 명분하에 일본군을 파병할 구실을 모색하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멀리는 명치유신 이래의 목표였고, 가까이는 청일전쟁이래 구체화되었던 ‘조선보호국화’를 지속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 것이었다. 아울러 거기에는 일본의 상업적 이해까지 부수되고 있었다.⁸⁾

일례로 그해 봄 인천주재 영국부영사 월킨슨(W. H. Wilkinson)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북경주재 영국공사 오코너(O'coner)에게 보고한 바 있다. 즉 “일본의 제안으로 조선의 의례복이나 평상복을 검은 색깔로 할 예정인 바 흰색의 영국산 면제품 판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국 상품을 판매하는 인천의 청국상인들은 상해에 상품 선적을 중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코너는 “작은 문제로 보이지만 이것은 일본의 대한정책 방향을 말해준다. 조선시장에서 영국제품을 몰아내고자 한다면, 일본은 영국의 호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고, 조선내에서 일본의 활동은 영국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이노우에 당시 주한일본공사에게 비공식적으로 통보하라”고 힐리어(Walter C. Hillier)에게 지시하였다. 복제 개정에 이 같은 의도가 있었

7) 《尹致昊日記》4, 1896년 1월 1일.

8) 李玟源, 〈조선말의 단발령과 일본의 대한정략〉(《朝鮮時代の 社會와 思想》, 朝鮮社會研究會, 1998), 279~294쪽.

듯이 단발령 역시 이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⁹⁾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물론 조선 내각의 이름으로 행해졌고, 내각인사들 중 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호응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주도권을 행사하였다기 보다는 일본공사 및 일본인 고문관의 의도와 계획하에 취해진 이들 조치가 파행적이었다는 점이 문제였다. 환언하면 일본은 내정개혁의 미명하에 조선 조정을 장악하고, 정부와 일반의 관계를 이간하여 조선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나아가서는 조선정부의 요청을 명분으로 파병을 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장악까지 달성하자는 것이었다.¹⁰⁾

이상에서 보듯이 단발령 등을 강행한 직접적 배후는 일본공사관측이었고, 그의 시행 자체는 을미사변 등으로 야기된 조선내의 사태 호도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일본정부의 조선 침략정책의 일환으로서 취해진 것이었다. 표면적으로는 개혁을 지향하던 趙義淵·兪吉濬·權滢鎭 등 친일내각 인사들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었지만, 그들은 실권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유길준·권형진 등의 기록에서도 나타나듯 소위 친일파로 불리운 이들에 대한 일본의 간섭은 매우 심하였다.¹¹⁾ 단발령을 포함한 정부 조직의 배후가 조선정부 각부에 배치된 일본인 고문들이었음은 열국 외교관들이 익히 간파하고 있던 바다.¹²⁾

결국 단발령 등 일련의 조치는 그 당시 조선 정황이 어떠했으며, 일본의 의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분명히 해준다. 왕비시해로 인한 열국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일본의 입지는 여전했고 일본의 압제하에 오히려 위기에 몰리게 된 것은 고종과 조선 조정이었다.

다시 말해 왕비시해와 춘생문사건, 단발령 공포 등 일련의 사태에 이르러 조선 정황은 삼국간섭 이전에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의한 ‘보호국

9) 李致源, 《俄館播遷 前後의 韓露關係 1895~1898》(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 56~57쪽.

10) 李致源, 위의 책, 281~285쪽.

11) 李光麟, 《開化派와 開化思想》(一潮閣, 1989), 232~240쪽.

柳永益, 《甲午更張研究》(一潮閣, 1990), 250~254쪽.

12) Allen to Olney, No. 157, Seoul, Oct. 10, 1895, “Tai Won Khun Revolution”, *Despatches from U. S. Ministers to Korea 1883~1905*, National Archives M. F. Record Group No. 134(이하 DUSMK로 줄여 씀).

《尹致昊日記》4, 1895년 10월 중순에서 1896년 2월초의 기록.

화’ 기도하의 상황으로 복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단발령 선포 직후의 조선은 일본의 정략에 의해 점점 절망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다.

2) 아관파천

(1) 항일의병의 봉기

을미사변 이후 조선에서 보인 일본의 행태는 자주독립을 갈망하던 조선과 조선의 영토 보전을 기본방침으로 했던 러시아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후 조선과 러시아로부터 그에 대한 대응이 모색되어 간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그 중에서 조선 조야의 대응은 그해 연말로부터 다음 해까지 지속적으로 펼쳐진 의병의 봉기와 고종의 러시아에 대한 접근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수유생층이 주도한 의병봉기의 중요한 동기는 국모 시해사건과 단발령의 강제 시행이었다. 그런데 당시 조선에서 일본의 압제에 직접 대항할 수 있었던 집단은 지방의 유생층밖에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일전쟁 이후 을미사변 직후까지 조선의 농민층이나 군대는 모두 일본군에 의해 이미 초토화되거나 철저히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의병봉기는 19세기말~20세기초 항일의병 봉기를 본격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들 의병은 華夷 관념에 입각한 尊王攘夷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편으로는 일본의 국모시해에 대한 보복의 차원에서, 다른 한편으로 단발령의 선포 등 ‘전통문화의 파괴’에 대한 저항의 입장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의병운동은 반일적·반개화적 성격을 띠고 있고, 공격의 주요 대상은 일본군과 그의 구속하에 움직이고 있던 관군이었다. 이들의 활동은 전반적으로는 일본의 위압하에 있던 고종과 측근 인물들의 희망을 대변해 주고 있었다.

의병은 주로 중남부 지역에서 시작하여 점차 이북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다. 즉 춘천의 李昭應, 강릉의 閔龍鎬, 제천의 柳麟錫·李春永·安承禹, 홍주의 金福漢·李 倓, 남한산성의 안성의 金河洛, 문경의 李康季, 안동의 權世淵·金道和, 영양의 金道鉉, 진주의 盧應奎, 금산의 李殷贊·許 薦, 장성의 奇宇萬 등이 그들이다. 이들의 목표는 서울·부산·원산 등 주로 일본인들이 많

이 거주하던 지역이었다. 이 중 대표적이었던 것은 유인석 휘하의 충청도 의병진의 활약이다. 이들은 충주를 점령하여 남부와 중부를 연결하면서 전국을 지휘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였다.¹³⁾

그런데 의병 중 일부는 고종과 은밀한 연계하에 봉기하였던 것으로 드러난다. 의병이란 일반적으로 정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봉기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이 국모를 시해한 극단적 상황을 맞이한 데다가 그야말로 조정은 일본의 압제에 의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와 의병의 입장은 반일의 입장에서 상통하는 바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고종은 외국의 공사관으로 피신하여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일본의 조선지배를 경계하던 러시아의 지원을, 다른 한편으로는 반일적이면서도 집단성이 강했던 지방 유생과 보부상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¹⁴⁾

의병의 주요 공격 대상은 전국을 돌아다니던 일본 상인이나 일본군, 친일 내각의 이름으로 파견된 지방관리 등이었다. 그 외에 일본군의 통신망을 차단하는 등의 교란작전도 병행하였다.¹⁵⁾ 이렇게 왕비시해와 단발령 등을 계기로 전국 도처에서 의병이 봉기하게 되자 자연히 서울지역은 군사적으로 공동화하게 되었다. 즉 일본군의 구속하에 있던 중앙의 주력부대(친위대) 중 상당수의 병력이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각 지방으로 분산되어야 했기 때문이다.¹⁶⁾ 이러한 현상은 당시 일본의 압제하에 활로를 추구하던 조선은 물론, 일본의 조선지배 기도로부터 ‘조선의 독립보전’을 지향하던 러시아가 공동의 대응책을 강구하기에 유리한 상황을 제공하게 되었다.

13) 尹炳奭, 〈抗日義兵〉(《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1976), 356~390쪽.

14) 《日本外交文書》 29, 문서번호 360 親露派李範晉等ノ隱謀ニフニ報告ノ件.

李鉉淙, 〈俄館播遷〉(《한국사》 18, 국사편찬위원회, 1981).

Пак Чон Хё, *Россия И КОРЕЯ 1895~1898* (Москва : Москов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й университет, 1993), pp.7~39.

吳瑛燮, 〈乙未義兵運動의 政治・社會的 背景〉(《國史館論叢》 65, 國史編纂委員會, 1995).

15) 金祥起, 〈甲午更張과 甲午・乙未義兵〉(《國史館論叢》 36, 國史編纂委員會, 1992).

16) 黃 玟, 《梅泉野錄》, 190~200쪽.

李瑄根, 《韓國史 : 現代篇》(震檀學會, 1963), 726~729쪽.

(2) 스페이에르의 내한과 고종의 아관파천

당시의 열강 중에서 일본의 왕비살해와 이후의 조선 장악 기도에 대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나라는 러시아였다. 주지하듯이 러시아는 동서의 연결을 목표로 1891년이래 유럽에서 동아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이르는 장장 5,500마일의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중이었다.¹⁷⁾ 거기에는 경제와 군사적 이해가 두루 결부되어 러시아로서는 가히 사활을 건 사업이었다. 따라서 상기 철도의 순조로운 완공을 위해 러시아는 동북아의 안정을 원하였고, 만주와 한반도의 현상유지는 그래서 필수적이었다. ‘조선의 영토보전’과 ‘조선의 현상유지’를 기하자는 것이 핵심이었던 1880년대 후반의 李鴻章-라디젠스키(Ladygensky)협정과 코르프(Korf)-지노비에프(Zinoviev)회담, 나아가 일본에 조선의 ‘자주독립’ 유지를 촉구했던 삼국간섭 당시의 대일각서도 그러한 방침과 맥락을 함께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을미사변과 단발령 이후의 사태에 대해 러시아는 조선 현지에서 어떻게 대응하여 갔는가. 러시아의 조선에서의 입지는 여러 변수에 의해 삼국간섭 당시와 같을 수 없었다. 삼국간섭에 참여했던 독일이 청국에 대한 차관의 제공문제에서 소외되어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있었고, 요동반도 반환문제도 러시아의 중재하에 이미 타결을 보았다.¹⁸⁾ 이 상황에서 조선에 대한 이해관계가 적은 프랑스나 독일 등의 협조를 끌어내 대일견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러시아 스스로 확립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1896년 1월 8일 신임 주한 러시아공사 스페이에르(Alexis de Speyer, 士貝耶)가 서울에 도착하였다. 스페이에르는 헌병 장교출신이었던 부친답게 과감한 성격의 인물로, 1885~90년 사이에 주일공사를 역임한 일본통이었고,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이미 1885년 조선정부와 러시아 군사교관 교빙문제를 적극

17) “The Great Siberian Railway” in Charlemagne to Tower, No. 227, St. Petersburg, May 26, 1900, *Despatches from U. S. Ministers to Russia*.

18) 朴英宰, 〈清日戰爭과 日本外交〉(《歷史學報》53·54, 1972).

金元洙, 〈清日戰爭 및 三國干涉과 러시아의 對韓政策〉(《韓露關係 100年史》, 韓國史研究協議會, 1984).

추진했던 인물이다. 한편 멕시코주재 공사로 발령받은 웨베르(Karl I. Waeber, 韋貝)는 그해 12월 러시아정부로부터 후임자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따라서 스페이에르의 도착과 함께 서울에는 자연히 러시아의 두 외교관이 함께 머물게 된 셈이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분명치 않으나 고종이 웨베르의 유임을 거듭 러시아황제에게 요청했던 점, 또한 러시아도 을미사변 이후의 조선 사태에 대해 대응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서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취해진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러·일·영·미의 자료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에르가 서울에 부임하면서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러나 조선에 부임한 이후는 물론, 부임과정에서 보인 그의 활동은 일정한 목표로 향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스페이에르는 부임도중 동경에 들려 주일 러시아공사 히트로보(Mikhail A. Khitrovo)와 일본의 당료자들을 만나 조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그가 동경에서 만난 이토총리나 사이온지 킨모치(西園寺公望)외상 등은 대원군이 조선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하였고,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간여할 생각이 없으며 조선의 독립을 존중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조선문제에 대해 러시아와의 화의교섭을 통해 평화적 안정유지를 위한 양국의 협정체결을 희망한다고 하였다.¹⁹⁾

그러나 스페이에르가 도착한 직후의 조선은 사정이 전연 판판이었다. 우선 지방민의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고조되고 있었다. 왕비시해와 단발령의 강행으로 인해 조선 전역에 걸쳐 의병의 항일활동이 전개되고 있었던 사실이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었다. 이들은 만나는 일본인마다 살해하고자 할 만큼 일본의 만행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가설한 전선선을 절단하고 통신을 차단함으로써 일본군의 작전을 교란시키고자 하였다. 1896년 2월 5일부터 11일까지 약 일주일 사이에만도 조선내에서 피살된 일본인은 36인으로 집계되고 있었다(여주-16인, 원산-10인, 가흥-9인, 서울-1인).²⁰⁾

19) George Alexander Lensen, *Balance of Intrigue: International Rivalry in Korea and Manchuria, 1884-1899*(Tallahassee: University Presses of Florida, 1982), pp.575~580.

20) Hillier to Beauclerk, Inclosure 1, 3 in No.33, Seoul, Feb. 9, 12, 1896, Inclosure 1 in No. 58, Seoul, Apr. 15, 1896, *F.O. 405-70, VIII, Further*

서울 현지의 사정도 스페이에르가 일본에서 접한 일본정부 요인과 외교관들의 언급과는 판이하였다. 대원군이 조정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도 않았거니와 국왕은 국왕대로 허수아비나 다름없었고, 대신들은 일본인 고문관들의 지시하에 움직이고 있었다. 이때 스페이에르는 “일본이 주장해 온 조선의 독립은 하나의 사기극”이라고 주한 일본공사 고무라 슈타로(小村壽太郎)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히로시마(廣島)재판소 판결을 통해 미우라 코로(三浦梧樓) 이하 50명에 달하는 왕비시해 관련자 전원을 ‘증거불충분’이라는 명목하에 무죄방면하고 있었다.²¹⁾

즉 “관련된 일본군인들은 상관(일본 장교)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니 무죄이고, 일본군 장교는 미우라의 명령에 따랐으니 역시 무죄이며, 미우라는 대원군의 요청에 응하여 이들을 현장에 동원하였으나 이미 사태가 일단락된 뒤였으니 모두 무죄”라는 식이었다. 이것은 물론 그 동안에 비판적이었던 열국의 대일 비난 여론에 대한 정면 도발행위였다.²²⁾ 그러나 여론은 여론일 뿐 삼국간섭 이후 조선문제를 청국문제와 관련지어 바라보던 각국 정부의 입장은 달랐다. 일본이 이렇게 당돌해진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이와 같은 국외적 분위기의 변화와 때를 같이하여 조선의 내각도 다시 10월 8일 을미사변 당일에 등장한 친일내각의 형국으로 복귀하고 있었다. 2월 초에는 일본공사와 접촉을 유지해 오던 조희연이 군부대신에 복귀되는 형편이었다. 조선측 인물 중 왕비시해에 가장 깊은 관련이 있던 그의 복귀에 일본공사 고무라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²³⁾

이러한 상황에서 스페이에르와 웨베르는 러시아의 희망과 배치되는 조선의 국면을 전환시키고자 긴급히 대책을 숙의하였다. 러시아 정책의 주목표는 조선정부에서 친일관료를 제거하는 것임이 틀림없는 바 고종에게 관료의 임

Correspondence Relating to Corea, China and Japan.(이하 F.O. 405-Ⅷ로 줄여 씀).

朴宗根, 《日清戰爭と朝鮮》(東京: 青本書店, 1982), 255~300쪽.

21) *The Japan Daily Mail*(Yokohama), January 20, 1896, Acquittal of the Offices arrested in Connecction with the Korean Trouble of October 8th.

22) *The North China Herald*(Shanghai), April 17, 1896, The Murder of the Queen of Korea.

23) 尹致昊, 《尹致昊日記》4, 1895년 11월 6일~1896년 1월 31일.

명권을 회복시켜 준다면 친러성향의 정부 성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종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친일관리의 제거란 일본과의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결국 이들이 택한 것은 조정내외에 팽배한 반일의 분위기로 보아 러시아가 직접 나서는 대신 반일파를 지원하여 일을 피하자는 것이었다.²⁴⁾

물론 이러한 그들의 계획 자체는 조선으로부터 호응이 있어야 함은 물론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사전 내락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스페이에르가 서울에 도착한 1월초에 이미 갖추어지고 있었다. 우선 고종이 李範晉을 통해 자신의 불안한 처지와 러시아의 지원을 호소하는 메모를 비밀리에 전해왔음은 물론, 1월 중순에는 진임·현임 두 러시아공사 알현을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 고종 자신이 직접 스페이에르의 주머니에 쪽지를 넣어주기까지 하였다. 그 내용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었으므로 고종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는 분명해진 셈이었다. 도착 직후도 그랬지만, 스페이에르는 고종이 러시아의 지원과 개입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음을 거듭 본국에 타전하였다. 이에 대해 러시아 당국에서는 “조선의 현정부를 전복하는 것이 갖는 의미와 이 목적의 수행을 위한 수단이 무엇인가를 유념하라”는 내용의 훈령을 내려 이들을 독려하였다.²⁵⁾

이러한 내용의 교신은 일본을 경유하여 이뤄졌기 때문에 주일 러시아공사 히트로보의 견해도 자연히 개입되었다. 그는 스페이에르의 주장에 경악하여 이러한 목적을 위해 러시아가 행동하려면 이후 해방될 때까지 3~4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스페이에르는, 첫째 조선의 상하 모두가 일본을 증오한다는 것과 일본이 곧 조선을 삼킬 상황이라는 것, 둘째 조선현지의 사정으로 보아 일본과의 협상은 불가능하고,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은 서울 주둔의 일본군 병력만큼 러시아가 군사를 파견하여 해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러시아 당국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을

24) Lensen, *op.cit.*, pp.575~601.

崔文衡, 〈閔妃弑害 以後의 列强과 朝鮮〉(《明成皇后弑害事件》, 民音社, 1992), 205~207쪽.

25) Lensen, *op.cit.*, p.581.

강력히 피력하였다.²⁶⁾

그러나 러시아 당국의 입장은 달랐다. 외부대신 로바노프(Aleksei Borisovich Lobanov-Rostovskii)는 “러시아 당국은 스페이에르의 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군사파견은 거절한다”는 훈령을 보내었다. 이때 동경과 서울의 상황을 거듭 종합한 스페이에르의 판단은 일본이 조선 독립을 존중한다고 운운한 것이 사기라는 것이었다. 실상 주러 일본공사 니시 도쿠지로(西德二郎)는 “일본은 조선에 개입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하였고, 러시아 外部의 아시아국장은 그의 말을 액면대로 해석하여 “대원군이 조선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또한 히트로보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평화적 자세를 주입시키고자 한 사이온지 일본외상 등의 공작에 말려든 듯 하였다.²⁷⁾

당시 일본정부는 왕비시해사건 관련자 전원을 사건 3개월만에 무죄방면한 직후였다. 이에 대한 일본언론들의 보도는 대체로 히로시마재판소의 판결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²⁸⁾ 조선에서는 이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일본인 부랑배들의 행태는 지방민들에게 기고만장한 모습 그대로 비쳐졌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정에서는 조희연이 일본공사의 힘을 업고 다시 군부대신직에 복귀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조만간 일본인들이 고종을 살해하고 李竣鎔을 일본에 유학시키고자 한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이준용의 일본유학 운운은 사실상 인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원군 자체가 극력 반대하는 일이었다. 거기에서 폭도의 서울 진공설도 돌았다.²⁹⁾ 이러한 것 모두가 고종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었다.

알려진 러시아 자료에 의하면, 바로 이때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겠다는 발상이 고종측근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스페이에르는 “그 계획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생각하였고, 이범진은 상황이 몹시 다급하다고 하

26) *Ibid.*, p.580.

27) *Ibid.*

28) 《時事新報》, 1896年 1月 23日, 〈閔妃謀殺事件の豫審終結す：三浦以下四十八名無罪放免〉.

The Japan Daily Mail(Yokohama), Jan. 20, 1896, Acquittal of the Officers Arrested in Connection with the Korean Trouble of October 8th.

29) Satow to Salisbury, No. 3, Tokio, Feb. 20, 1896, Hillier to Beauclerk, Inclosure 1, 3 in No. 33, Seoul, Feb. 9, 12, 1896, *F. O. 405-VIII*.

였다는 것이다. 마침내 스페이에르와 웨베르는 이러한 조치가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그 계획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승인을 즉각 요청하였으며, 러시아 당국에서는 이를 승인하면서 러시아 황제도 즉각 자국 군함의 인천 입항을 명하였다는 것이다.³⁰⁾

러시아의 의향을 확인한 고종은 스페이에르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였고, 이로부터 俄館播遷을 위한 예비작업이 은밀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마침내 2월 7일 스페이에르는 고종에게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렸고, 고종은 러시아공사관에 경비병이 배치되었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스페이에르는 다시 이러한 고종의 뜻을 빌려 인천에 정박하고 있던 러시아군함의 제독에게 서울에 수병을 파견하도록 조치하였고, 러시아장교 4명과 수병 100명의 의병의 서울 진공에 대비한 공사관 보호를 명목으로 야포 한대를 이끌고 서울에 들어왔다. 준비가 완료되자 왕과 왕태자는 다음날 이른 아침 궁녀의 가마를 타고 위장하여 가까스로 궁궐을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러시아공사관에 도착한 것은 1896년 2월 10일 7시경이었다.³¹⁾

이 같은 아관파천의 진행과정에는 이범진·이완용 등 친러·친미파 인물들이나 嚴尙宮 및 상궁 김씨 등이 긴밀한 협조를 하였고, 알렌(H. N. Allen, 安連) 등 구미 외교관의 협조도 있었다. 아울러 왕비시해와 단발령 등을 계기로 전국 도처에서 봉기한 의병의 활동은 웨베르가 공사관 보호를 구실로 러시아 수병을 입경시키기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서울에 있던 병력의 상당수가 이들의 진압을 위해 지방에 파견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을미의병 중 규모가 가장 컸던 것으로 알려진 춘천의병장 李昭應은 이범진과 연관이 있던 인물이었고, 이범진 등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충청·황해·경기도의 樞負商과 工兵隊(舊武兵) 등을 궁문앞으로 동원한 것으로 드러난다.³²⁾

30) Lensen, *op.cit.*, pp.582~583.

Hillier to Beauclerk, Inclosure 3 in No. 2, Seoul, Feb. 12, 1896, *F. O. 405-VIII*.

31) 영국 관찰에 따르면 러시아 장교 4명과 수병 100명이 야포 1문을 이끌고 입경했다(Hillier to Beauclerk, Inclosure 3 in No. 2, Seoul, Feb. 12, 1896, *F. O. 405-VIII*).

32) 《日本外交文書》29, 문서번호 360 親露派李範晉等ノ隱謀ニフキ報告ノ件 및 문서번호 361 去十一日事變顛末其後ノ模様報告ノ件.

이렇게 볼 때 아관파천은 ① 위기에 처한 고종이 이범진을 통한 구원요청, ② 조선의 상황에 대한 스페이에르와 웨베르의 판단, ③ 그리고 이들의 보고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일정한 지시와 후원, ④ 의병의 일부와 보부상 등 조선내 여러 집단의 직·간접적인 협조가 따르는 가운데 진행된 것이었다. 다만 러시아 당국의 아관파천에 대한 사전 인지의 여부나 주한공사의 역할, 그리고 고종의 의향이 어느 정도까지 주동적이고 피동적이었는지를 정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스페이에르와 웨베르가 러시아 당국의 훈령을 앞지르는 행동을 했으면서도 그에 대한 본국 정부의 책임추궁을 회피하고자 스스로 역할을 축소하여 보고했다는 주장도 있고, 그와 달리 고종은 러시아공사측보다도 필사적이었으며, 실제로 고종 스스로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피신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³³⁾

이에 관해 스페이에르가 주한 프랑스공사 르페브르(G. Lefevre)에게 언급한 다음의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서울에 도착한 후 나는 조선의 사태를 보고 정말 놀랐다. 한편으로 고종은 대신들의 부당한 요구를 저지할 힘이 없었고, 다른 한편 대신들은 일본공사관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나는 그러한 상황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보고, 이를 시정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나는 대신들을 권력으로부터 몰아낼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고종이 비밀히 궁궐을 떠나 우리 공사관으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고종은 모든 압제로부터 벗어나 대신들을 해임하고 자신의 의향에 따라 새 내각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계획을 직접 고종에게 털어 놓았지만, 이 일을 감행하는 데 그는 주저하는 바가 있었다. 그는 이 일이 실패하여 자신의 처지가 더욱 궁지에 몰리지 않을까 두려워 하였다. 그가 결심을 굳히기까지 나는 수차에 걸쳐 고종이 가장 암담한 처지에 있으며 더 이상 궁궐에 머물러 있으면 그가 매일 암살의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설득하였다. 당신도 아다시피 고종은 죽음을 크게 두려워 한다. 그래서 그는 나의 주장에 응하여 이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을 보았던 것이다(George Alexander Lensen, *Balance of Intrigue: International Rivalry in Korea and Manchuria, 1884~1899*, Tallahassee: University Presses of Florida, 1982, pp.587).

33) Synn Seung-Kwon, <The Russo-Japanese Rivalry over Korea, 1896~1898> (《中蘇研究》5-2(10), 漢陽大 中蘇問題研究所, 1981), 228~229쪽.

한 마디로 요약하면,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한 것은 스페이에르 자신의 구상에 의한 것이라는 뜻이었다. 이것을 역면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아관파천의 진행과정에서 러시아 당국의 일정한 훈령과 지원 등이 있었고, 최종적인 순간 스페이에르와 웨베르의 조선 현지 상황에 대한 판단과 합의에 의해 고종의 아관파천이 가능했음은 물론이다. 아무리 고종이 러시아에 지원을 호소하였다 해도, 러시아 당국 및 조선 현지 공사들의 의향과 적극적 지원이 없다면 아관파천은 당초부터 실현될 수 없는 일이었다.

특히 러시아정부가 ① 두 공사를 함께 서울에 머물게 한 조치, ② 러시아 군함의 인천 입항 지시, ③ 아관파천 전날 100여 명의 수병을 입경시켜 공사관을 경비하게 한 조치, ④ 스페이에르와 웨베르가 수시로 보고하면서 러시아 당국의 훈령을 구한 사실 등은 아관파천에 대한 러시아정부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를 준다. 나아가 아관파천이 실현된 뒤 러시아 당국이 “현상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 등은 최소한 아관파천과 같은 형식의 사태수습 자체를 러시아가 희망하였음을 잘 입증한다.³⁴⁾

3) 친러·친미내각의 성립

(1) 러·일의 반응

아관파천의 성취로 삼국간섭 이래 한반도를 무대로 지속된 러·일의 대립은 일단 러시아의 승리로 귀착되었다. 이후 러시아의 조선지배는 사실상 시간문제나 다름없이 보였다. 그러나 당시의 러시아로서는 시베리아횡단철도가 완공된 이후라면 몰라도 당장에 조선을 병합한다거나 보호국화 하자는 입장이 아니었고, 그럴 능력도 없었다. 이미 영국이 간파하고 있었듯이 러시아는 조선의 병합에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에 대한 제3국 즉 일본의 독점적 영향의 배제에 있었다. 그것은 러시아가 과거 영국의 巨文島占領事件

34) 李致源, 〈露·日の 對立과 高宗의 俄館播遷—을미사변 이후의 조선상황을 중심으로—〉(《정치외교사논총》 14, 韓國政治外交史學會, 1996), 113~131쪽.

(1885~1887)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였고,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착공 이후는 더욱 그러하였다.

사토우(Ernest Mason Satow) 주일 영국공사가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 일 본외상 및 이준용과 나눈 대화에서도 그 점이 잘 드러나고 있다. 즉 이준용이 아관파천으로 인해 러시아가 조선을 병탄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면서 영국의 지원 가능성을 묻자, 사토우는 “조선 병탄은 1886년 영국함대의 거문도 철수 당시의 조건, 즉 조선의 영토보전과 상반되는 것으로 러시아의 목적은 조선의 독립 파괴가 아니라 일본의 독점적 영향력 배제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였다.

아울러 사토우는 “러시아가 조선을 병합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무츠는 파악하고 있다. 러시아는 조선인같이 다루기 어려운 인종을 지배하지 않고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국에 보고하고 있다. 즉 영국은 아관파천으로 “조선이 러시아에 대항하려는 어떤 강국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희망이 성취된 이상, 러시아는 조선에서 특수 권익을 확보하여 영국과 일본의 반발을 사기보다는 일본과의 관계 조정을 우선시 하고 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³⁵⁾

아관파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향후의 조선에 대한 방침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러시아는 아관파천에 대해 결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공식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를 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아관파천의 현상을 유지하자는 것이 희망 사항이었다. 이후 러시아 당국의 대조선 방침의 맥락은 ① 일본의 독점적인 조선지배를 저지하여 조선을 일본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② 적어도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완성까지는 명목상이나마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게 하여 타국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선에서 유지되어 갔다. 이 점은 상황이 불리해진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러·일은 조선문제에 관하여 종래와 같은 ‘실력행사’, 예컨대 왕비시해와 아관파천과 같은 무력을 앞세운 대응을 보류하고 외교적

35) George Alexander Lensen, *Korea and Manchuria between Russia and Japan 1895~1904: the Observations of Sir Ernest Satow*(Tallahassee, Florida : the Diplomatic Press, 1966), p.62.

타협을 모색하였다. 러시아 당국이 이렇게 조선문제를 놓고 일본과 타협하자는 방침을 굳히는 과정에서 조선과 일본주재 러시아 외교관 및 군사전문가들의 견해가 반드시 일치했던 것은 물론 아니다. 앞서부터 이들은 조선문제의 처리를 놓고 각기 본국 정부에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첫째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조선을 보호국화 하는 것, 둘째 조선을 아예 병합하는 것, 셋째 일본과 타협하여 일정한 이권을 허용하는 대신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주도적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조선의 현상을 유지시키는 것 등이 그것이었다.

서울의 스페이에르와 웨베르는 고종의 러시아공사관 체류로 인해 야기될지 모르는 조선 내외의 비판적 여론을 우려하여 표면적으로는 조선 내각의 구성에도 관여하기를 꺼렸다. 당시 각국은 러시아가 조선 내정에 개입하는가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3월초에 이르기까지 단발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조지 외에는 종래 일본에 의한 개혁 중 취소된 것이 없었고, 러시아공사도 내정 개입을 피하고 있었다. 이후 러시아공사는 왕비시해사건의 수사에 미국인 고문 그레이트하우스(Clarence R. Greathouse, 具禮)를 참여시키고, 영국인 재정고문 브라운(John McLeavy Brown, 柏卓安)에게 조선의 재정 운영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등, 영·미 모두를 만족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³⁶⁾

그들은 그러나 이 같은 표면적 행동과 달리 아관파천의 호기를 적극 이용하자는 입장이었다. 일례로 아관파천 직후 스페이에르는 러시아의 지원을 갈망하는 고종의 요청을 내세워 본국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거듭 촉구하고 있었다. 즉 조선 내각에 배치할 러시아 고문의 파견과 재정의 원조, 조선군의 조직을 위한 지원 요청 등이 그것이다. 물론 러시아의 재정고문 파견 및 재정 지원, 조선군 조직 등에 관해 고종의 요청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고종은 일본에 대한 극도의 공포로 인해 러시아의 의도에 대해서는 미처 경각심을 갖지 못하였고, 그럴만한 여유도 없었다.³⁷⁾ 스페이에르나

36) Hillier to Beauclerk, Inclosure 1 in No. 19, Seoul, Mar. 2, 1896, *F. O. 405-IX*; Sill to the Secretary of State, No. 226, Seoul, July 17, 1896, *DUSMK* 등을 참조.

37) Allen to the Secretary of State, No. 10, Oct. 2, 1897, *DUSMK*; Lensen, *op.cit.*, pp.592~593.

웨베르의 이러한 구상은 이노우에가 서울에 부임한(1894년 10월 27일) 이래 취했던 방식, 요컨대 조선정부내 일본인 고문관 배치와 차관의 투여, 조선군의 일본군 예속화 등을 통해 조선 내정을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속박해 가던 방식을 연상시킨다.

한걸음 나아가 스페이에르는 조선의 보호국화까지 주장하고 있었다. 그는 “동아에서의 분규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가 조선의 보호자 역할을 회피한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만일 방관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는 사태가 조선에서 야기된다면, 그때 가서 개입해 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조선이 이렇게 러시아에 달려오는 이상, 이 기회를 이용하면 러시아가 태평양연안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할 것이다. 대신 일본에게 조선의 무역 이익과 재정 분야의 주도권을 허용한다면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는 의견이었다.³⁸⁾

그 외에 일부 군부의 인물들도 아관파천의 호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는 입장이었다. 참모장 알프탄(Al'ftan)이나 아무르관구 사령관 그로데고프(N. I. Grodegov) 등의 주장이 그것이다. 전자는 부동항을 구하기에는 만주보다 한 반도가 적합하므로 조선을 보호국화하자는 것이었고, 후자는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여 동해를 內海로 삼아 그 입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조선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³⁹⁾ 이들은 군사전문가답게 주로 부동항 확보의 문제와 군사전략상의 관점에서 그러한 주장을 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주재 러시아공사 히트로보와 보각(Colonel Vogack)대령은 일본과 타협을 주장하는 쪽이었다. 이들은 일본이 러시아와 타협을 원하고 있고, 조선도 현재로서는 러시아로부터 벗어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견해였다. 즉 일본의 적의를 불러일으키지 않고도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마당에 구태여 일본을 자극하거나 도발적 행동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⁴⁰⁾

38) Lensen, *op.cit.*, pp.592~593.

39) *Ibid.*, pp.592~593.

40) 이때 러시아는 조선에 3,000정의 총을 선물하였고, 로바노프는 이것으로 인해 일본과의 화의적 협의가 방해받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시를 웨베르에게 내리고 있었다(*Ibid.*, pp.591~596).

여기서 본국의 로바노프(A. B. Lobanov-Rostorskii) 외무대신은 “조선 국왕에게 조언을 해 줄 의향은 있지만, 복잡한 조선 내외의 정세에 비추어 조선 정부의 고문이나 군사교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하여 앞서 있는 스페이에르의 제안을 기각하였다.⁴¹⁾ 이어 스페이에르공사는 휴가를 받아 귀국하는 히트로보를 대신하여 일본공사로 발령을 받았고, 다음날 그는 서울을 떠나 일본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이미 멕시코주재 공사로 발령을 받았으나 본국의 훈령에 따라 서울에 대기하고 있던 웨베르는 다시 조선주재 공사로 유임됨과 동시에 특명 전권공사로 승임되었다.⁴²⁾

한편 아관파천으로 인해 조선에서 입지가 강화된 러시아와 달리 일본은 “천자를 빼앗겨 이제 만사가 끝장났다”고 할 정도로 입지가 실추되고 있었다. 일본정부는 러시아의 의도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초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사토우는 일본정부는 아관파천에 관한 러시아의 희망과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일본정부가 알고 있는 것은 “아관파천이 러시아정부의 사전인지 없이 모의되었지만, 러시아정부는 이미 이뤄진 일을 승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⁴³⁾

설상가상으로 왕비시해와 단발령으로 조선의 상하 인심이 일본으로부터 철저히 이반되어 있어 일본은 조선에서 최악의 국면에 처한 형세였다. 이에 일본은 궁궐을 버리고 달아난 국왕의 폐위 운운하면서 환궁을 촉구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일전에 대비한 군비강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조선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타협을 모색하여 갔다.⁴⁴⁾

먼저 일본은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완성 이전에 러일전쟁을 치르고자 하였고, 그에 대비하여 10개년 계획의 군비확장에 박차를 가하였다. 상비군 15만 명과 전시병력 60만 명, 22만 톤의 해군력 달성 목표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드는 비용을 일본은 청국에서 약취한 2억 냥의 배상금과 정부예산의 40% 이상

41) *Ibid.*, p.595.

42)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編, 《舊韓國外交文書》(高麗大 出版部, 1969), 《俄案》1, 문서번호 737, 1896년 2월 28일, 土貝耶公使의 駐日本公使署理 및 韋貝公使의 接任事.

43) Satow to Salisbury, No. 23, Tokio, Mar. 12, 1896, *F. O.* 405~VIII.

44) 위와 같음.

을 매년 투입함으로써 충당하였다. 일본이 청일전쟁 기간 중(1894~95) 투자한 군비에 비해 1896~97년간의 투자예산은 거의 3~5배에 달하였다.⁴⁵⁾

다음으로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협상의 추진은 이 시기에 와서야 시도된 것만은 물론 아니었다. 이미 1895년 12월과 1896년 1월 및 2월초의 아관파천 직전까지도 이토충리나 사이온지외상 등이 꾸준히 러시아에 협상을 제의한 바 있었다.⁴⁶⁾ 이것은 일본의 압제하에 형성된 국왕과 조선정부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인정하자는 것으로서 일본의 ‘사기적’ 성격이 농후한 것이었다. 조선 내 각에서는 일본인 고문관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고종과 대신들은 일본 공사의 꼭두각시와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의 현상을 인정하고 자립하게 하자는 것은 ‘조선보호국화’ 작업을 지속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정부가 스페이에르를 파견하여 아관파천을 성취시킴에 따라 이제는 조선의 보호국화 기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러시아가 조선을 보호국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아가 더 이상 조선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대러협상을 적극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일본은 우선 아관파천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사전인지 여부와 의도의 파악에 주력함과 동시에 협상을 모색하였다. 곧 이어 니시 주리 일본공사와 히트로보 등이 각기 러시아정부의 “사전인지가 없었다”고 알려오자, 일본정부는 일단 러시아의 의도가 조선보호국화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⁴⁷⁾

바로 이상과 같은 배경하에 양국간에 교섭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1896년 4월 15일 서울에서 체결된 웨베르-고무라(Waeber-小村 Memorandum) 覺書였고, 같은 해 6월 9일 모스크바에서 체결된 로마노프-야마가타(Lobanov-山縣 Protocol) 議定書였다. 이들 협약의 내용은 대체로 아관파천의 현상을 인정한 가운데 양국간에 조선 군주의 신변문제와 군사·재정 등에 관해 일정한 한계를 지은 것으로서 그 문맥상 사기성이 그대로 노출되어 보이는 일시적이고도 잠정적인 타협이었다.

45) 信夫清三郎・中山治一 編, 《日露戰爭史の研究》(東京: 河出書房新社, 1959), pp.68~72쪽.

46) Lensen, *op.cit.*, pp.602~603.

47) Satow to Salisbury, No. 23, Tokio, Mar. 12, 1896, *F. O. 405-VIII*.

(2) 조선의 신내각

다른 한편 같은 시기의 조선 조정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가. 아관파천에 성공한 직후 고종이 취한 조치는 ① 친일내각의 교체, ② 단발 시행의 강제성 배제, ③ 의병 해산의 권유, ④ 적체된 貢稅의 탕감, ⑤ 경복궁앞 三軍部에 주재한 일본군 수비대의 철수, ⑥ 춘생문사건 관련자의 석방 등이었다.

먼저 아관파천 당일 공표된 내각의 구성은 김병시(총리)·이재순(궁내부대신)·박정양(총리대신서리 겸 내부대신)·조병직(법부대신)·이완용(외부대신겸학부·농상공부대신서리)·이윤용(군부대신)·안경수(경무사대신)·윤용구(탁지대신) 등이었고, 같은 달 12일에 윤치호(학부대신서리 겸 학부협판), 22일에 이범진(법부대신)·조병직(농상공대신) 등이 등장하였다.⁴⁸⁾ 대체로 초기에는 정동파 인사, 그 중에서도 친미파 인물들이 전면에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친러파 인물로 볼 수 있는 자는 이윤용 한 사람 뿐이었고 친러파의 핵심인물인 이범진은 10여 일 뒤에야 기용되고 있다.⁴⁹⁾

따라서 아관파천 직후의 내각은 친러파 인사가 중심을 이룬 친러내각이라기 보다는 친미파가 중심을 이룬 ‘친미반일적’ 내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친미파 인물들이 전면에 부각된 배경에는 이들이 아관파천에 협조적이었던 점에도 있지만, 러시아의 의도도 있었다. 즉 친일파가 아닌한 가급적 다양한 인물을 기용토록 하여 러시아가 조선 내정에 깊이 개입한다는 인상을 지움과 동시에 아관파천으로 인해 야기될지도 모를 열국의 비난을 미연에 방지코자 한 것이었다. 과거에 일본이 조선 내정에 독점적 개입을 시도하다 오히려 열국의 견제로 낭패를 보았던 일을 웨베르 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⁵⁰⁾ 이러한 러시아 당국의 방침하에 한동안 현지의 공사 웨

48) 《舊韓國官報》, 건양 원년(1896) 2월 11일~3월말까지의 敍任及辭令.

49) 貞洞派 및 親美派의 구분에 대해서는 柳永益, 앞의 책, 49·179·184쪽 및 韓哲昊, 〈甲午更張中(1894~1896) 貞洞派의 改革活動과 그 意義〉(《國史館論叢》 36, 國史編纂委員會, 1992)를 참조.

50) Sill to Olney, No. 195, Seoul, Feb. 16, 1896, *DUSMK*; Harrington Fred Harvey, *God Mammon and the Japanese: Dr. Horace N. Allen and Korean-American Relations, 1884~1905*(Madison, Wisconsi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44), pp.307~308.

베르를 통해 투영된 일부의 현상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이 희망하는 내정개혁의 추진이나 자주독립을 고창하는 것을 성원하는 일이었다. 적어도 아관파천기에 독립협회의 창립을 성원하거나 독립신문의 발간, 독립문 건립운동 등에 러시아공사가 기부금을 내는 등 조선정부에 협조적 자세를 취하였던 것은 바로 이 같은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독립협회의 인물이나 주한외교관들의 보고, 비숍(Isabella Bird Bishop) 등의 저술에서 그 시기에 조선의 재정·재판·교육제도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서광이 보였다”고 한 것은 바로 위와 같은 러시아의 대한방침에 의해 잠시나마 갖게 된 외압의 상대적 공백으로 인한 현상이다.⁵¹⁾

둘째, 지나치게 반일적이거나 과격한 인물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나 열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나 거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아관파천의 수행과정에서 조선의 핵심인물이자 친러파였던 이범진이 이로부터 한 달도 안되어 불리한 입장에 몰리고, 마침내 주미공사로 발령받아 서광법과 교체된 것은 일본의 공작 등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과거 일본의 경험을 직시한 웨베르의 판단도 적지 않게 작용하였다.⁵²⁾

셋째, 일본이 아닌 한 다른 나라의 인물들을 조선 각부의 고문으로 고빙하는 것을 권장하는 일이다. 영국인 재정고문 브라운이 고종의 지시로 조선의 재정을 조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것, 미국인 고문 그레이트하우스가 법부고문으로서 왕비시해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고, 또한 재판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던 것 등도 웨베르의 이 같은 방침에 의해 어느 정도 보장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을 제외한 각국에 철도·광산·삼림·어채 등 각종 이권이 허용된 것은 웨베르의 위와 같은 방침과 무관하지 않았다. 아관파천의 부작용이었다.⁵³⁾

51) Isabella Bird Bishop, *Korea and Her Neighbors*(Shanghai: Kelly and Walsh Ltd, 1897; Reprint,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70), pp.397~398, 435~444.

52) Sill to Olney, No. 224·226, Seoul, June 23, July 17, 1896, *DUSMK*. 특히 李範晉이 駐美公使로 밀려난 배경에 대해서는 方善柱, 〈徐光範과 李範晉〉(崔永禧先生華甲記念《韓國史學論叢》, 探求堂, 1987), 444~447쪽 참조.

53) 《尹致昊日記》4, 1896년 3월 3일.

Sill to Olney, No. 195·224·226, Seoul, Feb. 16, June 23, July 17 1896,

다음으로 정부에서는 종1품 申箕善과 종2품 李道宰를 각기 南路宣諭使와 東路宣諭使로 파견하여 의병의 해산을 권유하는 조칙을 내렸다. 그 내용은 의병의 봉기가 국모시해에 대한 설분을 위해, 그리고 군부의 위협과 단발 강행에 대한 격분으로 일어난 명분있는 봉기였음을 인정하면서 각기 해산하여 생업에 종사하라는 것과 의병의 봉기로 인해 지방에 파견된 군대의 즉시 귀환을 명한 것이었다. 아울러 그 동안 의병봉기의 중요한 단서이기도 했던 단발문제는 각자의 편의에 따르도록 한다는 내부대신의 훈시를 내렸다.⁵⁴⁾

그 다음으로 정부에서는 그 동안 광화문 앞의 삼군부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 수비대의 이전을 거듭 재촉하였다. 러시아공사 스페이에르도 주한 일본공사 고무라 슈타로(小村壽太郎)에게 이 문제를 언급하여 조선정부를 거들었다. 이에 고무라는 “이전할 적당한 장소가 없다”거나 “자국 공사관과 거류민 보호를 위해 급히 철수할 수 없다”고 구실을 대었다. 내심으로는 ‘서울에서 제일 좋은 장소’를 내어 줄 경우 러시아 병사가 이곳을 차지하지 않을까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이 수차 재촉함에 따라 일본은 마침내 그들 수비대 병력을 일본인 거류지 부근의 糧餉廳과 일본인 소유 가옥 2개소로 이전시키게 하였다. 조선으로서는 장차 일본군의 철병을 요구할 근거로 삼고자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⁵⁵⁾ 어쨌든 그 동안 자국거류민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일본군이 조선의 正宮으로 이어지는 길목을 장악하고 있었으니 저간의 사정이 어떠했을지는 상상을 불허한다.

기타 춘생문사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수감자들의 석방과 그 동안 적체된 미수·미납의 공세 등을 탕감한 것 등은 일본의 압제에 의해 어지러워진 민심 수습책의 일환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일본에 대한 간접적 항의였다.

이 시기 조선 조야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을까. 일본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것과는 정반대였다. 고종의 아관파천 직전 조선 전역의 상황을 둘러보고 서울에 도착한 러시아장교 카르네프대령과 그 일행의 보고가 이점

DUSMK; Hillier to Beauclerk, No. 46, Inclosure 1 in No. 58, Mar. 24, Apr. 15, 1896, *F. O. 405-VIII*; Bishop, *op.cit.*, pp.397~398, pp.435~444.

54) 《駐韓日本公使館記錄》9 (國史編纂委員會, 1993), 164쪽.

55) 《駐韓日本公使館記錄》9, 157~159쪽 및 168쪽.

을 잘 보여준다. 의병이 점령하고 있던 한 두개의 지역을 이들이 방문했을 때 의병들은 그의 국적을 확인한 후 정중히 대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고 한다. 첫째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것, 둘째 만나는 일인은 모두 처형하고자 한다는 것, 셋째 단발령에 불복하며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권리를 처형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⁵⁶⁾

반면 그 당시 전국 각 지역(원산 제외)에서 피살된 일인 수는 약 40명으로 집계되고 있었다. 아관파천 자체는 환영할 일이 못되지만, 러시아에 대해서는 일본의 압제로부터 국왕을 보호해 주고 있다하여 조선의 조야는 한동안 호의적이었던 것이다.⁵⁷⁾ 을미사변에 대응하여 반일 의병봉기가 발생한 반면, 아관파천에 대하여 반러 의병봉기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러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종의 아관파천 자체에 대한 일반의 반응은 물론 부정적이었다. 고종이 일본의 간섭을 벗어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한 사실 자체는 국체를 손상하는 일이었고, 또 다시 외세의 간섭을 유발할 소지가 컸기 때문이다.

이후 조선정부의 군사·재정에 관한 지원요청에 대해 러시아가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게다가 웨베르 측근 인물들의 득세와 전횡으로 인해 조정 내외에 비판여론이 일게 되면서 호의적이었던 러시아에 대한 감정은 점차 부정적으로 변해 갔다. 그에 따라 고종의 환궁문제도 점차 절실한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일본 또한 이러한 변화를 틈타 그 동안 조선에서 실추된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 외교와 언론, 기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선내에 러시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를 기도하면서 환궁공작을 펴나갔다.

56) 1895~1896년 사이 한국을 여행한 러시아 장교는 ① V. P. 카르네프 육군대령과 그의 보좌관 미하일로프, ② V. A. 알프탄 육군중령 등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중 카르네프의 기록에는 ‘동학의병’ 및 지방민과의 遭遇에 관한 것이 다수 실려 있다. 영국측의 기록에 보이는 러시아장교란 바로 카르네프·미하일로프·알프탄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Hillier to Beauclerk, Inclosure 1 in No. 58, Seoul, Apr. 15, 1896, *F. O. 405-1896*; 카르네프 외 4인 지음, A. 이르제바예브·김정화 옮김, 《러시아첩보장교 대한제국에 오다》, (주)가야미디어, 1994).

57) Hillier to Beauclerk, Inclosure 1 in No. 58, Seoul, Apr. 15, 1896, *F. O. 405-1896*

4) 고종의 환궁

(1) 러시아 군사교관의 초빙

아관파천 이후 조선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문제의 하나는 고종의 환궁이었다. 비록 만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빚어진 것이기는 하더라도, 일국의 군주가 남의 나라 공사관으로 피신해 간 것은 결코 정상적이며 온당한 일이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아관파천 직후로부터 고종의 환궁을 요청하는 상소도 상하로부터 쇄도하고 있었다. 이들이 당시에 느꼈던 심정은 前主事 尹孝定 등의 다음과 같은 상소에 잘 드러난다.

아야! 지난 8월 20일의 일을 어찌 차마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안으로의 화란과 외부의 기세가 서로 뒤엎혀 만고에 없었던 큰 변괴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온 나라의 하늘에 머리를 두고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이라면 뉘라서 피눈물을 뿌리고 울음을 삼키며 우리 國母의 원수를 갚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폐하께서 外館으로 나가신 것은 한때의 임기응변이며 만부득이한 지경으로 빚어진 것이었으나, 절대로 정상적이며 온당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民情이 황망하고 國體가 위태롭게 된 것을 어찌 한두 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의 安危의 대관건은 폐하께서 돌아오시는 날짜의 지속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폐하에게 바라노니 안으로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동요를 깊이 걱정하시지 말고 밖으로는 틈을 엿보는 강대국을 너무 염려하지 말아서, 여론을 살피시고 곧장 환어하시어 종사를 편안케 하고 민심을 안정시키소서(《駐韓日本公使館記錄》 9, 162~163쪽).

그러나 고종이 환궁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주장과 어느 시기에 어떻게 환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현실적 여건 사이에는 괴리가 컸다. 바로 2년전의 청일전쟁 당시 그리고 얼마전 을미사변 당시의 처참했던 조선 조정의 경험은 고종이 환궁하지 못하는 이유를 구구히 나열할 필요조차 없게 한다. 아무런 군사적 대책도 없이 고종에게 환궁을 하라는 것은 조선에서 날뛰는 일본인패들에게 최후의 날을 맞아 왕비의 전철을 밟으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비록 고종은 가까운 시일내에 환궁하겠다는 형식으로 비답을 내리고는 있었지만, 정부 당로자들의 입장에서는 환궁 이후 국왕의 안전을 책임질 현실적

대책의 수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고종의 환궁 이전에 조선정부로서 구비해야 할 일이란 분명하였다. 아관파천에 의해 조선이 가까스로 일본에 의한 보호국화의 위기를 모면했다고는 하지만, 조선으로서는 무엇보다 군사·재정문제의 대책이 시급하였다.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습격과 1895년 재차의 경복궁 습격 및 왕비시해 당시의 상황을 통해 드러나듯 조선군의 전투력은 서울 주둔의 일본군을 상대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 피신했던 당시 조선군의 숫자는 서류상 약 7,500명, 실제로는 약 4,000명 정도의 병력 중 일부가 서울의 치안과 궁성의 수비를 담당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무기까지 보잘 것이 없었으니 당시 조선의 군대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⁵⁸⁾

아울러 1895년 소위 내정개혁의 명분하에 일본이 제공한 차관 300만 엔의 이자·상환·담보 등의 가혹한 조건은 가뜩이나 재정난에 처한 조선정부의 심장을 압박하는 것이었다. 아관파천 직후 고종의 내밀한 명을 받은 브라운이 정부 재정을 조사한 결과 파산직전이었다고 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영국공사도 지적했듯이 이노우에가 조선에 들여놓았던 대일차관 300만 엔은 1년도 채 안되어 정부 재정의 악화와 파탄을 초래한 주요인의 하나였다. 이처럼 고종의 환궁과 재정·군사의 문제는 아관파천 직후의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이고도 시급히 해결을 요하는 조선의 과제였다.

다시 말해 이미 각계 인사들의 상소에서 드러나듯 아관파천은 국가의 위신에 관련된 것이었고, 현실적으로는 러시아의 내정간섭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배태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종이 환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궁궐을 경비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할 만한 병력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재정도 필요하였다. 과거에 훈련대 소속 조선군이 일본교관에 의해 훈련받아 민비시해사건에 어떻게든 이용되었던 사실은 신뢰할 만한 병력의 구비를 절실히 요하였다. 그 밖에도 자국 공사관 및 거류민 보호 등을 구실로 서울에 주둔

58) Captain Mercer, R. M. L. I., to Jordan, Inclosure 2 in No. 97 Seoul, June 11, 1897, *F. O.* 405-X.

러시아大藏省 編, 崔 璇·金炳隣 譯, 《韓國誌—本文篇》(韓國精神文化研究院 資料調査室, 1984), 678~681쪽 및 707쪽.

하고 있던 약 500명의 일본군 병력은 현실적으로 상존하는 위협이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적절한 기회가 조선에 주어졌다. 러시아에서는 1896년 5월 26일에 거행되는 니콜라이 2세(Nikolai II)의 대관식에 세계 20여 개 국의 사절을 초청하였다. 이때 청국에서는 李鴻章을, 일본에서는 초슈(長州) 출신의 원로인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를 특사로 파견하였다. 전자는 러시아가 동청철도의 부설권 획득을 위해 비밀 교섭의 상대자로 내정한 자였고, 후자는 조선문제에 관한 일본과의 회담 상대자였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조선의 사절 파견도 요청했던 바 조선에서도 閔泳煥을 특사로 파견하였다. 이후 조선과 청국, 일본은 각기 비밀리에 러시아와 교섭을 진행하였다. 이때 민영환은 다음과 같은 5개항을 러시아에 요청하였다.⁵⁹⁾

1. 만족할 만한 수준의 조선 군대가 창설될 때까지 국왕의 호위를 러시아 군대가 맡아줄 것.
 2. 군사와 경찰의 훈련을 위해 다수의 교관을 파견해 줄 것.
 3. 내각과 산업 및 철도 분야를 지도할 고문을 보내줄 것.
 4. 3백만 엔의 차관을 허용해 줄 것.
 5. 조선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전신선 설치에 동의해 줄 것.
- (《尹致昊日記》 4, 1896년 6월 6일).

이상에서 보듯이 민영환특사의 요청에는 고종의 신변보호, 친위대 양성문제, 군사교관 및 재정고문 파견, 차관제공, 전신선 가설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도 민영환특사가 가장 집요하게 추구했던 것은 군사교관과 차관의 제공문제였다. 전자는 환궁에 대비하여 고종의 신변보호를 위한 친위대의 양성과 연관된 것이었고, 후자는 대일차관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민영환의 요청에 대해 이를 수용하기를 꺼렸다. 이미 러·일간에는 조선의 군사와 재정 등에 관해 상호 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비밀협정을 체결한 상태였다. 따라서 러시아로서는 구태여 이를 위배하면서까지 조선에서 독점적 지배를 기도할 처지도 아니었고, 그러한 의향도 당시로서는 없었다. 조선에 대해 적극적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59) Lensen, *op.cit.*, pp.649~650.

요컨대 조선의 다급한 입장과는 달리 러시아는 이 문제를 영국·청국·일본 등과의 관계를 우선한 동아시아정책의 차원에서 고려하였고, 조선과의 관계는 그 다음 차원에서 고려하였다. 자연히 러시아의 태도는 소극적이었다. 그 중에서도 차관제공에 대해서는 가장 소극적이었고, 일부나마 실효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군사교관의 파견문제였다. 당초 민영환은 200명의 군사교관의 제공을 희망하였지만, 영국·일본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러시아의 난색으로 그 수는 대폭 삭감되었다. 러시아로서는 영국·일본의 의혹을 피하면서 장래의 사태 변화에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무리가 없는 방안으로서 택한 조치였다.

이후 전과정은 대체로 고종의 환궁을 위한 작업으로 점철되어 갔다. 최초의 군사교관 파견에 관한 니콜라이 2세의 재가가 내려진 것은 1896년 8월초였다. 그러나 군사교관을 파견하기 이전에 러시아는 조선의 군사·재정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위의 군사전문가로서 스트렐비츠키(Strelbitzky)대령을, 재정전문가로서는 전 북경공사관의 통역이자 상해의 露淸銀行長인 포코틸로프(Pokotilov)를 파견하였다.⁶⁰⁾ 앞서 러시아 외부대신 로바노프가 탁지부대신 위테(S. Iu. Witte)에게 탁지부관리를 조선에 파견하여 차관문제를 조사할 것을 의뢰한 바 있고, 군부대신 반노프스키(P. S. Vannovskii)에게는 궁궐 수비대의 조직과 군사고문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룰 인물의 파견을 요청한 바 있었으니 이것은 바로 그의 귀결이었다.⁶¹⁾

이후 군사교관단의 파견 임무를 부여받은 군사전문가는 뿌차타(Putiata)대령이었다. 그는 북경주재 러시아공사관의 무관을 지냈고 야마가타의 모스크바 방문시 러시아의 수행참모역을 한 바 있다. 뿌차타는 현지에서 러시아 군사교관에 의한 조선군의 훈련과 조직 등에 관하여 형식상으로는 전권을 위임받은 셈이었다. 이들 교관단의 장교·하사관 모두가 조선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고용되었지만, 뿌차타만은 조선정부에 고용된 것이 아니었다. ⁶²⁾

60) Romanov, B. A. *Russiya y Manchzhurii 1892~1906*(Leningrad : Enukidge Oriental Institute, 1928) ; Susan Wilvour Jones tr., *Russia in Manchuria 1892~1906*(Ann Arbor, Michigan : J. W. Edwards, 1952), p.109.

61) Lensen, *op.cit.*, p.652.

62) Jordan to MacDoNald, No. 25, Seoul, March 10, 1897, *F. O. 405-X* ; 그의

뿌차타는 출발전 고종의 신변경비와 조선군의 훈련을 위해 필요한 러시아군의 파견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그가 파견을 요청한 군사의 수는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던 조선내 주둔 일본군과 같은 수인 800명이었다. 그러나 그의 요청은 로바노프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보류되고 있었다. 로바노프는 군부대신 반노프스키나 뿌차타의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상황이 좀더 명료해진 뒤에야 군사교관의 파견이 가능하다는 입장에 이를 보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부의 주장을 견제하던 로바노프가 갑자기 사망하자 군부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확대되었다.

로바노프가 사망한 것은 민영환특사가 귀환중이던 8월 31일, 사행이 로바노프를 작별한지 약 2주만이였다. 민영환과 동행했던 뿌차타는 하바로프스크에 이르러 급한 일로 뒤에 남았다가, 뒤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민영환 일행과 다시 합류하였다. 러시아가 13명의 군사교관을 출발시키기로 한 것은 민영환특사가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한 바로 그 직후였다. 즉 민영환과 합류한 뿌차타는 거기서 러시아 당국에 군사교관을 출발시킬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그들은 군사교관들과 동행하게 되었던 것이다.⁶³⁾

한편 군사교관의 출발에 앞서 러시아 외무차관 람스도르프(V. N. Lamsdorf)는 주일공사 스페이에르에게 러시아의 이러한 결정에 관해 일본외상에게 통보하도록 지시하였다.⁶⁴⁾ 그러니까 로바노프가 사망한지 5일 뒤로서 러시아 군사교관의 파견에 관한 일종의 통보였다. 그 내용은 교관단의 역할이 환궁 이후 궁궐을 경비할 군사의 양성에 국한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상을 놓고 볼 때 열국의 의혹을 우려한 러시아는 조선의 거듭된 요청 및 러시아 군부의 주장, 그리고 일본과의 웨베르-고무라 각서,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의 내용을 세심하게 고려한 뒤 공식적으로 교관단을 파견한 셈이었다.

결국 민영환특사가 러시아로부터 확보한 가시적 결과관 이처럼 뿌차타 일

부임에 필요한 경비는 민영환이 지불했다(《尹致昊日記》4, 1896년 8월 4일~7일).
63) 《尹致昊日記》4, 1896년 9월 4일.

Lensen, *op.cit.*, p.652.

閔泳煥, 〈海天秋帆〉(國史編纂委員會 編, 《閔忠正公遺稿》, 探求堂, 1958), 121·129·132쪽.

64) Lensen, *op.cit.*, p.652.

행 13명의 군사교관 초빙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조선·러시아·일본·영국 모두에게 중대한 사안이었다. 왜냐하면 이들의 조선군 훈련은 고종의 신변 보호와 직결됨은 물론 조선군의 조직문제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였기 때문이다. 고종의 신변 보호라면, 곧 군주의 신변 장악을 통해 조선의 정치력을 장악하는 것이고, 조선군의 조직이라면 그것은 장래 조선 전지역의 러시아 요새화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소수나마 군사교관의 파견은 조선의 정치·군사적 주도권을 장악할 손쉬운 방법이었다.

자연히 이에 대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일본이다. 뿌차타 일행의 파견이 앞서 체결된 러·일간의 협정(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과 모순되는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기 의정서의 제2조, 즉 “일본·러시아 양국 정부는 조선의 재정 및 경제 상황이 허용하는 한 외원에 의하지 않고 내국의 질서를 유지하기에 족할 정도로 내국인으로 조직되는 군대 및 경찰을 창설하고 이를 유지하는 일을 조선에 일임하는 것으로 함”을 말한다.⁶⁵⁾ 그러나 앞서 람스도르프에 의한 러시아의 공식적 통보와 일본의 소극적인 반응을 놓고 볼 때, 뿌차타 일행의 파견에 대해 일본이 별달리 쟁점화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고종의 환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러시아의 해명과 일본 역시 환궁에 필요한 궁궐 경비병의 양성이라면 문제삼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인 데서 잘 드러난다.⁶⁶⁾

(2) 궁궐 경비병의 확보와 고종의 환궁

귀국중이던 민영환 일행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 군사교관단과 합류하여 1896년 10월 21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이들 교관단은 뿌차타대령 외 13명으로, 위관 2명, 하사관 10명, 군의관 1명이었다. 뿌차타는 조선 현지에서 러

65) 外務省外交史料館 編, 《日本外交史辭典》(大藏省印刷局, 1979)의 〈附錄〉, 24쪽; 《日本外交文書》29, 문서번호 478 山縣大使露國トノ議定書成立シタル旨報告ノ件, 817~818쪽을 참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日·英·佛·露·韓文 모두 약간씩 다르다. 日本의 자료 공개과정에서 약간씩 달라진 흔적이 분명히 감지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李玟源, 앞의 책, 78~87쪽을 참조.

66) Jordan to MacDonald, No. 87, Seoul, Oct. 27, 1896, Inclosure in No. 71, Seoul, Mar. 19, 1897, *F. O. 405-X* 등을 참조.

시아 군사교관단에 의한 조선군의 훈련과 조직 등에 관하여 형식상으로는 전권을 위임받은 셈이었다. 뿌차타는 조선에 도착한 이래 줄곧 조선의 군부와 조선군 조직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였다. 조선 군부에서는 군사교관단의 도착 즉시 이들이 조선군 2,200명의 훈련에 들어가기를 희망하였지만, 러시아 당국의 유보 지시에 따라 이들은 잠시 조선군의 현황 파악과 훈련계획안 마련에 주력하였다.⁶⁷⁾

이 과정에서 주한 러시아공사 웨베르와 뿌차타의 갈등이 있었다. 특히 웨베르는 다혈질인 주일 러시아공사 스페이에르의 성향과 대비되어 러시아 당국의 신임까지 상실하여 가고 있었다. 또한 군사교관들이 민영환을 군부대신직에 기용하기를 희망한 반면, 이를 반대한 웨베르는 조선내에서 민영환 등의 지지도 점차 잃어 사면초가의 신세가 되었다.⁶⁸⁾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는 러시아 당국의 외부·군부간의 이견을 반영한다.

즉 뿌차타는 러시아 당국, 특히 군부의 입장에 가까웠고, 조선에서 궁궐 경비병의 양성 정도가 아니라 정규의 조선군 조직을 크게 확대하고자 구상하였음이 분명하다. 반면 러시아 외부의 지시를 받던 웨베르는 조선 정계 내외의 사정과 조선에서의 영국·일본·미국 외교관들의 관계를 익히 숙지하고 있던 입장에서 영국·일본 등의 간섭을 우려 환궁 이전까지는 가급적 조심스런 행동을 취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러시아 언론으로부터는 너무 親韓的이라 하여, 조선 현지의 군사교관단으로부터는 비협조적이라 하여, 조선정부로부터는 러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리고 실망시켰다 하여 비난받았다.⁶⁹⁾

이후 러시아 당국이 조선군 훈련에 대한 유보 지시를 철회하여, 마침내 이를 착수해도 좋다는 승인을 한 것은 10월 27일이었다. 약 2천여 명의 훈련을 희망하는 조선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이들 교관은 조선군 중 1개대대의 병력 800명을 선발, 정예화를 꾀하였다.⁷⁰⁾ 아관파천 이전까지 조선군 훈련대

67) Jordan to MacDonald, Inclosure 1 in No. 3, Seoul, Nov. 11, 1896, *F. O. 405-X*.

68) Jordan to MacDonald, No. 89, Seoul, Nov. 14, 1896, *F. O. 405-X*.

69) 《尹致昊日記》4, 1896년 7월 17일.

O'Connor to Salisbury, No. 39, St. Petersburg, Sep.24, 1896, *F. O. 405-IX*.

Jordan to MacDonald, No. 89, Seoul, Nov. 14, 1896, *F. O. 405-X*.

70) Lensen, *op.cit.*, p.653.

가 일본식의 군사교육을 받고 일본교관의 지휘를 받았던 것과 달리 이제 궁궐을 경비하게 될 조선군은 모두 러시아식을 따르게 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러시아의 교관단이 도착했을 당시 조선군의 현황은 서류상 중앙군과 지방군을 합쳐 모두 7,500명 정도였다. 이 중 지방군 2,500명 정도는 유명무실한 것이었고, 중앙군 4,000명도 소요로 인해 지방에 내려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겨우 반수에 해당하는 군사만이 중앙에 있었다. 그나마도 중앙군의 훈련상태나 무장·피복·부식 등은 매우 빈약하여, 당시 외국인 군사전문가의 파악에 의하면, 경찰로서의 구실도 못할 형편이었다.⁷¹⁾ 그러나 뿌차타대령 외 13명의 러시아 교관단이 조선에 온 뒤 성과가 나타났다. 뿌차타는 기존의 군대에서 장교(25명), 하사관(67명), 병사(800명)를 선발하여 연대를 조직한 뒤 곧바로 훈련에 들어갔다. 연대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⁷²⁾

러시아 교관하의 조선군 연대편성 상황

연대참모(Staff Regimental)	인원수	연대소속 장병(Regimental Duty)	인원수
정령(Colonel)	1명	정위(Captain)	5명
부관(Adjutant)	1명	부·참위(Lieutenants)	20명
향관(Paymaster)	1명	하사관(Non-commissioned officers)	67명
		병(Rank and file)	800명

위의 大隊(800명)은 5개 중대로 나누어 각 중대(160명)에 두 명의 러시아교관을 배치하고 만주에서 온 통역들을 배치하였다. 조선군은 장교일지라도 러시아 하사관의 하위에 있었다. 러시아 장교·하사관은 대대의 대열에 편성됨이 없이 엄격하게 교관으로서 감독하는 역할만을 유지하였다. 러시아장교들은 교련을 관장하고, 그 외 대대의 경리부분을 관리하였다. 러시아 장교들은

71) Jordan to MacDonald, Inclosure 1 in No. 3, Seoul, Nov. 14, 1896, *F.O. 405-X*; Captain Mercer, R. M. L. I., to Jordan, Inclosure 2 in No. 7 Seoul, June 11, 1897, *F.O. 405-X*.

러시아大藏省 編, 《韓國誌-本文篇》, 678~681쪽 및 707쪽.

72) Captain Mercer, R. M. L. I., to Jordan, Inclosure 2 in No. 97 Seoul, June 11, 1897, *F. O. 405-X*.

교관단장에게만 예측되었으며 조선의 군부대신과 직접 업무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⁷³⁾

그러니까 각 러시아교관마다 80명의 훈련병이 딸린 셈이었다. 이들의 무기는 물론 러시아로부터 공급되었다. 아관파천 직후에 이미 조선정부에서는 러시아정부에서 제공한 소총 3,000정과 60만 발의 실탄을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인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제 종래의 구식 레밍턴(Remington) 및 기타 다른 소총 대신, 러시아에서 들여온 약 300정의 베르당(Berdan) 소총이 왕궁경비병에게 우선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다른 병사에게 지급되었다.⁷⁴⁾

첫 3개월은 매일 8시간씩 훈련받았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4시에서 오후4시 사이였다. 한편 3개월 뒤로부터 이들의 근무시간은 매일 6시간이었다가 5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경비병들의 첫 임무는 초소와 궁궐 경비였다. 1개 중대가 매일 궁궐을 경비하였고, 비변인 병사들은 훈련을 받았다. 이들은 보초 임무와 체력 훈련 및 분대·중대·대대 단위의 훈련과 소총 사격술을 배웠다. 10월에서 12월말까지 약 3개월에 걸친 훈련을 통해 이들의 수준은 전보다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완벽하게 기획된 것은 아니었다. 다른 연대의 훈련은 시도하지도 못하였고, 이들을 교대로 채우는 방식이었다. 히멜레프(Lieutenant Hmeleff)에게 훈련받은 조선군 장교를 활용하여 모든 명령어는 러시아말로 했지만 이들은 모두 잘 알아들었다. 이들은 주로 서울이나 근교에서 농사를 짓거나 노동하던 사람들로부터 모집한 병사였다.⁷⁵⁾

이들 연대의 막사는 궁궐로부터 약 4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고, 러시아 교관들의 숙소는 궁궐내에 있었다. 궁궐 주위에는 46개의 초소가 있었다. 이렇게 종래와 달리 엄격한 훈련을 받은 조선군이 그나마 궁궐 경비임무를 수행할 정도가 된 것은 그해 12월 말경이었다.⁷⁶⁾

이렇게 조선군을 양성한 러시아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뿌차타는 이 시기에 조선군대의 조직을 위한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군사

73) 러시아大藏省 編, 《韓國誌—本文篇》, 679쪽.

74) Captain Mercer, R. M. L. I., to Jordan, Inclosure 2 in No. 97 Seoul, June 11, 1897, *F. O.* 405-X.

75) *Ibid.*

76) *Ibid.*

교관의 파견도 장기적으로는 조선군대의 러시아화를 통한 보호령화의 우회로를 추구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13명 교관의 규모와 역할, 그리고 양성한 병력의 숫자로 보건대 당시로서는 궁궐 경비를 위한 조선군의 양성에 치중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즉 고종의 환궁이전까지는 주로 국왕의 근위병 양성, 요컨대 정치적 성격의 군병력 양성에 목표를 둔 것이었고, 그것은 환궁이후로도 러시아가 조선에서 타국(주로 일본)에 비해 유리한 입지를 확보해 두고자 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사실상 조선의 국방 목적을 위한 정규의 군대 조직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고, 그것은 영국·일본의 반발과 차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성질이였다. 이에 관해서는 민영환특사가 러시아에 체류 중 外部の 아시아국장 카프니스트(Kapnist)가 했던 언질이 시사하는 바 크다. 그는 국왕 보호와 군대의 조직은 별개의 문제이고, 러시아 당국은 이 문제를 국지적 차원이 아닌 세계정책 내지는 동아정책의 차원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었다.⁷⁷⁾ 이것은 곧 국왕 보호를 위한 지원은 국지적 차원이니 별다른 문제없이 수행이 가능하지만, 국방을 목적으로 한 조선군대의 조직은 성격을 달리하므로 러시아측이 신중을 요한다는 의미였다.

나아가 러시아는 조선 조야의 환궁 여론과 일본의 이면공작, 기타 열국이 주시하던 사정을 감안해 볼 때 환궁이 불가피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기왕 환궁이 불가피할 바엔 조선에서 최소한 정치적 우위권 만큼은 유지하자는 것이었고, 그것은 러시아 군사교관의 파견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고종을 러시아공사관에 묶어 두는 것이 조선내 특정 당파에게는 유리하지만, 고종이 환궁해도 러시아교관이 지휘하는 군사로 고종의 신변을 보호한다면 환궁이전의 상태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러시아가 기대했던 당초의 의도, 요컨대 조선의 완충지로서의 기능이라는 소기의 목적도 충분히 달성되는 셈이었다.

그러므로 러시아측이 소수의 군사교관을 파견하여 내키지 않으면서도 고종의 환궁에 협조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하겠다. 러시아측은 환궁

77) 《尹致昊日記》4, 1896년 6월 16일.

이 가급적 지연되기를 희망한 것이 사실이지만, 조선의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 고종이 환궁한다 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이들 러시아교관이 양성한 조선군 모두가 고종의 환궁 이후 궁궐 경비병으로 투입된 것이나, 그 해 연말까지도 고종이 러시아교관이 지휘하는 경비병에 의해 외부와의 접촉이 원활하지 못했던 사실이 이점을 입증한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러시아 군사교관의 활동에 대해 조선의 조야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뿌차타 일행이 조선에 와서 800명의 궁궐 경비병을 양성하는 동안 조선의 조야는 일단 긍정적인 자세였다. 앞서 보았듯이 민영환 특사는 당초 러시아측에 200명의 군사교관과 재정차관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것은 러시아의 군사·재정지원을 통해 일본의 압제를 벗어나려 한 소박한 의도이기도 하였다.⁷⁸⁾ 그러나 재정지원은 없었고, 군사교관도 200명 대신 13명의 소규모 인원을 파견하였다. 그럼에도 이들 소수의 교관은 일단 궁궐 경비병을 양성하여 환궁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구비하였고, 조선측의 초빙 목적도 일부나마 성취된 셈이었다. 그 점에서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당시의 《독립신문》에서는 러시아교관에 의한 조선군의 훈련이 국왕의 신변보호와 국내 변란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요지의 다음과 같은 주장이 보인다.

조선이 되려면 첫째 나라가 조용하여야 할 터인데 국중에 소란한 일이 없게 하려면 튼튼한 군사가 있어야 할지라 … 조선이 큰 군사는 두지못할지언정 적어도 강하고 규모있는 군사를 두어 대군주폐하의 성체를 염려없이 보호할만 하고 국중에 비도들이 없게는 하여야 할지라. 아라사 육군과 해군은 세계에 매우 엄한 법률을 군중에서 쓰는 고로 이런 학교에서 교육한 사관들이 조선 군사를 조련 하거든 조선 군사도 규모가 그렇게 속히 되기를 바라노라 … 아모쪼록 힘을 백배나 더 써서 조선을 아라사와 같이 되도록 만들기를 바라노라(《독립신문》, 1896년 10월 24일, 논설).

즉 군사교관의 궁궐 경비병 양성은 일차적으로 고종의 신변보호에 목적이

78) 李玟源, 〈俄館播遷期の 朝露交渉－閔泳煥特使의 활동을 중심으로－〉(尹炳奭敎授華甲記念《韓國近代史論叢》, 知識産業社, 1990).

있으며, 나아가서는 내란을 진압하는 데도 유용하다 하여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독립신문》의 1897년 2월 13일자 논설에서도 보인다. 즉 “대군주폐하를 환어하신 후에 보호할 피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더라. 환어하시는 것이 옳다는 것은 우리도 옳다고 하거니와 환어하신 후에 무슨 좋은 획책이 있어 위태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고로 지금 환어하시는 것을 간하는 것이 능한 일로 생각지 아니 하노라”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일본의 내정간섭과 왕후시해로 격앙된 일반의 반일감정,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러시아 군사교관의 조선군 훈련에 대해 일본은 어떠한 입장이었는가. 러시아교관의 派韓은 조선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지속은 물론 장래 전조선의 군사력 장악을 통해 조선을 러시아의 요새로 삼으려는 수순이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일본의 대조선 침략 기도가 좌절됨은 물론 이를 통해 대륙침략을 꿈꾸던 일본에게 결정적인 장애가 될 문제였다. 그러므로 군사교관의 파견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이들의 조선군 훈련은 일본의 촉각을 곤두서게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이들의 역할이 궁궐수비대의 양성을 통한 고종의 환궁 목적에 국한한다면 별달리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이유는 고종의 환궁 자체는 조선에서 상실한 세력을 만회할 때를 기다리던 일본측으로서 환영할 일이었기 때문이다.⁷⁹⁾ 다만 환궁의 범주를 넘어서서 군사교관이 조선 군대의 조직에 관여한다면 문제는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일본 공사는 러·일협정의 위반이 아닌가 하고 넉지시 따지면서 다짐을 받아 두고자 하였다. 그러자 웨베르도 조선군 훈련은 궁궐 경비병 양성을 위한 것이며 궁궐의 경비 태세가 갖춰지면 고종은 곧 환궁하게 될 것이라고만 답하였다.⁸⁰⁾ 러시아측은 군사교관의 조선군 훈련이 궁궐 경비병의 양성에만 목적이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지만, 웨베르는 더 이상의 언급을 피하였다.

79) 《독립신문》, 건양 2년 2월 13일, 논설 참조.

80) Jordan to MacDonald, Inclosure in No. 71, Seoul, Mar. 19, 1897, *F. O. 405-X*; Satow to Salisbury, No. 40, Tokio, Mar. 26, 1898(*British Document on the Origin of the War 1898-1914*, Vol. 1, p.25).

이에 일본은 러시아 군사교관의 조선군 양성과 조직을 방관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우선은 환궁이 최대 관건이므로 궁궐 경비병의 양성에 대해서 만큼은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의 이러한 소극적 반응에는 이유가 있었다. 당시 일본은 조선인들의 반일감정을 유화하는 일만도 쉽지 않았다. 청일전쟁 중 자행한 경복궁 유린과 삼국간섭에 대한 왕비시해의 만행 등으로 일본은 조선의 조야로부터 성토를 당하고 있었다. 독립신문 등의 논조도 그렇거니와 당시 전국적으로 만연했던 조선 각지에서의 일본인 살해는 조선인들의 격앙된 반일감정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러시아교관의 조선군 훈련을 처음부터 일본이 문제삼을 수는 더욱 없었다. 환궁을 열망하는 조선 조야의 반일감정을 증폭시키는 물론, 러시아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결과밖에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것은 환궁을 고대하는 일본측에도 결코 유리할 것이 없었다. 결국 환궁에 대비하여 궁궐을 수비할 조선군의 양성에 목적이 국한된다면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 일본의 기본 입장이었다. 일본은 모든 문제에 대한 쟁점화를 환궁 이후로 미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러시아와 일본의 이해가 교차되는 가운데 조선군이 소기의 훈련을 마친 것은 그 해 연말이었다. 이에 뿌차타는 고종이 환궁할 경우 궁궐의 경비를 맡을 병력이 갖추어졌다고 보고하였고, 명례궁(경운궁, 현 덕수궁)의 방어시설을 구비해 놓은 조선정부에서는 마침내 2월 20일 고종의 환궁(보다 정확히는 移御)을 단행하였다.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한지 1년만이였다. 그런데 고종이 조선왕조의 정궁인 경복궁으로 환궁하지 않고 명례궁으로 이어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첫째 경복궁이 거듭 일본군에 의해 유린될 만큼 방어에 취약한 점이 있었고, 둘째 명례궁은 영국·러시아·미국 등의 외교대표부가 에워싸고 있어 유사시 러시아공사관 등으로 피신하기에 용이하다는 점, 셋째 왕비시해의 참극이 빚어진 경복궁을 고종 스스로 벗어나고 싶은 심리적 상태 등이 그것이다.⁸¹⁾

81) 명례궁의 修理役事は 1896년 9월 하순경 이미 준공되어 있었다. 그동안 보수
의 중점은 두터운 외벽의 설치 등 경비시설의 확충에 있었다. 왕태자가 명례
궁에 설치된 왕비의 빈소를 수시로 출입하며 守喪한 것도 그의 일환이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고종의 환궁을 가능하게 한 현실적 조건은 궁궐 경비병의 확보를 통한 고종의 신변 안전장치의 구비였다. 아관파천 직후 환궁을 요청하는 조선의 관료나 유생의 상소는 많았지만, 실제로 환궁이 실현된 것은 그로부터 일년이나 지난 뒤였다. 또한 러시아의 재정지원 회피로 조선측이 실망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환궁 이전에 조선측의 러시아에 대한 자세가 결코 적대적이었다고만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관민의 환궁 상소나 러시아의 소극적 지원에 대한 조선측의 실망 등이 환궁의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자체가 환궁을 실현 가능하게 한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조선정부가 민영환특사를 모스크바에 파견하여 대러교섭을 진행한 것은 환궁의 실현을 위한 모색의 첫단계였다 하겠다. 아울러 러시아 군사교관의 초빙은 민영환특사가 대러교섭을 통해 얻은 소기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러시아측의 목표도 결부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고종의 환궁을 가장 시급한 일로 여기던 일반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었음과 동시에 고종의 신변안전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는 조선측 당로자들이 취한 적극적 자구 노력의 일환이었다.⁸²⁾

그러나 고종의 환궁은 조선에서 정치적으로 대일우위를 지속시키고자 하던 러시아의 의도가 작용하여 실현되었다. 러시아정부가 내키지 않으면서도 환궁에 소극적이거나 협조를 하게 된 것은 환궁이 조만간 불가피할 것임을 익히 알고 있었던 데다가 고종의 신변 장악을 통해 위로부터 세력을 행사할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러시아 군사교관의 파견과 초빙에서 러시아는 환궁 이후로도 조선에서 기존의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점에, 조선측은 궁궐 경비병의 양성과 고종의 환궁을 통해 자주권을 확립하자는 데에 주목표를 두었던 것이다.⁸³⁾

이상의 배경하에 취해진 고종의 환궁은 이후 한러관계의 변화에 중요한

(Hillier to MacDonald, Inclosure 2 in No. 42, Seoul, Aug. 22, 1896, *F. O.* 405-72, *Part IX*).

82) 이에 대해서는 高柄翊, 〈露皇戴冠式에의 使行과 韓露交涉〉(《歷史學報》28, 1965) 및 李玟源, 앞의 글(1990)을 참조.

83) 李玟源, 〈고종의 환궁에 관한 연구—러시아의 軍事教官 派韓意圖와 관련하여—〉(《한국근현대사연구》1, 1994).

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첫째는 환궁 직후 조선에서 노골화된 영국과 일본 측의 반러 선동과 공작, 둘째는 청제 건원과 대한제국 선포 등에서 보듯이 조선측이 모든 외세의 간섭을 벗어나 자주독립을 추구해 간 것, 셋째는 만주와 한반도의 상황과 맞물려 변모해 간 러시아의 대한방침 등이 그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부언하면, 고종의 환궁은 아관파천에서 최고조에 달했던 한러관계의 접근이 소원해지고, 삼국간섭 이래 한반도에서 러시아가 차지했던 대일 정치적 우위가 쇠퇴해 가는 전환점이기도 하였다. 독립협회의 반러운동이 고조되고, 만한을 둘러싸고 영국·일본·러시아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던 1897년말~1898년초의 상황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⁸⁴⁾

〈李玟源〉

3. 러·일의 한반도 분할 획책

淸日戰爭은 구미 열강에게 청국 분할의 길을 열어주고 신흥 일본을 이 지역의 패자로 등장시킨 동양사상 획기적인 전쟁이었다. 청일전쟁의 결과로 한국은 청국의 중주권에서 벗어났지만 청국 대신 러시아가 등장함으로써 러·일간의 각축장으로 변화였다.

1) 청일전쟁과 한반도 분할안

東學亂의 발발을 이용하여 청국과 일본은 1894년 6월 한반도에 출병하였다. 청국이 3,000명의 병력을 牙山灣으로 파견하자, 일본은 이를 계기로 전쟁 도발을 위해 13,800명이라는 압도적인 병력을 仁川으로 급파하였다.

1894년 4월부터 일본 군부는 동학란을 계기로 청과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6월초 한국으로 파병하였으나, 40여 일의 공백을 두고 열강의 태도를 주

84) 愼鏞度, 《獨立協會研究》(一潮閣, 1976), 277~302쪽.

崔文衡, 《列強의 東아시아 政策》(一潮閣, 1979), 42~98쪽.

李玟源, 위의 글(1994).

의 깊게 타진하고 있었다. 시베리아철도가 완공되기 전에 청과의 전쟁을 서둘러야만 하였던 일본은 러시아의 정책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¹⁾

청군이 아산만에 도착하고 일본군이 인천에 상륙하였을 때는 동학도가 한국군에 의해 진압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도착한 청·일 양군의 어느 쪽도 필요치 않았다. 청과 한국은 일본군의 철병을 요구했던 반면에 일본정부는 일본군의 철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한국에 대한 공동개혁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한국에 자기들의 군대를 주둔시키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다. 일본이 전쟁을 하려는 의지를 과소평가한 청국정부는 개혁에 우선하여 한국으로부터의 공동 철병을 촉구하였다.

북경주재 러시아공사 카시니(A. P. Kassini)가 귀국 길에 天津에 들렀을 때 李鴻章은 러시아가 청·일 분쟁을 조정해 줄 것을 부탁한다. 카시니와 웨베르(K. I. Waeber, 韋貝)는 본국에 보고하고, 집요하게 러시아의 조정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러시아가 별로 희생없이 극동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청·일간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황제 알렉산더 3세(Alexander III)와 外相 기르스(N. K. Girs)는 극동에서 러시아 군사력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조심성있는 정책을 취했다.²⁾

6월 25일 동경주재 러시아공사 히트로보(M. A. Khitrovo)는 기르스외상의 훈령에 따라 무츠 무네미츠(陸奧宗光)외상과 회담하였다. 히트로보는 동학란은 이미 진압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청군이 한국에서 철병한다면 일본군도 철병할 의사가 있는가를 문의하였다. 무츠외상은 한국에 대한 청·일 공동개혁안을 거부한 청을 비난하고, 다음 2가지 선행조건을 청이 수락하여야 일본군이 철병할 것이라고 하였다. 즉 일본이 제시한 개혁안에 청이 동의하던가 아니면 일본이 한국 독립을 유지키 위해 단독 내정개혁을 실천하는 데 있어 청정부는 직접 또는 간접이든 일절 간섭하지 않겠음을 보증하라는 것이었다.³⁾

1) Boris. A. Romanov, *Rossiiia V Manchzhurii*, 1892~1906(Leningrad : 1928), pp.72~74.

2) “Epokhi Iapono-Kitaiskii Voini, 1894~1895”, *Krasnii Arkhiv* Vol. 50~51, pp.25~26.

3) *Ibid.*, pp.19~20.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研究》下(朝鮮總督府中樞院, 1940), 463~465쪽.

히트로보공사로부터 일본의 對淸 요구조건을 보고 받은 기르스외상은 난감했다. 왜냐하면 일본정부는 무조건 철병을 거절하고 청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가혹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난관에 처해 있을 무렵 주한 임시대리공사 케르베르그(P. Kehrberg, 克培)가 한국정부가 열강대표들에게 동학란은 이미 진정이 되었으므로 공동 철병을 요청하였다는 것을 본국 정부에 보고하였다.⁴⁾ 동시에 주러 일본공사 니시 도쿠지로(西德二郎)는 외무성 아시아국장 카프니스트(D. A. Kapnist)와 회견하고 일본의 對韓政策을 설명하였다. 니시공사는 일본의 정책은 한국정부를 개혁하여 한국의 독립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청국이 공동개혁안을 찬성하지 않는 한 일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카프니스트국장은 만약 청국이 일본의 제안에 반대한다면 일본은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반문하였다. 니시공사는 정확한 대답을 못하였다.⁵⁾

히트로보공사는 6월 30일 무츠외상을 다시 방문하고 “한국정부는 주한 각국 공사에게 이미 내란이 진정되었다는 것을 통보하고 청·일 양국의 동시 철병에 대해 각국 공사의 원조를 요청했다. 러시아정부는 일본정부에 한국의 요구를 수락할 것을 권고한다. 만약 일본정부가 청국과의 동시 철병을 거부할 경우 일본정부는 마땅히 중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충고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⁶⁾

7월 2일 무츠외상은 히트로보공사에게 아직 동학란의 근원이 제거되지 않았고 내란이 완전히 평정되면 일본군을 철병시키겠다고 보증하였다. 이것은 간접적인 표현으로 일본이 러시아의 충고를 거절한 것이다.⁷⁾

7월 13일 히트로보공사는 무츠외상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직접 전해 주었다. 즉 “일본정부의 선언 중에 한국에 대한 침략 의사가 없으며 또한 亂이 재발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한 후에는 군대를 즉각 철수하겠다고 보장한 점

4) 田保橋潔, 위의 책, 466~467쪽.

5) 日本外務省 編, 《日本外交文書》27-2(東京:日本國際連合協會, 1936), 문서번호 629 露國政府我カ撤兵ヲ忠告シタル旨報告ノ件.

6) 陸奥宗光, 《蹇蹇錄》(東京:岩波書店, 1941), 64쪽.

《日本外交文書》27-2, 문서번호 633 朝鮮ヨリノ撤兵勸告ノ件.

7) 《日本外交文書》27-2, 문서번호 639 露國ノ申入ニ對シ回答ノ件.

에 대하여 러시아정부는 크게 만족한다. 그러나 러시아정부로서는 이웃 나라인 한국의 事變을 방관할 수 없다. 그러나 금일의 경우 오직 청·일 양국의 분쟁을 예방하고자하는 희망에서 나온 것임을 양해해 달라”는 것이었다.⁸⁾

이러한 미온적인 러시아의 극동정책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1894년 여름 러시아정부는 일본의 군사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러시아는 청나라의 완전 파멸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그 당시 극동에 있어서 러시아의 육군은 보잘 것 없었다.⁹⁾ 한반도문제에 러시아가 쉽게 개입할 수 없는 것은 청·일 뿐만 아니라 영국과도 충돌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7월 중순 카시니 공사의 보고를 통해서 러시아정부는 이미 영국은 일본이 청국을 공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협박적으로 일본에게 경고하다가 일본이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러시아는 청국과 협동하여 일본과 전쟁을 해야만 했다. 그 당시 러시아는 군사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청이 일본을 격파하는 것도 러시아는 원치 않았다.¹⁰⁾

청국의 조정 요구를 너무 단호하게 거절하면 청이 영국의 중재에만 의지할까봐 러시아정부는 청에게 회답을 지연시켰다. 영국이 한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개국 안을 제안하였다. 그때서야 러시아정부는 영국이 단독으로 청·일 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알고 7월 9일 이홍장에게 러시아는 단독으로 청·일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통보하였다.¹¹⁾

기르스외상은 일본의 청·일 공동개혁안은 일본이 청국과 전쟁을 발발하려는 구실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홍장이 러시아를 개입시켜 일본과 영국과 싸우게 하려는 以夷制夷 정책도 알고 있었다.¹²⁾

극동에서의 영·러 대립이 일본으로 하여금 쉽게 전쟁을 발발할 수 있는

8) 《日本外交文書》27-2, 문서번호 659 露國政府日本政府ノ清國政府トノ平和的解決希望ナル旨通告ノ件.

9) A. L. Narochitskii, *Kolonialnaia Politika Kapitalisticheskukh Depzhav Na Dalnem Vostoke*, 1860~1895(Moscow: Izdatelstvo Akademii Nauk SSSR, 1956), p.605.

10) *Krasnii Arkhiv*, Vol. 50~51, *op.cit.*, pp.25~26.
A. L. Narochitskii, *op.cit.*, p.607.

11) *Krasnii Arkhiv*, Vol. 50~51, p.30.

12) Girs to Kassini, 1894년 8월 8일, *Ibid.*, p.59.

상황을 만들었다. 영국의 정책은 한국과 극동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영국 지배하에 영·청·일의 블록(bloc)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영국의 목적은 일본과 청국을 동시에 영국의 ‘앞잡이’로 이용하는 것이었다.¹³⁾ 7월초 북경주재 영국공사 오코너(O’coner)는 일본군의 한국 점령을 허용하고 한국의 개혁을 실시하여 청은 형식적인 중주권을 유지하라고 청국정부에 충고하였다.¹⁴⁾ 청국주재 고무라 슈타로(小村壽太郎) 임시대리공사는 일본군이 한반도를 점령해야 된다는 것을 쉽게 오코너공사에게 설득할 수 있었다.¹⁵⁾

영국은 1880년대에 청국이 러시아의 남진에 대한 완충국의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친청정책을 취해왔다. 한반도가 청의 중주권하에 있는 것이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왔다.¹⁶⁾ 그러나 1893년말부터 영국은 청국 대신 일본을 러시아에 대한 대항세력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따라서 로즈베리(Rosebury)수상, 김벌리(Kimberly)외상은 군사적으로 러시아와 결합하여 일본과 전쟁을 하는 것을 반대했다. 영국의 그러한 정책은 對러시아 방과제인 일본을 약화시키고 소외시키기 때문이다.¹⁷⁾

7월 2일 일본정부는 러시아정부에게 일본은 한국을 종속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만족하여 7월 10일경 러시아는 일본이 극동에서의 러시아의 이해를 침해하지 않는 한 청·일간의 분쟁에 간섭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¹⁸⁾ 히트로보공사는 7월 21일 다시 무츠외상을 방문하여 “일본이 현재 한국에 요구하는 讓與는 어떤 것인가. 그 양여의 여하를 막론하고 적어도 독립국으로서의 한국이 각국과 체결한 조약에 배치되는 경우

13) A. L. Narochitskii, *op.cit.*, p.594.

崔文衡, 〈清日戰爭前後 英國의 東아시아 政策과 韓國〉(《韓英修交 100年史》, 韓國史研究協議會, 1984), 111쪽.

14) A. L. Narochitskii, *op.cit.*, p.600.

15) 《日本外交文書》27-2, 문서번호 643 朝鮮問題ニ關スル列國ノ動向ニ付意見具申ノ件.

16) John Berryman, “The Assassination of Queen Min and British Policy Towards Korea,”(《明成皇后弑害事件과 國際關係》, 韓國政治外交史學會, 第5回 國際學術大會, 1995년 12월), 52쪽.

17) John Berryman, 위의 글, 56쪽.

18) Khitrovo to Girs, July 2 and July 13, 1894 ; A. L. Narochitskii, *op.cit.*, p.608.

러시아정부는 이를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장래 쓸데없는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友誼上 일본에 다시 그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라는 공문을 수교했다.¹⁹⁾

히트로보공사와의 대화에서 무츠외상은 일본이 한국을 정식으로 종속국으로 만들지 않는 한 러시아는 무력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본 군부는 이 당시 극동에서 러시아 군사력이 얼마나 미약했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²⁰⁾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일본은 곧 청국과 전쟁을 시작하였다.

(1) 영국의 남북한 분할 제안

일본정부의 반대로 청·일 양군의 공동 철병에 실패한 영국은 청국과 일본에 한반도를 공동 점령할 것을 제안했다. 김벌리외상은 7월 18일 런던주재 청국공사 龔照璠을 통해 청국정부의 승낙을 확인한 후 런던주재 일본공사 아오키 슈조(青木周藏)에게 공동점령안을 제시했다. 이 제안에 의하면 일본군은 서울과 인천에서 남한으로 철수하고, 청군은 아산에서 북한으로 철병하게 되어 있었다.²¹⁾ 영국의 압력에 의하여 이홍장은 영국의 분할 점령정책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그는 일본군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철수하고, 청군은 아산에서 평양으로 철수할 것을 제안했다.²²⁾

김벌리외상은 서울~부산거리가 서울~평양거리보다 멀다고 이홍장의 제안이 불공평하다고 지적하였다. 그의 생각으로는 청·일 양국간에 간격을 두고 양군이 철수하여 충돌을 피하여야 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에 도움이 되는 김벌리의 분할 제안에 대하여 러시아와 독일은 불만을 표시했다. 독일은 영국의 분할점령안은 일본군의 서울 점령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러시아도 김벌리의 조건에 반대했다. 러시아정부는 만약 일본이 남

19) 金景昌, 《東洋外交史》(集文堂, 1987), 398쪽.

Khitrovo to Girs, July 2 and July 13, 1894; A. L. Narochitskii, *op.cit.*, pp.609~610.

20) A. L. Narochitskii, *op.cit.*, p.66.

21) A. L. Narochitskii, *op.cit.*, p.602.

22) *Krasnii Arkhiv*, Vol. 50~51, p.21.

한을 점령하게 되면 만주에 관해서도 간섭할 것으로 보았다. 청국도 영국의 도움으로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하였다. 7월말 이홍장은 일본군이 서울과 인천에서 남한으로 철수한다는 조건으로 영국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일본은 이미 청일전쟁을 발발하였다.²³⁾

만약 청국과 일본이 영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한반도는 1894년 7월에 분할되었을 것이다. 일본의 반대로 영국의 공동점령안은 실패로 끝났다. 일본이 반대한 이유는 일본은 남한 점령에 만족하지 않고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2) 청일전쟁 중 러·일의 한반도정책

러시아정부가 아무런 적극적인 간섭을 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8월 1일 청일전쟁이 시작되었다. 8월 21일에 러시아정부는 宮庭 특별회의를 소집하였다. 기르스외상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한국은 그 자체로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이 약함으로서 한국이 교전국 중의 어느 하나의 지배하에 들어가 우리 나라에 대항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지도 모른다. 특히 일본이 한반도의 남부를 지배하게 되면 일본은 한·일 국경의, 또한 우리 나라의 동시베리아 항구들의 대양 진출을 위한 유일한 출구인 대한해협을 지배할 것이다. 우리는 日本海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이것은 우리 나라에 참기 어려운 일인 것이다.”²⁴⁾

반노프스키(P. S. Vannovskii)국방상도 한국에서의 현상유지의 보존은 러시아의 극동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특히 일본의 한국 점령을 가장 두려워했다. 위테(S. Iu. Witte)재무상도 기르스외상의 의견에 동의하였다.²⁵⁾

회의 결과 영국을 비롯한 열강과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고, 한국문제에 관해서는 청일전쟁전의 현상유지 정책을 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당시 러시아는 일본 군대에 의해 한국의 궁궐이 점거된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극동에

23) A. L. Narochitskii, *op.cit.*, p.60.

24) *Krasnii Arkhiv*, Vol. 50~51, pp.64~65.

25) 위와 같음.

서의 군사력의 취약성 때문에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하였다.²⁶⁾

9월에 일본군이 평양전투와 압록강전투에서 대승을 하자 영국은 10월 6일에 영·러·독·불·미 5국에 의한 공동 간섭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한국의 독립에 대한 공동 보장과 일본에의 배상을 조건으로 하였다. 영국의 제안이 성공하면 한국에서의 영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을 염려하여 러시아는 이 제안이 러시아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였다. 독일과 러시아의 반대로 영국의 제안은 실패로 끝났다.²⁷⁾

1894년 겨울 러시아정부는 질병과 혼란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해 11월초 알렉산더 3세는 사망하고 기르스외상은 거의 사경에 있었다. 外相代理 쉬쉬킨(Shishkin)은 영향력이 없었고, 외무성 아시아국장 카프니스트는 휴가차 유럽으로 떠났다.²⁸⁾

그 후 청국의 북양함대는 완파되었고, 12월 하순 旅順이 함락되자 청국은 강화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전쟁에서의 계속적인 일본의 승리는 러시아의 예상을 초월했다. 2월 1일 청일전쟁에 대해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것인지 또는 다른 열강들과 행동을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한 특별회의가 개최되었다.

2차 특별회의는 알렉산더 3세와 기르스외상이 사망하고 위태재무상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을 때에 소집되었다. 회의 결과 다음 사항을 결정하였다. “청일전쟁 결과 일본이 러시아의 이익에 침해되는 요구를 하게 된다면 일본에 대항하여 공동행동을 취하는 데 대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영국과 다른 열강들과 협력한다. 태평양지역의 러시아해군 전력을 일본해군 이상으로 증가한다.”

2월 4일 쉬쉬킨외상서리와의 담화에서 니시공사는 청국에서의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한반도에서의 이해관계보다 중요하지 않고,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전쟁에 간섭하지 않을 것으로 무츠외상에게 보고하였다.²⁹⁾ 동시에 히트로보공사는 무츠외상과 인터뷰를 가졌다. 일본외상은 러시

26) 위와 같음.

27) Kassini to Girs, Oct. 29, 1894 ; A. L. Narochitskii, *op.cit.*, p.646.

28) Kassini to Girs, Oct. 29, 1894 ; A. L. Narochitskii, *op.cit.*, p.668.

아의 신용을 얻어 영국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극비사항으로서 청 본토의 영토 할양을 요구할 것이라고 히트로보공사에게 말하였다. 러시아공사는 그러한 할양은 현명하지 않은 것이고,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전쟁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³⁰⁾

2월 21일 니시공사는 러시아외무성을 방문하여 쉬쉬킨과 면담하였다. 쉬쉬킨은 러시아의 간섭 여부는 일본이 청의 어느 영토를 요구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니시공사는 그의 사적인 견해로서 일본은 威海衛보다 해군기지로서 여순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쉬쉬킨은 니시공사의 사건을 일본정부의 견해라고 인식하였다. 쉬쉬킨은 숙고하지 않고는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하였다.³¹⁾ 쉬쉬킨과의 담화를 나눈 후 니시공사는 무츠외상에게 러시아·영국 및 불란서가 어떤 이의를 제의할 것이지만 그 이의의 정도는 확실치 않다고 보고하였다. 러시아정부가 아직 여순 점령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니시공사에게 정확한 것을 말할 수 없었다.³²⁾ 이 무렵 북경주재 카시니공사는 일본이 大蓮과 여순을 포함한 소요동반도를 요구한다고 쉬쉬킨에게 전보했다.³³⁾

2월 27일 무츠외상은 일본정부는 명실공히 한국의 독립을 인정한다고 러시아정부에 통보하였다.³⁴⁾ 그러나 실제의 한국 상황은 전연 달랐다. 당시 한국은 일본공사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에 의해 일본의 보호국화가 되고 있었다. 이노우에는 한국의 모든 재정문제를 장악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위싱턴의 한국공사관의 업무를 중지시키고 대신에 워싱턴주재 일본공사로 하여금 한국문제에 관여하도록 한국정부측에 요구했다.³⁵⁾ 일본의 한반도 침략

29) *Krasnii Arkhiv*, Vol. 50~51, pp.67~73.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555 日清戰爭ニ關スル露國政府ノ意向報告ノ件, 690~691쪽.

30)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561 露國政府ノ態度打診ノ件, 698~699쪽.

31)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563 土地割讓ニ關シ露國外相代理ト談話ノ模様報告ノ件, 701~702쪽.

32) A. L. Narochitskii, *op.cit.*, p.676.

33) 위와 같음.

34)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568 淸和ノ基礎タルベキ條件ニ關スル露國ノ提案ニ對シ宣言ノ件, 705~706쪽.

35) Sill to Gresham, No. 78, January 16, 1895, Diplomatic Despatches, Korea.

이 한국 독립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었는데 러시아정부 관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³⁶⁾

러시아정부가 일본의 요동반도 점령에 대한 간섭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 황제는 三國干涉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2월말까지 독일정부는 공동 간섭에 반대해왔다. 독일 황제의 정책은 청일전쟁 중 영·러대립을 악화시키는 것이었다. 영국의 간섭정책에 대한 독일의 반대로 일본은 만주 방향으로 계속 전선을 확대할 수 있었다.³⁷⁾

3월 8일 동경주재 독일공사 구트쉬미트(Gutschimdt)는 하야시 타다시(林董) 외무차관을 만나 그 때까지 열강의 간섭이 실패한 것은 독일이 반대했기 때문이었고, 일본의 강화조건을 완화하라고 충고하였다. 그는 부언하기를 독일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일본의 청국 본토 영토할양은 열강 간섭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³⁸⁾ 그러나 일본정부에게는 열강 간섭은 새로운 뉴스가 아니었다. 아오키 슈조(青木周藏)공사는 3월 중순 독일정부에게 일본 군부가 여순항과 대만을 원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구라파 국가들의 이해 대립을 고려하여 독일의 경고를 무시하였다.³⁹⁾

3월 23일 요동반도의 할양을 일본이 주장하는 것을 알자마자 독일은 러시아와 공동으로 간섭하기로 결정한다. 곤경에 빠진 아오키공사는 헛되게 독일의 삼국간섭 참여를 예방하려고 노력하였다. 4월 3일에 독일정부는 삼국간섭에 참여할 것을 러시아정부에 정식으로 통보한다.⁴⁰⁾

4월초 로바노프(A. B. Lobanov-Rostorskii)외상은 일본의 요동반도 점령은 북경에 대한 영구적인 협박이 될 것이며, 심지어 한국의 독립에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했으며, 동시에 이 점령은 러시아 국익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만일 러시아가 무력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일본과 군사적인 갈등을 가져 올 것은 틀림없었다.⁴¹⁾

36) *Krasnii Arkhiv*, Vol. 50~51, p.71.

37) A. L. Narochitskii, *op.cit.*, p.66.

38)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571 露國政府ヨリ媾和條件ノ適當ナルベキ事勸告ノ件, 709~710쪽.

39) Khitrovo to Lobanov, May 10, 1895, A. L. Narochitskii, *op.cit.*, p.713.

40) Khitrovo to Lobanov, May 10, 1895, A. L. Narochitskii, *op.cit.*, p.715.

1895년 4월에도 러시아는 단독으로 일본과 전쟁을 할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었다. 4월 6일 니콜라이 2세(Nikolai II)황제는 로마노프외상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러시아는 부동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항구는 한국의 동남부지방에 위치하여야 하며 우리 영토와 연결되어야 한다.”⁴²⁾ 이와 같이 부동항에 대한 짜르의 열망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원산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만일 1895년 봄, 러시아정부가 보상정책을 채택하였다면 러시아의 對韓政策은 상당히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 상황은 급격히 변화되었다. 독일정부는 러시아에게 여순에서 일본을 몰아내는 일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4월 11일 또 다른 특별회의가 소집되었다.⁴³⁾ 위테재무상은 다음과 같이 간섭정책을 주장하였다.

“일본에 의한 이 전쟁은 우리가 착수한 시베리아철도 건설 결과다. 일본의 남만주에서의 적대행위는 주로 우리에게 위협이 될 것이고 그 결과 한국은 일본에 병합될 것이다.… 곤경에 빠지면 대만・澎湖島, 심지어는 여순항 그리고 한반도 남부까지도 양보하려 하지만 만주만은 결코 아니 된다.”⁴⁴⁾ 위테는 러시아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생각했다. 러시아는 요동반도의 일본점령을 용인하든지 아니면 그 점령을 결단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었다. 물론 위테는 후자의 정책을 지지했다.

부동항 획득을 바라던 러시아황제는 4월 16일에 궁정에서 다시 회의를 소집시켰다. 위테는 니콜라이 2세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고, 러시아정부는 독일 및 불란서와 협력하여 삼국간섭을 주도하게 되었다. 시모노세키(下關)조약이 체결된 지 불과 6일 뒤인 4월 23일 러·독·불 3국 공사는 외무차관 하야시를 방문하고 일본군은 요동반도로부터 철수하라는 요구를 하였다.⁴⁵⁾ 곤경에 처한 일본은 영국에 접근하여 삼국간섭을 견제하려 하였지만 영국의 태도는 냉담했다. 영국의 정책은 러시아의 남진정책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본

41) A. L. Narochitskii, *op.cit.*, p.695.

42) *Krasnii Arkhiv*, Vol. 50~51, p.76.

43) 위와 같음.

44) *Krasnii Arkhiv*, Vol. 50~51, pp.80~81.

45) 《日本外交文書》28-2, 문서번호 671 獨・露・佛三國公使遼東半島還附勸告シタル旨報告ノ件, 14~17쪽.

의 요동반도 점령을 찬성하는 편이었다. 일본 군부는 일본이 삼국의 군사력과 대항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고 결국 일본정부는 5월 5일에 그들의 요동반도 영토 요구를 포기하였다.⁴⁶⁾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간섭은 영국의 외교정책을 완전히 망쳐버렸다. 독일이 갑자기 삼국간섭에 가담하는 것을 영국정부는 예측하지 못하였다. 삼국간섭의 결과로 영국은 극동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세할 수 없었다. 독일황제의 전략은 영국이 열강 간섭에 불참함으로써 일본의 전략이 만주방향으로 지향하게 될 것이고,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어 러시아와 대결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⁴⁷⁾

(3) 민비시해와 러시아의 대한정책

영국은 삼국간섭 중 일본을 군사적으로 돕는 데 냉담했다. 영국은 러·독·불 3국이 일본과 전쟁을 할 경우 일본이 패배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영국은 일본에게 절제할 것을 충고하였다. 로마노프외상도 니시공사에게 일본이 한국 국내문제에 너무 관여한다고 경고하였다.⁴⁸⁾ 이러한 궁지에 몰린 일본정부는 열강이 한국의 독립과 영토를 보장하는 문제로 영국정부에 접근하였으나 영국은 관심이 없었다.⁴⁹⁾

삼국간섭 이전에 이미 한국 정치는 복잡해져 있었다. 이노우에공사가 수립한 2차 金弘集內閣은 여러 정파로 나누어 있었다. 일본을 대표하는 내무대신 朴泳孝는 김홍집을 위시한 보수파를 싫어하였다. 국방대신 趙義淵 등 기존의 친일파세력은 박영효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고종과 왕비는 김홍집과 魚允中을 제거하기 위하여 박영효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박영효가 한국정부의 독재자가 되기 위하여 왕비를 지지하고 이노우에공사를 반대하게 되자 서울의 정치상황은 대단히 혼란스럽게 되었다. 박영효의 행동은 김홍집과 뿐만 아니라 반일투쟁을 벌리고 있는 한국 국민을 격분시켰다. 박영효의 배후에는

46) 《日本外交文書》28-2, 문서번호 788 三國政府ノ勸告ニ應スル覺書提出スヘキ旨訓令ノ件, 82~83쪽.

47) A. L. Narochitskii, *op.cit.*, p.716.

48)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271 內政改革ニ對スル露國ノ危惧ニ關シ露國外務大臣ト談話ノ件, 413~414쪽.

49) 《日本外交文書》28-2, 문서번호 864 極東問題ニ關スル英國外相ノ談話報告ノ件.

왕비가 있는 것을 알게 된 이노우에공사는 그를 견제하기 시작하였다.⁵⁰⁾

삼국간섭 직후 민비는 ‘引俄拒日政策’을 시작하였다. 민비는 여러 나라의 공사들이 드나드는 貞洞클럽에 侍臣을 보내 외국공사들과 친교를 맺게 하였다. 그 때 일본을 견제하는 데 부심하고 있던 웨베르공사는 여러 나라의 공사들과의 연결고리로 민비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즉 민비로 하여금 일본의 독주에 불만을 품은 여러 나라의 외교관에게 이권을 주도록 조언하였고, 민비 또한 왕권의 회복을 위해 이권을 허용하였던 것이다.⁵¹⁾

삼국간섭 이후 국왕이나 왕비는 더 이상 박영효를 이용할 필요가 없었다. 6월초 김홍집내각이 붕괴되고 새 내각이 수립될 때에 왕비나 이노우에공사는 박영효가 총리대신이 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 결과 힘없는 朴定陽내각이 수립되었다.

이 무렵 일본의 침략적인 내정간섭에 대해 전국적으로 반일운동이 일어났다. 일본 침략세력에 의하여 수립된 김홍집내각은 사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서 이노우에공사는 對韓 강압정책에 실패하고 귀국을 서두르게 되었다. 귀국 하루 전 이노우에공사는 오카모도 류노스케(岡本柳之助)와 박영효에게 일본 군대와 훈련대를 사용하여 쿠데타를 실행하라고 지시하였다.⁵²⁾ 일본인 顧問官 호시 도루(星亨), 사이토 슈이치로(齊藤修一郎), 무라사키 시로(紫四郎), 사사 마사유키(左左正之) 등은 박영효를 총리로 만들고 왕비를 살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또한 쿠데타를 실행하기 위하여 왕궁 호위병을 훈련대로 변화시키기로 결심하였다.⁵³⁾

6월 25일 친일파의 거두인 박영효는 러시아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왕실을 호위하던 종래의 호위병을 일본군이 훈련한 800명의 훈련대와 교체하

50) Sill to Gresham, No, 123, Znlly 9, 1895, *Diplomatic Despatches, Korea*.

柳永益,《清日戰爭中 日本の 對韓侵略政策—清日戰爭을 前後한 韓國과 列強》(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168~170쪽.

51) 李玟源,《俄館播遷前後의 韓露關係—1895~1898》(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 21쪽.

52) 伊藤博文,《朝鮮外交交渉資料》中(秘書類纂刊行會, 1936), 462~464쪽.

53) 伊藤博文, 위의 책, 464쪽.

杉村濤,《在韓苦心錄》(日本外務省, 1932), 138쪽.

葛生能久,《東亞先覺志士記傳》下(黑龍會, 1933~1936), 515쪽.

고, 이 훈련대를 이용하여 러시아에 접근하려는 왕비를 살해할 음모를 일본인 오카모도·무라사키·아사야마 켄조(淺山顯藏) 등과 밀모하다가 발각되었다.⁵⁴⁾ 박영효 등은 叛逆陰謀罪로 체포령이 내리자 일본공사관의 도움을 받아 일본으로 망명하였다.⁵⁵⁾

서울에서 쿠데타에 실패한 박영효·아사야마·다나카·무라사키 등은 일본 요로를 찾아다니며, 웨베르공사와 한국왕실이 결탁되었다고 중상하였다. 이 사실이 일본 신문지상에 게재되자, 박영효의 허위선전에 대해 러시아공사와 왕실은 이노우에공사에게 항의하여 외교문제로 발전되었다.⁵⁶⁾ 이때 이노우에공사의 ‘軟弱정책’에 대하여 일본내의 대외강경파와 현지 한국의 일본관계자로부터 불만이 고조되고 이노우에공사를 대신할 군인 출신의 공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었다. 이러한 불만을 외교관출신의 공사로써 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 이노우에공사는 7월 10일경 國權主義者の 거물이고 군출신이기도 한 육군 중장 미우라 코로(三浦梧樓)를 추천하였다. 미우라는 일본의 대외강경파에 속해있었고 10년 이상 박영효를 원조하고 있었다.⁵⁷⁾

일본정부가 미우라공사를 임명하여 민비를 살해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삼국간섭 이후 對淸 차관문제로 삼국간의 협력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는 대청 차관문제로 삼국간섭동안 양국간에 존재했던 협력은 완전히 붕괴되었다.⁵⁸⁾ 영국의 정책은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하여 일본의 한반도 점령을 찬성하고 있었다. 독일 황제는 일본의 한반도 점령뿐 아니라 요동반도에서도 일본군이 몇 년 더 점령하는 것을 원했다. 그의 목적은 러·영이 극동에서 대결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다.⁵⁹⁾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뿐이었다. 1895년 여름에 한국의 내각이 거의 친러적으로 되었으나 러시아정부는 한국에 대한

54) Sill to Cresham, No. 123. July 9, 1895, *Diplomatic Despatches, Korea*.

55)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316 朴泳孝謀反ニ關シ報告ノ件, 456~457쪽.

56) 申國柱, 〈明成皇后殺害事件에 對한 再評價〉(《明成皇后殺害事件과 國際關係》, 第5回 國際學術會議, 韓國政治外交史學會, 1995), 8쪽.

57) Hirao Michio, 《子爵谷干城傳》(東京, 1935), 711쪽.

58) 《日本外交文書》28-2, 문서번호 870 英國外相トノ談話報告ノ件, 154~156쪽.

59) A. L. Narochitskii, *op.cit.*, p.778.

적극정책을 취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웨베르공사만이 한국정부를 적극 지지하였다. 무력함을 느낀 한국정부는 군대양성을 위하여 러시아정부의 도움을 요청했다. 고종은 군사교관 외에도 의사·엔지니어 및 러시아어 선생을 초대하였으나, 러시아정부는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을 다 거절하였다.⁶⁰⁾

7월 고종은 密使 權東壽를 블라디보스토크로 파견하여 한국을 일본의 점령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러시아정부에 요청하였으나 9월까지 아무 회답을 받지 못하고 귀국하였다.⁶¹⁾ 오로지 웨베르공사만이 일본의 영향력을 저지시킬 것을 러시아정부에 건의하였으나, 로바노프외상은 그의 건의를 묵살하고 그를 멕시코로 전보하기로 결정하였다.⁶²⁾

러시아가 한국에 대하여 미온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동안 일본은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다. 7월 중순경 한국주재 공사로 임명된 미우라는 일본의 對韓政策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열강 특히 러시아가 한국문제에 간섭하게 되었고, 만약 일본이 실수를 하게 되면 취소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미우라는 3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 ①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단독으로 한국의 개혁을 실시한다.
- ② 열강과 한국의 공동보호.
- ③ 조만간에 반드시 일본은 강대국과의 분쟁이 불가피함으로, 아직 一大難事가 야기하지 않은 오늘날에 차라리 단호한 결의로 一強國과 더불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는 방침(《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350 對韓政策ニ關スル三浦新公使 意見書：對韓政策ノ訓令ヲ待ツ).

60) V. p. Nikhamin, "Diplomatiia russokogo Tsarizma V Korea Posle Iapono-Kitaishkoi Voyny(1895~1896)", *Istoriia Mezhdunarodnykh Otnoshenii Istoriia Zarubezhnykh Stran*(Moscow, 1957), p.140.

61)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479 朝鮮國密使浦潮へ來リタルニ付報告ノ件, 622쪽.

V. p. Nikhamin, *op.cit.*, pp.140~141.

62) V. p. Nikhamin, *op.cit.*, pp.140~141.

①안을 채택할 경우 1~2개의 강대국과 전쟁을 할 결심이 필요하다고 미우라는 보았다. ③안의 방침을 결심한다면, “잠시 한국에 대해 관망하다가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신속히 방책을 취해야 한다. 다른 나라를 병합한다는 것은 약탈의 다른 말이니 점령 후에 형세를 협박하거나 혹은 惠恤하면 그만이다.” 현재로는 러시아에게 북방의 부동항이나 함경도 정도를 양여한다면 만족할 것이라고 보았다.

미우라공사는 9월 1일 서울에 도착한 이후 쿠데타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미우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주재 일본공사 니시도 한반도를 러시아와 분할하자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⁶³⁾ 그 당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수상도 9월 말경 동경주재 영국공사 사토우(E. Satow)에게 한국은 일본이 점령하여야 된다고 주장하였다.⁶⁴⁾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미우라공사가 서울에 부임하기 전에 한국에서 쿠데타를 실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9월 1일 서울에 도착한 이후 미우라공사는 왕실의 중심이요 대표적인 인물인 閔妃를 제거하여 러시아로 하여금 그 접촉할 당사자를 상실케 하는 왕비 살해 흉모에 착수하였다. 미우라는 일본 정규군·領事 警察·劍客 浪人 등을 총동원하여 10월 8일 새벽 민비를 시해하였다.⁶⁵⁾

1995년말까지도 일본학계에서는 민비 살해는 일본정부가 직접 관여된 것이 아니고 미우라공사가 현지에서 단독으로 저지른 사건으로 보고 있다.⁶⁶⁾ 위에서 지적한대로 민비 시해사건은 이노우에공사가 주모자이고 미우라공사는 하수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⁶⁷⁾ 일본은 100년전이나 지금이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민비가 러시아에 의뢰코자 하고, 러시아는 한국을 점

63)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351 朝鮮問題ニ關スル露國ノ態度報告ノ件, 484~489쪽.

64) George A. Lensen, *Korea and Japan, 1895~1904*(Tallahassee, Florida : The Diplomatic Press, 1966), pp.44~45.

65) 김려호, 〈明成皇后弑害事件과 朝鮮에 對한 러시아의 政策〉(《明星皇后事件과 國際關係》, 第5回 國際學術會議, 韓國政治外交史學會, 1995), 31쪽.

66) 朴鍾根, 〈明成皇后弑害事件과 日本의 政策〉, 위의 책, 27쪽.

67) “The Situation in Corea”, *North China Herald*, Nov. 22, 1895.

李玟源, 앞의 책, 34~42쪽.

령하려고 하여 일본은 한국의 왕비를 살해했다고 주장한다. 왕실과 웨베르공사와 밀약이 체결되었다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정반대다.⁶⁸⁾

청일전쟁이후 영·러·독·불 및 미국은 청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팽창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다. 러시아의 중요 관심이 만주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한국문제는 점점 덜 중요시하게 되었다.⁶⁹⁾

2) 아관파천과 일본의 한반도 분할 제안

민비시해 이후 고종은 자기 궁안에서 포로가 되어 있었다. 景福宮은 일본인이 훈련시킨 훈련대에 의하여 호위되어 있었다. 궁밖에는 1,000명의 일본군이 막사를 치고 있었다. 일본공사 고무라 슈타로(小村壽太郎)는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화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러시아정부는 고종에게 부득이하게 피난처를 제공하였다.⁷⁰⁾

민비가 시해되고 고종이 궁안에서 포로 상태에 있게 되자 전국적으로 반일운동이 시작되었다. 미국과 러시아공사관에 피신하여 있던 李完用·李允用·李範晉·尹雄烈·尹致昊 등이 주동이 되어 고종을 궤외로 모시고 김홍집내각을 타도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 春生門事件을 일본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춘생문사건 이후 반일 한국지도자들은 러시아공사관으로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국모시해에 대한 복수와 단발령의 결사 반대를 외치면서 전국 각지에서 의병운동이 전개되었다. 강원도 春川에서는 李昭應(親露派 李範晉系)이 대대적인 반일운동을 전개하여 春川府 관찰사 曹寅承이 의병들에게 살해되었다.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단발령을 강요하던 지방 관리들이 응징되자 김홍집내각은 서울의 친위대를 각 지방에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의병의 목적

69) 小早川秀雄, 《閔后暗殺》(東京: 筑摩書房, 1962).

李瑄根, 《韓國史—現代篇—》(乙酉文化社, 1963), 587쪽.

69) John Berryman, 앞의 글, p.62.

A. L. Narochitskii, *op.cit.*, p.800.

70) Seung Kwon Synn, *The Russo-Japanese Rivalry Over Korea*(Seoul: Yuk Phub Sa, 1981), p.201.

은 친일파 김홍집내각을 타도하고 고종을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다.⁷¹⁾ 친위대가 의병의 진압을 위해 각 지방으로 분산되자 러시아와 미국공사관에 숨어 지내던 貞洞派들이 웨베르와 알렌(H. N. Allen, 安連)대리 공사를 접촉하여 俄館播遷을 실시하였다.

고종은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러시아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1895년 11월 28일 춘생문사건이 있는 이후 고종은 웨베르공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러시아군 경비대의 보호를 요청하였다. “왕비를 시해한 한국반역자들에 포위되어 나는 내 생명에 대하여 위협을 느끼고 있다. 새로운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루도 보장할 수 없다. 웨베르공사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나에게 러시아군 경비대를 보내 줄 것을 간청한다.”⁷²⁾

그러나 러시아정부는 고종의 요청에 대해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시베리아철도를 만주로 통과하기로 결심한 러시아는 만주에 중요 관심이 있었고 한국은 2차적인 문제였다.⁷³⁾

스페이에르공사는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 고종은 전혀 권력이 없고 일본의 괴뢰들만이 단속없이 명령을 하고 왕세자를 일본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본국에 보고하였다. 왕은 러시아의 간섭을 간청하였다.⁷⁴⁾

새해가 되면서 고종의 불안과 공포심은 더 증가되었다. 민비시해 책임자로 해임되었던 趙義淵이 군부대신에 재임명이 되었다. 동시에 일본정부는 민비사건 관련자 전원을 무죄 방면하였다. 이 상황에서 조만간 일본인들이 고종을 살해하고 李垓鎔을 왕으로 앉힌다는 소문이 나돌았다.⁷⁵⁾ 이때 반일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그러나 무기가 없는 한국 민중은 친일파정부로부터 고종을 해방시킬 힘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러시아공사는 러시아가 한국을 일본에게 완전히 양보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하였다. 웨베르와 스페이에르는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은 서울 주둔의

71) 李瑄根, 앞의 책, 725~730쪽.

72) A. L. Narochitskii, *op.cit.*, p.803.

73) Pak Chon Xë, *Rossija I Koreia*(Moscow, 1993), p.15.

74) Xitrovo to Lobanov, Jan. 15, 1896, *Ibid.*, p.26.

75) 李玟源, 앞의 책, 62쪽.

일본군 병력만큼 러시아 군사를 파견하여 해결하는 것이라고 타진하였다.⁷⁶⁾ 그러나 러시아 외무성은 군대를 파견하자는 제안을 거부하였다.

춘생문사건 이후 친러파 李範晉은 嚴尙宮을 통하여 大院君과 친일파들이 일본군과 공모하여 국왕을 폐위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고종에게 전달하였다.⁷⁷⁾ 이렇게 상황이 긴급해지자 2월 2일 고종은 이범진을 통하여 두 러시아 공사에게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할 계획을 통보하였다. 고종은 친일파 반역자들이 왕과 왕세자를 살해하려 한다고 하여 아관파천 후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였다.⁷⁸⁾

러시아대표들은 아관파천이 너무 위험하다고 이범진에게 알렸다. 그러나 고종은 왕궁에 남아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두 러시아공사는 절박한 위험에 처한 고종에게는 아관파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고려되어 왕에게 피신을 승락하였다. 고종은 스페이에르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파천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통보하였다.⁷⁹⁾ 이때 고종이 알렌서기관에게 아관파천을 하는 것이 현명한가를 문의했는데 그는 적극 찬성하고 왕과 왕세자가 입을 여자 옷을 제공하였다.⁸⁰⁾

2월 7일 고종은 스페이에르에게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9일 밤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겠다고 통보하였다.⁸¹⁾ 그러나 고종은 러시아공사관에 배치되어 있는 水兵의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월 9일에 아관파천을 하지 않았다. 고종은 스페이에르에게 러시아공사관에 배치된 수병만으로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인천에 정박한 러시아군함으로부터 가능한 한 더 많은 수병을 배치해줄기를 간청하였다. 왕의 완강한 부탁에 굴복한 스페이에르는 인천에 정박하고 있던 러시아군함의 알렉세예프(E. I. Alekseev) 제독에게 서울에 수병을 파견하도록 조치하였다. 그 결과 2월 10일 밤 러시

76) Shpeier to Lobanov, Jan. 27, 1896, Boris D. Pak, *op.cit.*, p.126.

77) 《日本外交文書》29, 문서번호 356 奉露主義者ノ國王播遷計等畫ニツキ報告ノ件.

78) Shpeier to Lobanov, Feb. 2, 1896, Boris D. Pak, *op.cit.*, p.126.

79) Pak Chon Xě, *op.cit.*, pp.28~29.

80) George A. Lensen, *Korea and Manchuria Between Russia and Japan: 1895 ~1904* (Tallahassee: The Diplomatic Press, 1966), p.58.

81) Pak Chon Xě, *op.cit.*, p.29.

아 수병 100명과 대포 一門이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 이튿날 고종과 왕세자는 궁녀의 가마를 타고 아침 7시 30분에 러시아공사관에 도착하였다.⁸²⁾

아관파천으로 인하여 친일 김홍집내각은 붕괴되고 정동파에 의한 정부가 수립되었다. 아관파천을 주도한 李範晉·李允用·李完用·朴定陽 등이 새 내각에 등용되었다.⁸³⁾

일부 국내학자들은 아관파천을 러시아정부가 스페이에르공사를 파견하여 그가 주도권을 쥐고 추진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⁸⁴⁾ 1991년 소련이 붕괴된 후 공개된 러시아 외교문서에 의하면 고종과 이범진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웨베르와 스페이에르는 보조적 역할밖에 하지 못한 것이 확실하게 되었다.⁸⁵⁾ 웨베르공사의 外交手記에 의하면 러시아외무성은 아관파천 전까지 한국문제에 관심이 적었다고 한다. 러시아의 주요 관심사는 만주에 있었다. 시베리아철도를 만주로 연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삼국간섭 이후 러시아의 관심은 만주로 집중되었다. 따라서 러시아의 대한정책은 변화하고 있었다. 일본을 요동반도에서 몰아낸 러시아는 한국에 있어서는 일본에게 어느 정도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⁸⁶⁾

2월 14일 고종은 웨베르와 스페이에르에게 한국의 운명을 러시아에게 맡기고 싶다고 하였다. 왕은 계속해서 태평양연안에서 한국의 독립이 유지되는 것이 러시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한국 내각에 배치할 주요한 顧問의 파견과 3,000명의 한국 군대를 조직하기 위하여 러시아 교관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⁸⁷⁾ 그러나 외무성으로부터 아무 회답이 없었다. 2월 26일 스페이에르는 한국의 보호국화를 건의하였다. 그는 “만약 러시아가 일본과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국의 보호자 역할을 거절한다면 러시아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방관하고 있다가 부득이하게 러시아가 한국문제

82) Shpeier to Lobanov, Feb. 11, 1896, *Ibid.*, p.29.

83) 韓哲昊, 〈俄館播遷期 貞洞派의 개혁활동〉(《한국근현대사연구》 4, 1996), 282·283쪽.

84) 李玟源, 앞의 책, 64~65쪽.

李瑄根, 앞의 책, 729~731쪽.

85) Pak Chon Xë, *op.cit.*, pp.23~32.

86) Seung Kwon Synn, *The Russo-Japanese Rivalry Over Korea*(Seoul : Yuk Phub Sa, 1981), p.210

87) Boris D. Pak, *op.cit.*, p.128.

에 개입하게 된다면, 그때 개입해 보아야 아무런 소득이 없다. 따라서 한국이 이렇게 러시아측에 달려오는 이상, 이 기회를 이용하면 러시아가 태평양 연안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할 것이다. 대신 일본에게 한국의 무역 이익과 재정 분야의 주도권을 허용한다면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의견이었다.⁸⁸⁾

그러나 러시아정부는 러시아의 한국 보호자 역할을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 고종이 요청한 한국 내각의 고문이나 군사교관 문제를 기각하였다.⁸⁹⁾ 시베리아철도의 만주 통과를 결정한 러시아는 한국에서 더 이상 세력을 확장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만주방면으로 확장하기로 결심한 러시아정부는 일본과 한국문제를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 또한 당시의 군사력으로는 러시아에 도저히 적대할 수 없었으므로 정면 충돌의 위험을 회피하면서 러시아와 타협의 길을 모색하려고 했다. 영국 대표들이 서울에서 교섭한 결과 5월 14일에 웨베르-고무라 覺書(Waeber-小村 Memorandum)가 체결되었다. 이 협정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을 점령하고 있는 모든 일본군의 철수를 의미하였다. 800명 이하의 일본 衛兵도 한국인으로부터 피습될 위험이 소멸되면 철수하도록 되었다. 또한 러시아도 4개 도시에 일본 군인수에 초과하지 않는 수의 위병을 둘 수 있게 되었다.⁹⁰⁾

1896년 2월 일본정부는 모스크바에서 거행될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日露提携論者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를 전권대사로 파견하여 러시아와 협상하려고 결심하였다. 일본 군부를 대표하는 야마가타는 러시아와 同盟내지는 和親協商(entente cordiale)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모스크바로 출발전 야마가타는 한반도의 분할안을 무츠외상과 상의하였다. 무츠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과 협의한 후, 만약 히트로보공사가 직접 한반도 분할문제를 제의한다면 일본정부는 그 문제를 착수하겠다고 대답하였다. 몇일 후 야마가타는 히트로보공사를 만나 한반도 분할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히트로보는

88) Shpeier to Lobanov, Feb. 26, 1896, Pak Chon Xë, *op.cit.*, p.38.

89) Shpeier to Lobanov, Feb. 26, 1896, Pak Chon Xë, *op.cit.*, p.39.

90) 《日本外交文書》29, 문서번호 465 朝鮮事件善後始末ニ關スル露國公使トノ協議ニ付報告ノ件(附屬書 二).

그 제안을 회피하였다. 야마가타는 외교문제는 대단히 예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⁹¹⁾

모스크바에서 5월 24일 러·일간의 비밀교섭이 시작되었다. 야마가타대사는 일본의 露日議定書案을 로마노프외상에게 제시하였다. 일본 제안의 핵심은 39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러시아와 일본이 분할하자는 것이었다.⁹²⁾ 6월 6일 로마노프는 반대 제안을 하였다. 한국을 분할하자는 조항은 완전히 제거되었고 그 대신 앞으로 고종의 호위병은 러시아가 조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야마가타는 일본 국민은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6월 6일 국민 초대 만찬장에서 니시 일본공사는 카프니스트 아시아국장에게 일본은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카프니스트국장은 일본은 이미 한국 궁성을 호위한 적이 있고 훈련대도 조직했었다고 지적하였다. 한때 야마가타와 니시는 대러협상을 중단할 생각까지 하였다.⁹³⁾

6월 9일 로마노프-야마가타 議定書(Labanov-山縣 Protocol)가 체결되었다. 러·일간의 협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반도의 분할문제였다. 5월 24일 제1차 회견에서 로마노프외상과 야마가타는 일본 제안의 제5조를 논의할 때 서로 웃었다. 그 뜻은 일본이 한반도를 러시아와 분할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었다. 많은 소련·미국 및 한국 학자들은 왜 러시아정부가 한반도를 39도선에서 분할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거절하였는가에 대하여 잘못 해석하고 있다.⁹⁴⁾

1928년 소련학자 로마노프(V. N. Romanof)교수가 일본의 39도선 제안을 38도선으로 잘못 썼기 때문에 세계 모든 학자들은 38도선으로 잘못 쓰게 되었다고 했다. 야마가타대사가 大同江~元山線 39도선을 제안하였고 러시아정부도 그렇게 받아들였다.⁹⁵⁾ 1896년 이후 러시아정부가 일본정부에게 한반도 분

91) 信夫淳平, 《明治秘話—二大外交真相—》(東京, 1928), 28쪽.

92) 《日本外交文書》29, 문서번호 482 朝鮮ニ關スル露國トノ協約ニ付報告並ニ意見具申ノ件.

93) 위와 같음.

94) B. A. Romanov, *op.cit.*, p.143 ; William L. Langer, *The Diplomacy of Imperialism* (New York : Alfred A. Knopz, 1956), p.406.

95) B. A. Romanov, *op.cit.*, pp.142~143.

V. p. Nikhamin, *op.cit.*, p.159.

할을 39도선을 경계로 제안한 것을 보면 39도선이 역사적 사실이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러시아의 한국정책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 당시 일본이나 영국도 러시아가 한반도 전체를 병합할 의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⁹⁶⁾ 1900년에 義和團事件이 발발하자 5만 명의 러시아군이 만주를 점령하였다. 그 2년 후 람스도르프(Lamsdorf)外相이 지리적·정치적 조건에 입각하여 한반도는 러시아제국에 없어서는 안될 組成地方으로 예정되었다고 생각했다.⁹⁷⁾ 많은 학자들은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을 잘못 해석한다.

당시 러시아 주재 일본공사 니시 도쿠지로(西德二郎)가 가장 예리하게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을 분석하였다. 그는 1875년에 쾰른 페테르브르크대학을 졸업한 러시아를 잘 아는 일본외교관이었다. 야마가타대사는 러시아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었고 외교에도 경험이 없었다. 따라서 모스크바에서 러일협상은 주로 니시공사가 주도하였다. 니시는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현재 러시아로서는 일본과 공동으로든 혹은 단독이든 간에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었다가 영국이나 기타의 세력과 예측할 수 없는 분규를 초래할 의사가 없다. 현재의 상태로는 일본과 함께 한국을 남북으로 분할할 의사도 없다. 그러나 상태가 一變하여 한국의 독립이 유지될 수 없게 되던가 일본의 세력이 강성해져서 그와 더불어 항쟁함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즉 共同分割) 사양치도 않을 것이다.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러시아가 한국에서 원하는 것은 현상유지이다. 러시아는 한국을 정복하던가 보호국화할 계획이 없다(《日本外交文書》29, 문서번호 482 朝鮮ニ關スル露國トノ協約ニ付報告竝ニ意見具申ノ件).

러·일간의 제2차 회담에서 일본이 한반도를 남북으로(39도선) 분할하자고

《日本外交文書》29, 문서번호 482 朝鮮ニ關スル露國トノ協約ニ付報告竝ニ意見具申ノ件.

96) George A. Lensen, *op.cit.*, p.74.

John Berryman, *op.cit.*, pp.72~73.

97) B. A. Romanov, *op.cit.*, pp.141~142.

제의한 데 대하여 로바노프외상은 후일에 가서 필요로 할 그 때에 재론키로 전제하고, ‘南北’二字를 삭제키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모스크바 의정서의 비밀조항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체결되었다.⁹⁸⁾

“한국의 안녕 질서가 문란해지던가 또는 문란해질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러·일 양국민의 안녕 보호와 電信線 유지를 위한 군대 이외에 각기 합의에 의해 다시 군대 파견을 필요로 할 경우 양국정부는 그 군대 상호간의 모든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대와 군대간에 점령하지 않는 空地를 두도록 각 군대의 用兵地域을 확정할 것이다.”⁹⁹⁾ 이 비밀조항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니시공사가 예측했던 대로 1900년 義和團事件을 계기로 러시아군대가 만주를 점령한 이후 한반도를 39도선에서 분할하자고 일본에게 제의했기 때문이다.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니콜라이 2세는 러일협상이 실패하자 극동총독 알렉세예프에게 일본함대가 한국의 서부해안에서 39도선을 넘으면 일본의 선제공격 없이도 일본군을 공격해도 좋다는 전문을 보냈다.¹⁰⁰⁾ 이것은 1896년 모스크바에서 야마가타대사가 로바노프외상에 한국을 남북으로 분할하자고 제안했을 때 ‘남북’ 2자를 삭제하고 받아들였으나 실제로는 러시아정부는 39도 이북을 러시아의 영향권에 속한다고 생각했다는 증거이다.

한국정부도 러시아황제의 대관식을 계기로 閔泳煥특사를 파견하여 대러교섭을 추진하였다. 6월 5일 민영환대사가 다섯 가지의 요청을 하였을 때는 러일간의 협상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 그의 요청은 로바노프외상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일본과 갈등을 유발시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민영환대사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렇다고 전면 거절하면 한국이 러시아측으로부터 이탈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반쯤 약속하는 태도를 취했다. 7월 2일 러시아정부는 ‘회답메모’ 형식으로 5개 조항을 약속하였다.¹⁰¹⁾

98) 《日本外交文書》29, 문서번호 482 朝鮮ニ關スル露國トノ協約ニ付報告竝ニ意見具申ノ件.

99) 《日本外交文書》29, 문서번호 478 山縣大使露國トノ議定書成立シタル旨報告ノ件.

100) Vladimir L. Burtsev, *Der Zar und die auswaertige Politik Das geheime Memorandum des Grafen Lamsdorff/ Das Geheime Orangebuch*(Berlin: E. Bernhard Frowein Verlag, 1910), p.90.

회답메모로 만족하지 않은 민영환대사는 8월 7일 로바노프외상에게 한·러 방위동맹조약을 제안하였다. 이 조회에서 민영환대사는 말하기를 한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며, 다년간 양국은 상호친선을 도모하여 왔고, 앞으로 그 친선이 더욱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하였다. 앞으로 타국이 한국의 자주독립을 침해하게 되면 러시아는 병력으로 한국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¹⁰²⁾ 그러나 러시아정부는 민영환대사가 러시아정부와 동맹조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것을 알았고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하여 토론하지 않았다. 니콜라이 2세의 재가를 받아 로바노프외상은 다음과 같은 조회를 민영환대사에게 권하였다. “本大臣은 귀하의 뜻을 奏上하였고, 러시아정부를 대표하여 한국정부에 대한 불변의 호의를 보증한다. 앞으로 한국 왕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협력을 할 것이다.”¹⁰³⁾

8월 13일의 로바노프 조회와 회답메모는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을 잘 나타낸다. 러시아는 한국의 영토와 독립을 보장하였고, 한국을 합병하던가 보호국화할 의사가 없었다. 한반도문제로 인하여 러시아는 일본·영국 및 미국과 충돌할 필요가 없었다. 민영환대사가 제안한 한·러 방위동맹은 러·청 방위동맹이 커버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다. 러·청 비밀조약에 의하여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경우에 러시아와 청국이 공동으로 한국을 방어하게 되어 있었다.¹⁰⁴⁾

3) 러시아의 한반도 분할 제안

1897년 12월 중순 러시아 극동함대가 여순항을 점령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을 달래기 위하여 1898년 1월 러시아정부는 일본정부에 접근하였다. 여순·대連의 확보를 위해 러시아는 어느 정도 한국을 일본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한국정부가 알렉세예프(K. A. Alexeiev)를 顧問으로 임명한 데 대해

101) B. A. Romanov, *op.cit.*, pp.144~145.

102) Boris D. Pak, *op.cit.*, p.132.

103) Pak Chon Xë, *op.cit.*, pp.53~54.

104) 金景昌, 앞의 책, 464~465쪽.

서 일본정부는 격분하고 있었다.¹⁰⁵⁾

2월 중순 일본은 러시아주재 일본공사 하야시를 통하여 대러 협상을 제의하였다. 한국 군대를 훈련시키는 군사교관은 러시아정부가 임명하고 일본정부는 재정고문관을 임명한다는 제안을 하였다.¹⁰⁶⁾ 위테재무대신은 일본이 재정고문관을 임명하게 되면 한국 경제는 일본이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일본의 제안을 반대했다.¹⁰⁷⁾ 그리고 나서 잠시 러·일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 무렵 스페이에르공사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독립협회를 위시한 한국 국민의 저항과 일본 및 영국의 반대로 스페이에르의 강경정책은 성공하지 못하였다.¹⁰⁸⁾ 일본의 재정고문관 임명 제안은 위테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알렉세예프 고문관을 서울에서 철수시키면 한국 경제는 일본이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러일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았다. 알렉세예프의 소환 이후 위테는 露韓銀行을 폐쇄하고 한국과의 경제적 거래를 중단시켰다.¹⁰⁹⁾ 위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라비에프(M. N. Muraviev)외상의 의견이 승리하였다. 그는 여순·대련에서 러시아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는 일본 및 영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았다.¹¹⁰⁾ 일본과의 교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무라비에프는 스페이에르를 북경공사로 영전시키고 마투닌(N. G. Matunin)을 공사로 임명하였다.

3월 18일 니시외상은 일본주재 러시아공사 로젠(R. R. Rosen)에게 만주를 한국과 교환하자는 제안을 하였다.¹¹¹⁾ 3월 29일 러시아정부는 일본의 滿韓交換提案을 거절하였다. 무라비에프외상은 일본과의 군사적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국을 일본에게 포기하려고 하였다.¹¹²⁾ 그러나 러시아 군부는 한국

105) Seung Kwon Synn, *op.cit.*, p.253.

106) 《日本外交文書》31-1, 문서번호 119 林公使ヨリ露外相ニ手交セル日本側ノ議定書草案寫, 138쪽.

107) B. B. Glinskii, *Prolog Russko-Iaponskoi Voiny*(Petrograd, 1916), pp.64~65.

108) Seung Kwon Synn, *op.cit.*, pp.261~265.

109) B. A. Romanov, *op.cit.*, pp.207~208.

110) Pak Chon Xë, *op.cit.*, p.123.

111) 《日本外交文書》31-1, 문서번호 141 韓國ノ援助ハ日本ニ一任サルヘキ旨述ヘシロ上書, 153~154쪽.

에서 일본에게 그렇게 광범위한 정치적 영향력을 부여하는 것이 러시아 연해주 지방을 위협하는 전략적 기지를 일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이를 반대하였다. 더구나 러시아 해군은 여순항이 러시아 함대의 극동 연료공급지로서는 적당치 않아 한국의 남해안에 다른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따라서 러시아정부는 만주를 한국과 교환하자는 일본의 제의를 거절하였다.¹¹³⁾

알렉세예프를 고문으로 한국정부가 임명한 데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던 일본이 러시아 함대가 여순항을 점령하자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러시아의 남진정책을 억제해 온 영국과 공동으로 대응하여 한국을 점령하려고 하였다. 무라비예프외상 생각으로는 일본이 영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한국을 점령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¹¹⁴⁾ 이때 무라비예프는 만약 일본정부가 한반도의 남부를 군사적으로 점령하려고 결정하면, 러시아도 북한의 전략적인 거점을 점령해야 된다고 국방장관에 청원하였다.¹¹⁵⁾ 이 사실은 러·일의 한반도 분할획책 정책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1896년 야마가타 대사가 39도선에서 한국을 분할하자고 로마노프외상에게 제안했을 때 러시아정부는 반대하고, 그 대신 로마노프·야마가타 議定書 비밀조항에서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할되었다. 1898년 러시아가 여순을 점령하였을 때 만약 일본이 남한을 점령하면 러시아는 북한을 점령해야 된다고 무라비예프외상이 주장한 것은 러시아정부가 39도선 이북을 러시아 영향권내에 속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오랜 교섭 끝에 4월 25일 로젠-니시 協定(Rosen-西 Convention)이 東京에서 체결되었다. 이 협정 3조에서 러시아는 한·일 양국간의 상업 및 공업의 발달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만주에서 시베리아철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러시아는 정치적·경제적으로 한국을 일본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무라비예프외상은 마틴공사에게 일본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

112) Sergei I. Witte, *Vospominaniia*(Berlin, 1922), p.145.

113) 위와 같음.

114) Pak Chon Xë, *op.cit.*, p.128.

115) 위와 같음.

제하도록 명령을 내렸다.¹¹⁶⁾ 그 결과 한국은 러시아 극동정책의 중요 지역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러시아 외교정책의 초점은 만주로 집중되었다.

1900년 여름 청국에서 의화단사건이 발발하자 수만 명의 러시아군이 만주를 점령하기 시작하였다. 주러시아 일본공사 고무라 슈타로(小村壽太郎)는 의화단 사건이 러시아와 한국문제를 해결하는 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7월 22일 고무라공사는 滿韓교환 제안을 아오키 슈조(青木周藏)외상에 건의하였다. 일본과 러시아가 한국과 만주에서 서로 자유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세력범위를 확정하자는 제안이었다.¹¹⁷⁾ 7월 26일 아오키외상은 滿韓의 勢域協定案을 고무라공사를 통해서 러시아정부에 제안했다.¹¹⁸⁾ 그러나 러시아정부는 한반도를 39도선에서 분할하자고 제의하였다. 이번에는 일본이 39도선 제안을 거절하였다.¹¹⁹⁾

1900년 7월 중순경 러시아군이 의화단을 진압하기 위하여 훈춘·하르빈시를 점령한 후 남진하게 되자, 고종은 외국 군대의 한반도 상륙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고종은 청국과 같이 한국도 외국 군대의 한국점령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그는 외국대표들을 소집하여 유사시 한국을 도와 줄 것을 호소하였다.¹²⁰⁾ 이때 러시아정부는 일본이 의화단사건을 이용하여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할까봐 염려하고 있었다. 람스도르프(V. N. Lamsdorf)외상은 동경주재 러시아공사 이즈볼스키(A. P. Izvolskii)를 통하여 만약 일본이 군대를 한국에 파견하게 된다면,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에 의하여 러시아도 같은 수의 군대를 한국에 파병할 수 있다고 일본정부에 통보하였다. 또한 양국 군대가 출병하였을 때 양국 군대 사이에 점령하지 않는 空地를 설정해야 된다고 하였다.¹²¹⁾ 아오키외상도 람스도르프외상 의견에 동의한다고 이즈볼스키공사에게 말하였다.¹²²⁾ 여기서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일

116) Pak chon Xě, *op. cit.*, p.129.

117) 《日本外交文書》33, 문서번호 522 滿韓ニ於ケル日露勢域協定方稟申ノ件.

118) 《日本外交文書》33, 문서번호 531 目下ノトコロ韓國ニ關シ何等行動ヲ執ラザル旨回答ノ件一註.

119) 《日本外交文書》33-3, 事項 20 〈雜纂〉, 문서번호 2370 山縣侯意見書, 952~953쪽.

120) Boris D. Pak, *Rossia i Koreia*(Moscow, 1979), p.175.

121) 위와 같음.

122) Boris D. Pak, *Rossia i Koreia*(Moscow, 1979), p.176.

본 양국이 1896년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의 비밀조항에 의하여 한반도가 39도선을 경계로 분할되어 있었다고 서로 인정한 사실이다.

러시아정부가 염려한 대로 1900년 여름 일본 야마가타내각은 한국의 점령을 준비하고 있었다. 원래 야마가타는 한국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전쟁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생각으로는 시베리아철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일본과의 전쟁을 회피할 것이라고 보았다. 야마가타 수상은 영국과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점령을 찬성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三國干涉때와 같이 러시아·프랑스 및 독일이 반대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오오끼수상은 주독일 이노우에 공사에게 독일정부의 견해를 타진토록 훈령했다. 일본이 한국을 그의 세력범위에 넣은 경우에 독일은 최소한 호의적 중립을 지켜줄 것인가 하는 내용이 었다.¹²³⁾ 독일정부는 엄중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야마가타내각이 9월 26일 사직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한반도 점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¹²⁴⁾

1901년 1월 7일 동경주재 러시아공사 이즈볼스키는 가토 다카야키(加藤高明)외상에게 열강의 공동보증하에 한국의 중립화안을 제안하였다. 주청 일본 공사 고무라가 가장 현명한 충고를 가토외상에게 하였다. 그의 생각으로는 러시아가 한국의 중립화안을 제안한 것은 그들의 만주에서의 자유행동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러시아가 만주까지 중립화하지 않는 한 일본은 한국을 중립화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만약 만주와 한국을 동시에 중립화할 수 없다면, 일본은 한국에서, 러시아는 만주에서 각 세력범위를 분할하여야 된다고 주장하였다.¹²⁵⁾ 그 후 피터스버그와 동경에서 러·일 간의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아무 성과없이 끝났다.

1901년 11월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피터스버그를 방문하여 러시아 지도자들과 만주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902년 2월 일본은 영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러시아와의 전쟁을 서두르게 되었다.

123) 《日本外交文書》33, 문서번호 526 韓國ヲ日本ノ勢力範圍下ニ保有スル場合ニ於ケル獨國ノ態度及措置ニ付任國ヘ內閣方訓令ノ件.

124) 信夫清三郎・中山治一 編, 《日露戰爭史の研究》(東京:河出書房新社, 1959), 95쪽.

125) 《日本外交文書》34, 문서번호 398 韓國中立問題ニ關シ外務次官補「バーチャー」談話ノ件.

1903년 6월 일본정부는 러시아와 협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8월 12일 주러공사 쿠리노 신이치로(栗野愼一郎)가 일본정부의 제안을 제출하였다. 이 제안에서 일본은 한국을 완전히 일본 세력하에 둘 것을 요구하고, 만주에서의 러시아의 권한을 철도경영에 한정시키려고 하였다.¹²⁶⁾ 10월 3일 대안에서 러시아정부는 39도선 이북을 중립지대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¹²⁷⁾ 이에 대하여 일본은 만주 양국경에 걸쳐 남북 각 50km의 중립지대를 설정할 것을 제의하였다. 러·일간의 교섭은 1904년초까지 계속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러시아가 전쟁준비가 안 된 것을 간파한 일본은 1904년 2월에 전쟁을 시작하였다.

〈辛承權〉

126) John A. White, *The Diplomacy of the Russo-Japanese War*(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pp.351~352.

127) 《日本外交文書》36-1, 문서번호 25 露國公使ヨリ露國對案提出ノ件, 22~23쪽.